• 불교의 생활화
• 불교의 현대화
• 불교의 세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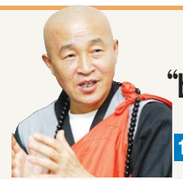
현대불교

제 696 호 구독신청 02)2004-8200 Buddhanews.com 불기 2552년 9월 10일(음력 8월 11일) 수요일(주간)

신상품 LED인등 · LED전구
찬덕연등 031)792-6288/794-4055



"자비심 키워 하나되게"
17 선지식- 도견 스님



"바른 역사 인식이 미래창조"
15 저자 인터뷰-진관 스님



"삶과 죽음은 같은 길입니다"
9 호스피스 봉사자 이경수



"만해 스님 정신 그대로"
19 '만해 한용운 연구'展 연 고산금

종교차별 끝날때까지…

'…범불교대책위' 전국상설기구로 구성…감시·홍보·연대활동 지속

8 · 27 범불교도대회와 8월 31일 1만여 사찰에서 봉행된 '이명박 정부 규탄 전국 사찰 동시법회'로 이어진 불자들의 염원이 '헌법파괴 종교편향 종식 범불교대책위' 구성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조계종을 비롯한 주요 종단 대표자 등 100여명의 불교지도자들은 9월 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회의를 열고 범불교도대회 봉행위원회를 범불교대책위로 전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는 이명박 정부의 종교차별 정책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에 대비한 것으로 범불교대책위는 조직, 교육, 총무, 대외협력 등의 4개 팀과 종교차별감시센터 등으로 구성된다.

범불교대책위는 향후 △공직사회 종교편향 활동 감시 △국민통합과 종교평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사업 △종교차별 금지법안 마련을 위한 입법 및 종교평화를 위한 정책활동 △지역별 불교도대회 및 활동 지원 △시민사회 인식 저변 확대를 위한 연대활동 등을 전개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종교차별과 관련한 불자들의 실천지침도 마련했다. △종교차별 종식을 위한 철야기도 정진 △사찰, 단체 명의 현수막 게시 △종교차별 사례 및 범불교도대회 사진전 진행 △사찰별 1인 시위 및 언론광고, 사보 홍보 등 활동 전개를 담은 실천지침 1만여개를 사찰에 하달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향후 지역별 범불교도대회 일정도 검토했다. 불교지도자들은 1차로 대구 · 경북, 2차로 호남지역에서 범불교도대회를 열기로 하고, 구체적인 실무준비를 범불교대책위에 위임했다.

참석자들은 불교계 4대 요구사항인 이명박 대통령 공개사과, 어청수 경찰청장등 책임자 문책, 종교차별 금지법 제정, 시국관련자 대화합 조치 시행 등을 다시 확인하고 정부의 성의 있는 조치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처럼 종교평화를 염원하는 불교계의 의지가 날로 강해지자, 청와대와 정부 · 여당은 불교계의 핵심 요구사항인 대통령의 직접 사과와 어청수 경찰청장 퇴진을 수용하는 최종협상안을 마련하고 불교계와 조율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은, 대통령이 국무회의 석상이나 9월 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불교계에 직접 사과하고 유감을 표명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그 수위를 조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어청수 경찰청장 퇴진과 관련해서는 경찰의 사기와 대통령의 인사권을 고려해, 추석을 전후해 자진사퇴를 종용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9월 4일 종교편향 논란 사태 이후 처음으로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예방하고 불교계 의견을 청취했다.

여권의 불교계 요구수용 목소리가 추석(14일)을 앞둔 불자들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성우 기자 buddhapia5@hanmail.net



9월 4일 지리산 노고단에서 계룡산에 이르는 오체투지 순례를 시작한 수경 스님(오른쪽)과 문규현 신부(왼쪽)

社告 ■ 종교편향 근절 호법캠페인

"공공기관에 현대불교를 보냅시다"

특정종교의 근본주의적인 '복음주의'의 영향으로 공직자의 종교편향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직자의 종교편향은 종교간의 갈등을 유발, 지역 • 계층 • 세대간의 갈등을 더욱 부추겨 국민통합을 저해함으로써 나라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사에서는 국가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정부산하기관, 정부출연기관, 특수법인, 각급 학교 등 공공기관에 현대불교 보내기 캠페인을 벌입니다. 한 장의 '호법보살'인 현대불교는 불교문화를 제대로 알리는 포교기능과 종교편향 및 훼불행위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해 불교를 외호하고 불법을 널리 전하는 최일선의 포교사가 될 것입니다.

법보시 대상
청와대 각부서/국회의원실/정부(15부 2처)/경찰청/지방자치단체/각급 교육기관/전국 공공도서관/군부대

법보시 후원 안내
-법보시는 1구좌 1,000원이상 -계좌 : 국민은행 038-25-0008-365(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문의 대표(02)2004-8200

"평화 가득한 세상 염원합니다"

수경 스님 등 지리산에서 묘향산까지 오체투지

"오체투지로 우리 사회와 온 세상에 생명과 평화가 가득하길 염원합니다."

온 국민의 화합과 이 땅의 평화를 위해 종교인들이 공업(共業)참회에 나섰다.

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수경 스님과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문규현 신부 등 오체투지순례단(이하 순례단)은 9월 4일 지리산 노고단을 출발해 계룡산 중악단, 임진각을 거쳐 묘향산 상악단에 이르는 대장정에 올랐다. 계룡산까지의 1차년도 순례는 총 200여Km로 하루 3~5km 진행이 예상되며, 11월 1일 도착 예정이다. 순례단은 이후 2009년 동안 날짜를 정하지 않고 임진각을 거쳐 묘향산까지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반인 참여는 하루 순례를 기본으로 하며 삼보이후 목례로 진행된다.

오체투지순례단은 "이명박 정부의 폭압정치 때문에 우리 사회가 총체적 난국에 빠져 혼란에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며 "오체투지 순례는 이러한 시대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순례"라고 밝혔다.

순례단은 이어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는 국민의 진심어린 요구를 정치적 말장난과 폭력적 공권력으로 대하고, 공영방송을 권력의 도구로, 국민 생존권이 달린 공기업은 사회적 합의 없이 민영화하고 있다. 국가정상화는 권력 정상화로, 공권력 회복은 국민폭력으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순례단은 "우리 순례는 절대 냉혈 권력을 바라보지 않고 권력과의 대립조차 초월해 국난을 극복하려는 국민의 마음을 따라 길을 가겠다"고 밝힌 뒤 "사람과 사람, 인간과 자연, 남과 북의 평화를 위한 정진으로 희망을 밝히겠다"며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02)720-1654 노덕현 기자

"종교차별금지법 반대"

한기총 성명, 논란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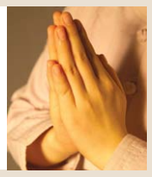
불교계가 제정을 촉구한 '종교차별금지법'에 개신교가 반대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회장 엄신형, 이하 한기총)는 9월 5일 '종교차별금지법 제정 시도를 신중히 하라'는 제하의 성명서를 내고 '종교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했다. 한기총 엄신형 회장은 8 · 27 범불교도대회 다음날, 청와대 '뉴라이트 만찬'에 불려갔던 인물이다.

한기총은 성명서에서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는 자신의 종교를 선전하고 포교하는 것은 물론, 타 종교를 비교 · 반대할 수 있는 자유를 포함한다"고 주장했다.

한기총은 이어 "종교차별금지법 제정은 종교에 대한 합리적 비교와 반대를 원천봉쇄해 헌법이 보장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며, 종교간 갈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동섭 기자

"법률사무소 서안(瑞安)은
스님, 불자님의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법률사무소 서안 취급업무 : 민사·형사·가사·행정
강영화 변호사 | 031)436-3054 010-7504-4521





www.buddhabook.co.kr
02_3672_7181
모든 불교서적이 모이는 곳
불교서적총판 운주사



"숲 향산화 원액 100%"
청 다 향
부처님 제일공양 한국최초 식품과학 연구분석(동국대) 51가지 향기판명
덕유산 청다향 문의 055)941-1083



불가 최초생수에 희석하여 사용하는 관불 · 관욕 전용 관불수향
올곧은 마음으로 참된 공양물만을 만드는
능인향당 향 · 조각 · 공양물
본사 02)3663-6777 직영매장(조계사 맞은편 02-730-6888)

법왕사 제18회 세계평화남북통일기원
경율론(經律論) 삼장(三藏) 백고좌 대법회 회향



종진스님 해인사율주

법왕사에서 세계평화 남북통일을 기원하는 제18회 백고좌법회를 봉행합니다.
백고좌법회란 1백분의 큰스님을 모셔다 100일동안 설법하는 법회로 법왕사에서는 창건 이래 18여년동안 열일곱 차례의 백고좌법회를 열었는데 매번 많은 불자들이 동참해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법회로 자리잡았습니다. 이번 법회는 불교의 핵심인 경율론 삼장을 모두 아우르는 폭넓은 주제를 택하여 오는 6월 18일(수)부터 9월 30일(화)까지 100일동안 법랍 30년 이상의 스님 1백분을 모셔서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법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 민족의 통일을 염원하는 발원을 담아 뜻깊은 법석을 마련할 예정이오니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법왕사 주지 실상 합장

〉〉회향 법문 및 보살계 불명수지 법회봉행
〉〉9월 30일 오전 11시 / 동참금 : 20,000원
※ 불명 받으실 분은 미리 종무소로 접수 바랍니다.

• 일시 : 2008년 6월 18일(수) ~ 9월 30일(화) 100일간
매일 오전 9시 (108배 3번) 매일 오전 11시 (법문)
• 장소 : 법왕사 큰법당 • 증명 : 조계종 원로의원 원공 정무

※ 동참 신행단체는 미리 연락 바랍니다.

76일차_9월 1일 도진스님 (직지사 중암)
77일차_9월 2일 상훈스님 (쌍계사주지)
78일차_9월 3일 진철스님 (만불선원)
79일차_9월 4일 화암스님 (포천/동화사주지)
80일차_9월 5일 일진스님 (운문사학감)
81일차_9월 6일 성해스님 (정혜사주지)
82일차_9월 7일 도영스님 (완주/송광사주지)
83일차_9월 8일 송현스님 (통도사한주)
84일차_9월 9일 혜창스님 (김용사주지)
85일차_9월 10일 여연스님 (일지암주지)
86일차_9월 11일 원오스님 (도림사주지)
87일차_9월 17일 만성스님 (토굴정진)
88일차_9월 18일 용타스님 (계행복마을재단이사장)
89일차_9월 19일 혜인스님 (광덕사회주)
90일차_9월 20일 도성스님 (前 해인사주지)
91일차_9월 21일 금담스님 (극락선원회주)
92일차_9월 22일 대원스님 (각원사)
93일차_9월 23일 일초스님 (前 동학사강주)
94일차_9월 24일 상덕스님 (옥수종합사회복지관장)
95일차_9월 25일 효범스님 (부처님마을주지)
96일차_9월 26일 원범스님 (선암사주지)
97일차_9월 27일 지산스님 (관운사주지)
98일차_9월 28일 성타스님 (불국사회주)
100일차_9월 30일 종진스님 (해인사율주)

• 백고좌법회 CD 테이프 판매 제18회 백고좌법회 고승대덕 큰스님 법문 테이프와 CD를 제작, 판매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 바쁜 관계로 백고좌 법회에 동참 못한 가족, 친지 및 이웃에게 법문 테이프, CD를 구매하여 전하는 불법홍포의 좋은 인연을 지으시고 복전의 선근공덕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테이프 : 2천원 CD : 3천원

제18회 백고좌대법회 회향 기념
산사음악회
2008. 9. 29(월) 오후 7시 법왕사 대광장

사 회 이대희(MBC-FM 골든디스크 진행자)
출연진 범능스님, 포탈라 솔리스트 앙상블, 정무시, 팝페라 손영희(오페라+대중가요) 소프라노 배혜리, 김난영(카페음악)



산사의 향기를 따라
설악산 봉정암 순례법회 봉행

법왕사에서는 불자님과 대구시민을 대상으로 설악산 봉정암 순례법회를 봉행합니다.
• 코스 : 백담사-오세암-봉정암(대청봉)-수렴동계곡
• 일시 : 10월 10일(금) ~10월 12일(일) 2박 3일 밤 12시
• 장소 : 법왕사 주차장
• 문의 및 접수 : 법왕사 종무소 053)766-3747

백고좌법회 회향
삼사순례 법회 봉행

법왕사에서는 백고좌법회 원만 회향 기념의 일환으로 오는 10월 1일 벽송사, 실상사, 금대암을 순례하는 삼사순례법회를 봉행드립니다.
신도님들의 많은 동참으로 가을 단풍의 정취를 만끽하시는 좋은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 일시 : 2008년 10월 1일(수) 오전 8시
• 장소 : 법왕사 주차장
※ 차량 및 공양 관계로 미리 종무소로 접수 바랍니다.



죽비와 목탁



강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추석, 부처님 마음으로 이웃도 돌보자

"더도,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민족 최대의 명절 한가위, 추석이 성큼 다가왔다. 예년에 비해 빨리 돌아온 추석은 주말을 끼고 있어 귀향을 포기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그래도 추석은 우리에게 포근한 고향과 풍요로움을 떠오르게 한다.

요즘 추석이 가지는 풍요로움이 빛바랜듯한 느낌이다. 제2의 IMF가 올지도 모른다며 사회는 흉흉하고, 연일 소비자물가는 오르고 모두들 살기 힘들다고 아우성이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유가는 한 풀 꺾였지만 원화 가치는 자꾸 떨어지고 주식시장도 찬바람 불긴 매 한가지다. 시장상인들 사이에선 추석특수가 실종됐다는 소문도 들린다.

그래서일까? 요즘 복지시설에는 후원이 뚝 끊겼다고 한다. "더도,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말이 서러울 만큼 기업 후원도, 일반 후원도 줄어들었다며 시설 직원들의 시름도 깊어간다.

시설에 머무는 어르신들은 어르신들대로,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외롭고 쓸쓸한 추석을 기다리게 됐다. 지금 내 모습과 다른 TV 속 추석풍경으로 인해 아이들은 '추석'을 남의 일로 등 돌리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내 살림살이가 퍽퍽하니 주변을 돌아볼 여건이, 그럴 여유가 마음에서 사라진 게 사실이다. 사회복지공동모금중앙회에 따르면 올 상반기 모금액은 447억 7000만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513억2800만원에 비해 65억 5800만원이나 줄었다. 그만큼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것이다.

불교계 복지관들이 지역 어르신들을 모시고 추석 명절맞이 행사를 마련하고, 독거어르신을 위한 떡 과일 선물세트나 쌀, 소년소녀 가장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하다. 보다 많은 불자들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보시의 손길을 내밀어야하는 실정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보시는 물질 나눔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다. 남을 위하는 마음 한 번 더 내고 한 번 더 웃어주는 것도 훌륭한 보시의 덕목이다. 재물이 없이도 베풀 수 있는 일곱 가지 보시를 말씀하신다. 부드럽고 온화한 얼굴을 지니는 화안시(和顔施), 칭찬 격려 등 부드러운 말로 이야기하는 언사시(言辭施), 다른 존재에 자비심을 갖는 심시(心施), 온화한 눈길로 보는 안시(眼施), 공손한 태도로 남을 돕는 신시(身施), 자기 자리를 양보하는 상좌시(牀座施), 나의 집을 타인에게 숙소로 제공하는 방사시(房舍施) 중 하나라도 실천해보는 것을 어떨까.

온 세상이 풍요로워지는 추석, 내 한 몸 추스르기 어려운 불황이더라도 주변에 환한 미소 한 번 더 보내주는 마음만은 부자인, 자비 가득한 불자다운 추석을 맞이하자.

삼보 스님 '위법망구'의 메시지는?

10.27법난 때부터 쌓인 종교편향에 분노
'불교탄압중단' 혈서…동국대 병원서 치료
범불교도 봉행위 "평화적 방법" 호소

정부의 불교 차별에 항의하는 호법보살들의 파사현정(破邪顯正)의 목소리가 사그라지지 않는 가운데, 한 스님이 위법망구(爲法忘軀: 진리를 위해 몸을 잊음) 정신으로 할복한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8월 30일 낮 12시40분경 조계사 대웅전에서 삼척 기원정사 주지 삼보 스님(前 오대산 상원사 주지)은 미리 준비해 온 A4 용지에 '이명박 정권은 불교 탄압 중단하라'고 혈서를 쓴 다음 흉기로 배를 깊이 5mm, 길이 10cm 가량씩 세 번 자해하고 쓰러졌다. 스님은 조계사 종무원들과 신도들에 의해 발견돼 곧바로 119 대원에게 응급 치료를 받고 경기도 일산 동국대 병원으로 후송됐으며 9월 5일 현재 봉합수술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삼보 스님의 결연한 의사표현은 8·27 범불교도대회 이후 불교계 요구사항에 대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정부에 대한 항의가 직접적인 계기가 됐지만, 실은 정부와 공직자들의 오랜 종교편향 행위에 대해 경각심을 주려는 의미가 적지 않다.

실제로 삼보 스님은 신군부에 의해 자행된 1980년 10.27 법난 당시 상원사 주지로 있다가 삼청교육대로 끌려가 고초를 겪었으며, 2005년 8월 종로구 황학동 한국일보사 건물 내 송현클럽에서 열린 정책 간담회에서 10·27법난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자해한 바 있다.

조계종에 따르면 삼보 스님은 이번 8·27 범불교도대회를 앞두고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만나 위법망구의 의사표시를 결행할 것임을 밝혔지만, 지관 스님의 만류로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삼보 스님은 범불교도대회가 끝난 이틀 뒤 이전의 결심을 실행에 옮기고 말았다. 이유는 이명박 대통령이 대회가 열린 다음날 자신을 지지하는 김진홍 목사 등 뉴라이트 관계자들을 청와대로 초청, 만찬을 하는 등 불교계를 자극하는 행태를 보였기 때문. 이에 스님은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오만과 독선의 이명박 대통령을 경책하려는 뜻으로 할복을 단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보 스님의 이러한 의지는 이번에야 말로 공직자들의 종교 차별 및 편향행위를 종식시키겠다는 스님들의 강한 의지의 한 표현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 범불교도대회 봉행위 대변인 승원 스님(조계종 총무원 기획실장)은 9월 1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정부가 소통과 상생·평화를 열망하는 범불교도대회와 할복 사건을 끝내 외면한다면 이후의 불행한 사태의 모든 책임은 대통령과 정부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밝힌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종교편향을 종식시키겠다는 불교계의 단호한 의지와 함께, 모든 의사표시 방법은 평화적이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8월 30일 조계사로 긴급 출동한 119대원들에게 치료를 받고 있는 삼보 스님. 사진=조계종 제공

이날 승원 스님이 "공직자의 종교차별을 종식하고 국민화합을 실현하려는 우리의 뜻은 극단적인 행동 보다는 평화적이고 불교적인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며, 불자들이 극단적 행위를 삼가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 것도 이 때문이다.

사실, 범불교도대회를 앞두고도 일부 스님들이 '소지(燒指: 손가락을 태움)' 또는 '소신(燒身: 몸을 태움)' 공양하겠다는 얘기가 나돌아 봉행위원회가 초긴장 상태로 대회를 외호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을 살펴볼 때 불교계 요구를 외면하는 이명박 정부의 불교 무시와 편향이 계속될 경우 제2, 제3의 삼보 스님이 나오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특히 추석 이후 한나라당의 텃밭인 대구·경북을 필두로 한 지역별 범불교도대회 이후에도 대통령과 정부의 대책이 미온적이어서 전국승려대회가 개최된다면 사태는 걷잡을 수 없게 된다. 생사해탈이란 일대사(一大事)를 해결하기 위해 선방에서 정진중인 수좌들은 육신을 '똥자루'정도로 여기고, 몸 벗는 것을 옷갈아 입는 정도로 여기는 스님들이 적지 않기에 어떤 불상사가 벌어질 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승려대회는 그동안 침묵하던 불교계의 어른스님들이 모두 동참하는 대중공사란 상징성으로 인해 신도들에게 미치는 파급효과는 상상을 초월한다. 그러한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정부·여당은 목숨을 내건 스님들의 간절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우리는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더 이상 불행한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과 불교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조속히 상생평화의 결단을 내려주길 바랍니다."

조계종 대변인 승원 스님의 호소는 이러한 불교계의 우려를 담고 있음을 청와대는 깊이 살펴야 할 것이다.

김성우 기자 buddhapia5@hanmail.net

10·27법난법 국무회의 통과 위원회 구성준비

'10·27 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9일 2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포(10일 이내)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불교계가 본격적인 위원회 구성 준비에 돌입했다.

10·27법난특별법제정추진위원회 위원장 법타 스님은 9월 4일 기자회견을 갖고 "조중표 국무총리 실장을 만나 주무부처를 국무총리와 문화부로 변경한 뒤 조계종의 주도적인 참여의사를 전했다"고 밝혔다.

법타 스님은 "10·27법난특별법과 관련해서는 이제 11인 명예회복심의위원회 구성 등 후속 실무작업만 남아있다"며 "명예회복심의위원회도 정부측 위원 4명 이외에 차관급 민간위원 7명을 법난 피해자인 불교계 추천인사로 구성할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불교계는 특별법 공포와 함께 이달 안으로 추진위원회를 대책위원회로 전환한 뒤, 국방부를 배제한 채 민간위원 추천후보 7명을 선발하는 등 관련 후속작업들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성우 기자

'조선왕실의궤' 반환 요청 일본에 남북 공동합의 진행

남북 불교계의 '해외불법반출 문화재 환수운동'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조선왕실의궤환수위(공동의장 김원웅 前 국회의원), 문화재제자리찾기(사무총장 혜문), 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 김의정) 등으로 구성된 일본 방문단은 9월 4일 일본 수상관저를 찾아 조선왕실의궤 반환요청서를 접수했다.

이번 반환요청서 접수는 8월 8일 평양 양각도 호텔에서 남측 조선왕실의궤환수위 등과 북측 조선불교도연맹 중앙위원회(위원장 심상진)가 서명한 공동성명·공동합의서 이행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조동섭 기자

포교원, 애니메이션 '마법 삼국유사' 제작

불기2552년 추석맞아 불교TV서 방영될 예정

조계종 포교원(원장 혜초)은 삼국유사를 어린이·청소년 눈높이에 맞춘 애니메이션 '마법 삼국유사'를 제작했다.

이번 애니메이션은 지난 부처님 오신날 발표된 애니메이션 '붓다'에 이은 종단 두 번째 프로젝트로 어린이·청소년 콘텐츠 개발을 위해 9개월 기간에 걸쳐 제작됐다.

'마법 삼국유사'는 아리가 문수를 만나 과거로 사라진 지혜문자를 찾는 여정으로 '만파식적' 등 삼국유사 속의 불교일화 4가지로 구성됐다. '마법 삼국유사'는 HD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돼 불기 2552년 추석을 맞아 불교TV에서 방영 예정이다.

포교원은 "애니메이션 제작에 도움을 준 안국선원과 화성 신흥사 사부대중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더욱 다양한 포교용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포교원은 각 사찰 청소년 법회 활성화와 효과적 진행을 위해 '청소년 설법자료집'을 펴냈다.

이 자료집은 월별 주제모음과 교리별 주제모음, 키워드별로 정리돼 있으며, CD로도 제작되어 PDF 열람이 가능하다. 각 사찰 및 종립학교에 보급되고 종단 홈페이지에 청소년 법회자료 서비스로 이용될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현대불교 영상사업 안내

본사는 '현대불교 영상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영상광고는 시각과 청각을 동시에 자극하는 생생한 메시지 전달로 이미지 형성 및 설득이 빠르고 정확합니다.

문의 : 02-2004-8279

■영상사업 분야 사찰홍보, 행사, 개인다큐(자서전), 단체 사찰순례, 강의, 법문, 기업 성지순례, 기업동영상홍보제작

■현대불교 영상사업단장/감독: 김봉환(前 KBS/동아TV 촬영감독, 강원대 영상학 강사)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김송호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온라인광고 애드부다피아 http://ad.buddhapia.com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산지사 : (051)632-0064
경남동부지사 : (055)353-1196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충청지사 : (043)732-5560
전북지사 : (063)910-5199
대구지사 : (053)768-8008
경남서부지사 : (055)355-7472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영주지국 : (054)634-3429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국제불교종단 고승 총연합회 결성 취지 및 선포문

불교가 세상에 탄생 한지가 2600여년이 되었고, 중국의 실크로드를 거쳐 한국에 전래 된지도 1600여년이란 오랜 세월이 흘렀다.

그러한 유구한 역사 속에 한국불교는 변화를 거듭해왔고 불교의 대중화, 국제화, 불교이념의 올곧은 정착화 등 종교의 시대적 소명과 개혁이 중요한 시점으로 대두되었다.

또한 오늘날 우리불교는 수많은 종단이 설립되어 단일교단간의 화합 단결과 질서 확립, 나아가 불교문화의 활성화, 정보교환, 진정한 종교지도자 육성 등 산적한 과제를 해소하는 길만이 승단의 안정과 발전을 가져다준다고 확신한다. 따라서 국제불교종단 고승 총연합회는 불교를 범국제적으로 보다 더 발전시키고 영구히 계승 보존하기 위하여 국내외 종단이 하나 되기로 뜻을 같이 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불교종단은 물론 일본, 중국, 태국, 티벳, 네팔, 스리랑카, 대만 등 범세계적인 종단의 종정들이 뜻을 같이하고 이미 동참하였거나 참여하기로 하였기에 이처럼 성스러운 깨달음으로 창회를 선언하고자 한다.

국내외 불교종단의 종정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우호증진 및 활발한 문화교류를 통해 세계불교가 하나되고 국제 이데올로기의 장벽을 무너트려 세계평화와 불국정토를 이룩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국제불교종단 고승 총연합회를 창회했음을 엄숙히 선포하는 바이다.

佛紀 2551年 7月 15日 西紀 2007年 8月 27日

國際佛教宗團 高僧 總聯合會 會員 一同

종교편향 언행은 언제까지?

8·27범불교도대회 이후…종교편향은 아직도 진행중

20만 불자가 서울시청 앞 광장에 모인 8·27범불교도대회 이후에도 공직자나 사회지도층의 종교편향 언행이 그치지 않고 있다. 삼보 스님의 위법망구와 전국 1만 사찰의 정부규탄 법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불교계 요구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 가운데, 끝없이 이어지고 있는 종교편향 사례는 종교간의 갈등을 더욱 부추기는 것이어서 우려된다.

◇서울시교육감, 근무시간 예배 참석 물의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 부부가 평일 근무시간인 8월 12일 오전 11시 서울 신일교회기도회에 참석한 것이 뒤늦게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 만찬에 참석한 김진홍 목사(뉴라이트전국연합 회장)와 한기총 엄신영 회장,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예장통합 부총회장) 등 목사 150여 명과 일선교장 5~6명 등 기독교인사 300여명이 참석한 기도회에 참석한 공 교육감은 분당 갈보리교회 집사이다. 특히 공정택 교육감이 참석한 기도회는 서울교육청 전자문서시스템을 통해 홍보해 종교편향뿐 아니라 위법여부 시비까지 일으키고 있다. 현행법상 전자문서 시스템은 국가와 교육기관 간 공적 용도로만 사용가능하기 때문.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린다"고 시작한 공문은 "서울교육발전위원회가 주최하는 서울시 교육을 위한 기도회가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 당선자를 모시고 개최되오니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안내됐다.



9월 1일 여수 흥국사를 방문해 흥국사 주지 명선 스님(가운데)등 여수지역 스님들에게 사과한 오현섭 여수시장.

이에 대해 조계종 종교편향위원회는 "이것은 성시화 작업중 일부분"이라며, "수많은 항의에도 각 기관 수장들이 종교 코드로 움직이는 것은 모종의 연관이 있다"고 비판했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은 9월 4일 보도자료를 내고 "근무시간에 특정종교 기도회에 참석해 물의를 일으킨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과 관련해 헌법소원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복음엑스포' 여수시장, 흥국사 사과방문

기독교계 신문에 '2012 여수세계박람회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기고 물의를 빚은 오현섭 여수시장이 9월 1일 여수 흥국사를 방문해 사과했다.

오 시장은 "스님들과 불자들에게 죄송하며, 앞으로 불교계와 적극 협력하겠다. 여수 기독교직장선교협의회 회장직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오현섭 시장은 "시장으로서 어떠한 종교적 편향도 하지 않았다"며 문제의 핵심인 여수·순천·광양 등 전남 동부 3개시로 구성된 복음네트워크와 7월 13일 개최한 '여수엑스포 성공개최와 3개시 성시화를 위한 2008 복음엑스포 대회'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 관계자는 "가장 중요한 '성시화 운동'에 대한 사과나 철회 언급이 빠져있는 이번 흥국사 방문은 순간 모면용 방문"이라 비판했다.

◇종교활동 위해 '일요일 시험 금지' 입법 물의

민주당 우제창 의원이 지난 8월 24일 밝힌, 공무원의 채용·승진시험을 일요일에는 실시하지 못하도록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은 기독교 편향적 입법안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 개정안은 주로 일요일에 진행되는 종교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청와대, 정부 부처 등 중앙행정기관과 시, 도, 군, 구 등 지방행정기관에서 공무원의 채용시험과 승진시험을 일요일 이외의 다른 요일에 실시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이에 대해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는 "국민의 이익을 대변해야 할 국회의원이 관행적으로 진행된 시험날짜를 변경해 특정종교를 위한 법안을 발의한다면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길, "불교계 시위 배후 김정일" 운운

김동길 연세대 명예교수(연세대)는 자신의 홈페이지에 9월 2일 "승려 집단시위 배후를 밝혀라"는 내용의 글로 물의를 빚은 이후, 3일에는 "불교계 집단시위 배후는 김정일"이라 주장해 물의를 빚었다.

김 명예교수는 "단 한 번도 이명박 정권이 불교를 탄압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고 생각한 적이 없다"며, "불교 승려들의 집단 시위에 배후세력이 있는지 없는지, 정보·수사 당국은 만전을 기해 사실을 사실대로 밝히는 것이 긴박하다"고 주장했다.

김동길 명예교수는 "대한민국이 혼란해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집단은 적화통일을 시종일관 노리고 있는 북의 김정일 집단"이라며, 불교계 시위의 배후로 지목했다.

조동섭·노덕현 기자

기독교 지도자들, 종교간 화해와 상생 다짐

기독교교회협·기독자교수협 종교편향 반대 한목소리

기독교교회협의회, 기독자교수협의회 등 진보성향의 기독교 단체들이 나란히 종교편향을 반대하고 종교평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권오성 목사와 종교간대화위원장 김광준 신부는 9월 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예방하고 종교화합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권오성 목사는 "정부가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것을 가래로 막으려 한다. 종교차별 문제가 불교만의 일이 아닌 만큼 기독교계도 정부가 정교분리의 원칙을 확실하게 정립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광준 신부는 "지금 문제는 종교간 갈등문제가 아닌데, (국민들이) 마치 기독교와 불교의 갈등문제로 오해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9월 3일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스님을 예방한 권오성 목사(오른쪽)와 김광준 신부.

한편, 한국기독자교수협의회(회장 김성은, 이하 기독자교수협)는 9월 2일 '이명박 정부의 종교편향에 대한 사과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기독자교수협은 "이명박 대통령은 교회권력의 정치세력화를 현실화시킨 장본인으로, 불교계의 저항과 반발은 당연하다"며, "이명박 대통령이 기독교 편중적 사고를 갖고 정치와 국정을 수행하는 것은 대통령 개인의 문제가 아닌 소위 보수적 복음주의를 표방하는 배타적 기독교 교회 때문"이라 지적했다.

기독자교수협은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어청수 경찰청장 사퇴 ▲개신교의 정치세력화 및 이웃종교에 대한 배타적 자세 중단을 촉구했다.

김성우·조동섭 기자

"교회 투표소 많아도 너무 많다"

최문순 의원, "공직선거법 등 개정 검토해야"

정부의 종교편향 논란 속에 최근 주요 선거의 투표소로 활용된 개신교 교회시설이 불교, 천주교 등 기타 종교시설을 모두 합친 것보다 월등히 많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문순 의원(민주당)은 9월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 분석결과, 2007년 제17대 대통령 선거 투표구 1만3178개 중 교회시설이 1050개소(8.0%)로 성당 105개소, 사찰 14개소, 기타 종교시설 25개소를 모두 합친 144개소(1.1%)보다 많았다"고 발표했다.

최 의원은 "이 같은 현상은 18대 국회의원 선거,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도 같았다"며 "서울시교육감 선거에도 364곳(16.6%)의 개신교 교회시설이 활용됐다. 성당 26개소, 사찰 2개소, 기타 종교시설 6개소 등이 34개소(1.6%)였다"고 말했다.

최문순 의원은 "주요 선거 때 특정종교 시설을 투표소로 활용하는 것은 유권자들에게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종교편향 시비를 없애기 위해 현행 공직선거법 제147조(투표소의 설치)에 특정 종교시설 이용 금지를 명문화하는 것도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동섭 기자

4대종교 연합기도회 9월 4일 국회서 열려

여야 대립의 장으로 인식되던 국회에서 불교·개신교·천주교·원불교 연합기도회가 열려 각 종교인들과 정치인들이 상생과 화합을 다짐했다.

국회정각회 등 국회의원 및 직원신행 모임과 의원 연구모임인 '일치를 위한 정치포럼(공동대표 박상돈 의원)'은 9월 4일 오전 8시 30분 2008년 정기국회 개원기념 국회연합기도회를 개최했다.

연합기도회에는 세민 스님(조계사 주지), 권오성 목사(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조규만 주교(천주교 서울대교구), 김대선 사회부장(원불교) 등 4대종교 지도자들과 김형오 국회의장, 정몽준 최고의원(한나라당), 정세균 대표(민주당), 심대평 대표(자선당), 강기갑 대표(민노당) 등 국회의원 및 국회직원들 200여명이 참석했다.

세민 스님이 원효 스님의 '일심(一心)' 사상을 예로 들고, 권오성 목사가 섬김의 정치를 강조하는 등, 참가자들은 모두 상생과 화합을 강조했다.

조동섭 기자

한가위 행사 부처님 자비로 풍성하게

사찰·단체, 차례·이웃돕기·세시풍속 행사 등 개최

민족 최대명절인 한가위를 맞아 각 사찰, 단체에서는 다채로운 행사가 열린다. 먼저 전국 주요사찰은 9월 14일 추석 당일 불자들을 위해 합동차례를 봉행한다.

조계사, 화계사, 도선사와 봉은사, 능인선원, 전등사 등 전국 대부분의 사찰에서 사시법회 직후인 10시~11시를 기해 합동차례가 진행된다.

불교계가 수탁 운영하는 지역복지관에서도 합동차례를 진행한다.

서울노인복지센터(02-6911-9552)는 9월 11일 오전 10시 서울노인복지센터 1층에서 합동차례를 개최한다.

(사)인덕원(02-385-1351)이 수탁 운영하는 은평노인종합복지관은 9월 11일 10시 30분부터 독거, 실향민 어르신을 대상으로 '홀몸노인 합동차례'를 개최한다.

노숙자 복지시설인 보현의집(02-2069-1600)은 9월 14일 6시 영등포 보연의 집 강당에서 노숙자를 위한 합동차례를 개최한다.

추석을 맞아 불우이웃돕기와 다양한 세시풍속 행사도 열린다.

서울 능인정사(02-455-1080)와 건국대병원불교법당은 9월 9일 오전 11시 능인정사에서 광진구 및 성동구 주민 200세대에 1600만원 상당의 쌀과 선물을 전달한다.

열린선원(02-386-4755), 단양노인장애복지관(043-421-2828), 승가원장애아동시설(02-921-6410), 종로노인종합복지관(02-742-9500), 일산노인종합복지관(031-919-8677), 광진노인종합복지관(02-466-6242)등은 다양한 명절맞이 행사를 펼친다.

노덕현 기자





시한부 생명 살려낸 아름다운 기증

김영숙 불자 조건 없는 간 기증 '보살행' 화제
간경화 말기 50대 2명 간이식 받고 회복 중

40대 주부의 조건 없는 간 기증이 말기 간경화로 하루하루를 넘기기 힘든 시한부 환자 2명의 생명을 살려내 훈훈한 화제가 되고 있다.

선행의 주인공은 말기 간경화를 앓고 있던 환자에게 선뜻 본인의 간 일부를 기증하겠다고 나선 김영숙(43 · 부산 덕천2동) 보살.

김영숙 보살은 자신의 언니 김인숙(48 · 충북 제천)씨와 한국불교법사대학 동기의 남편 이갑영(52 · 경남 사천)씨가 간경화 말기 상태에 빠져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씨에게 자신의 간 일부를 이식하는 기증을 하기로 결정했다. 이갑영씨는 혈액형이 A형으로 가족 중에서는 간을 기증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

이씨에게 간을 기증하는 수술을 받기 위해 준비하고 있던 김영숙씨는 이갑영씨와 비슷한 처지에 간 기증을 받을 수 없는 상태에서 죽음만 기다리고 있는 강윤석씨를 발견했다. 김 보살은 수술을 시행할 서울아산병원 이승규 교수팀에게 이씨와 강씨를 모두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줄 것으로 요청했다.

의료진은 혈액형 조건상 김 보살의 간을 강윤석씨에게, 강윤석씨의 아들 간 일부를 이갑영씨에게 기증하면 두 사람을 동시에 살릴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제시했다. 이에 김 보살을 비롯한 가족들이 흔쾌히 승낙해 8월 15일 4명의 환자(김영숙, 강윤석, 강윤석씨 아들, 이갑영)를 동시에 수술하게 된 것. 수술을 성공리에 마친 4명의 환자들은 현재 순조로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2006년 초 간암과 말기 간경화 진단을 받은 강윤석(50 · 경남 창원)씨는 간이식이 유일한 치료법으로 대학생인 아들 준영(22)군이 간 기증을 희망했으나 혈액형이 일치하지 않아 아버지에게 간을 기증할 수 없다는 소식에 애를 태우고 있던 중이었다.

특히 강씨는 1남 1녀를 둔 가장으로 국내에서 간 기증자를 찾지 못해 2년 전 중국으로 원정 간이식 수술을 받기 위해 출국한 적도 있었지만, 중국에서도 기증자를 찾지 못해 수 천만 원의 돈만 버리고 눈물을 머금고 다시 국내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강씨 가족은 치료비 때문에 결국 네 식구가 79㎡(23평) 짜리 작은 아파트로 이사를 가야만 했다.



8월 13일, 서울아산병원에서 교환 간이식 수술을 하루 앞두고 기증자와 수혜자가 함께 모여 서로 손을 잡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갑영씨, 강준영군(이씨에게 간을 기증한 강씨의 아들), 김영숙씨(강씨에게 간을 기증한 주인공), 강윤석씨.

당초 김 보살에게 처음 간을 기증받기로 되어 있던 이갑영씨 또한 2005년 말기 간경화 진단을 받고 간이식이 유일한 치료법이었지만 1남 2녀인 자녀들과 형제들이 혈액형이 일치하지 않거나 간염보균자 등 간 기증이 적합하지 않은 이유로 간 기증자가 나타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던 중 김 보살이 불교법사대학에 다니던 친언니로부터 소식을 우연히 듣고 장기기증을 결심한 것이다. 이와 관련, 김 보살은 "뇌졸중으로 투병중인 어머니를 지켜보면서 불자로서 평소 장기기증의 고귀한 정신을 실천하고 싶었다"며, "장기기증을 하겠다는 말에 처음에는 많이 반대했지만 어머니의 순수한 마음을 깊이 헤아려주고 격려해 준 두 아들에게 너무 고맙다"고 말했다.

2명의 기증자 간을 서로 상대편 가족의 환자에게 동시에 이식해주는 초고난도 교환 간이식 수술을 성공시킨 서울아산병원 간이식 및 간담도 외과 이승규 교수는 "처음 계획과는 달리 교환 간이식을 통해 2명의 말기 간경화 환자를 살릴 수 있게 되어 무척 기쁘다"고 밝혔다.

생체부분 간이식 수술의 발전된 형태인 교환 간이식 수술은 지난 2003년 9월 서울아산병원 간이식 및 간담도 외과 이승규 교수팀에 의해 세계 최초로 개발된 수술 방법. 교수급 의료진 10여 명을 포함 의료진 60명 이상이 참여하는 대규모 수술로 수혜자와 기증자 각각 2명씩 총 4명에 소요되는 수술 시간만도 50시간 이상이 걸린다.

이 소식을 제보한 석순희(50 · 서울 구산동) 보살은 "아무런 댓가도 없이 간 기증이란 보살행을 실천한 친구 여동생을 보는 순간 너무 아름답고 감동적인 모습에 부처님이 따로 없다는 생각이 떠올랐다"면서 "어려운 가정 형편과 수술후 일을 못해 곤란을 겪고 있는 김영숙 보살에게 불자들의 따뜻한 정성이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010)7766-4848, 후원계좌 신협 (김영숙) 09011-13-069596

김성우 기자 buddhapia5@hanmail.net

"환경과 우리 삶은 하나입니다"

불광사 환경석학 초청 강좌 개최

서울 불광사(회주 지홍)가 생명 · 환경분야 전문가를 초청해 환경강좌를 개최한다. '환경과 생명-죽음 살림 · 살음살림'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강좌는 9월 17일~10월 22일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진행된다.

▲9월 17일 서울대 수의학과 우희종 교수의 '생명과 생명체 그리고 관계성' ▲9월 24일 우석훈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의 '넓게 생각하고 좁게 살기' ▲ 10월 1일 안병수 후델식품건강연구소의 '식생활이 살아야 건강이 산다' ▲10월 15일 황대권 생태운동공동체 대표 '생명평화와 나' ▲10월 22일 유정길 평화재단 기획실장 '생태적 깨달음과 실천' 강연이 진행된다. (02)417-2551 노덕현 기자



활안 스님의 내가 만난 선지식 禪

〈9〉 동국대학교 총장 백성욱 박사

東大 총장 취임후 직접 경전강의, 인재양성 '심혈'

미륵 10선 배우기 위해 '금강경' 외며 "미륵존여래불"

백성욱 박사님은 키가 9척 장신에 몸이 비대하고 머리가 둥글고 큰데다가 미간에 붉은 점이 있어 누구나 부처님 화신으로 생각하였다. 서울 연지동 백윤기씨의 장남으로 태어나 1901년 곤동학교에 입학, 서숙에서 한문을 수학한 뒤 1910년 봉국사 최하응 스님의 제자가 되었다.

1919년 경성불교중앙학림을 나와 3·1 운동 때 상해 임시정부에 들어가 독립운동을 하였다. 1920년 프랑스 보배학교에서 독일어를 공부하고, 1922년 독일 밸쓰브룩대학에 들어가 고대희랍어와 독일 신화사 및 문명사를 공부하고 천주교 의식을 연구하여 1925년 10월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1928년 9월 귀국하여 중앙학림교수로 취임하였으나 시의에 맞지 않은 것을 알고 단신으로 금강산 안양암에 들어가 <대방광불화엄경>을 제창하며 천일기도를 하였다. 다시 지장암으로 옮겨 8년 동안 기도하다가 일본 경찰의 압력으로 39년 돈암동 자택으로 돌아와 좌선수행에 매진하였다.

이때 유명한 일화가 있다. 한 번은 눈이 오는 날 기도하다가 옆 사람에게 말했다.

"지금 당장 지게지고 삼거리로 나가봐라."

"눈이 펄펄 내리는데 누가 온다고 나갑니까?"

"잔소리 말고 가 봐."

그래서 지개를 짊어지고 삼거리로 나가니 서울에서 손 보살님이라는 분이 석작 두 개를 머리에 이고 몸부림치며 걸어왔다. 두 사람이 그것을 받아지고 오는 사이 공양주에게 말했다.

"오늘은 마지도 짓지 말고 솥에 물만 붓고 끓여라."

"마지 시간이 다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물을 끓이라 하는 것이다."

그래서 물을 끓이는 사이 짐꾼들이 도착하였다. 백 박사님이 보자마자 명령하였다.

"어서 그 석작을 풀어 공양주에게 갖다 주라."

가지고 가서 열어보니 석작 속에 들은 것은 곱게 빚은 국수였다. 80여명의 대중이 국수공양을 하고나자, 이 소문이 서울 장안에 퍼졌다. 이승만 대통령이 소문을 듣고 손 보살에게 물었다.

"진짜 그분이 도통한 거요?"

"알 수 없습니다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번 데리고 와 보라구."

그리하여 1950년 1월 이 대통령을 만난 뒤, 2월에 내무부장관에 임명되었다. 53년 8월 동국대학교 총장으로 취임하여서는 <금강삼매경론> <보성론> <화엄경> 등을 강의하였는데, 1962년 필자가 동국대학교에 입학하였을 때는 <금강경> 특강을 직접 해주셨다.

"대학 총장이 새로 들어온 신입생들에게 <금강경> 강의를 한다는 것은 일찍이 없던 일이다. 그러나 너희들은 금년부터 동국대학교에서 불교인재를 양성코자 뽑은 장학생 43명 가운데 불교과에 넣은 27명이니 나 또한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하시고 가지고 온 대야에 물을 붓고 두 손으로 물을 앞으로 밀어냈다.

"봐라. 저쪽으로 준 물이 거기서 그치지 않고 다시 내 앞으로 돌아오지 않느냐. 이것이 보시야. 물질이 되었든지 정신이 되었든지 이렇게 보시하면 세상의 두려움이 없어진다."

백 박사의 수행은 처음에는 <대방광불화엄경> 염송으로 인격을 완성하는데 몰두하였는데, 이것은 원효 대사의 <화엄경소>를 보고 영향 받은 바 크다 하였다.

'대(大)'는 크고 넓어 끝이 없는 것이고, '방(方)'은 바르고 바른 것이며, '광(廣)'은 그 몸이 온 세계에 두루 꽉 찬 것이고, '불(佛)'은 이 '대·방·광'의 진리를 깨달아 의심이 없는 것이다. 그러니 대방불의 빛으로 세상을 장엄한다면 이 세계가 불국토가 안되겠어."

그리고 백 박사는 '미륵존여래'를 부르며 <금강경>을 외웠는데 이것은 정법구현의 한 방편이 되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상(我相), 인상(人相), 중생상(衆生相), 수자상(壽者相)에 빠져 당파 싸움을 하고 자기 출세를 위해서는 골육상쟁을 마다하지 않기 때문에 미륵성존의 10선(十善) 운동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미륵부처님이 56억 7000만년 뒤에 탄생한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전5식(前五識)을 뒤집어 성소작지(成所作智)를 이루고, 제6식을 뒤집어 묘관찰지(妙觀察智)를 이루며, 제7식을 뒤집어 평등성지(平等性智)를 이루면 56억7000만년이 당장에 그 몸속에서 이루어져 제8아뢰야식에서 나타난 대원경지(大圓鏡智)가 이 세상을 둥근 거울처럼 비치게 된다 설명하였다.

사)대한불교법화종 종도님께 알려드립니다 !!

5면 하단광고로 이어집니다

삼보에 귀의 합니다.
전법 정진으로 수고하시는 종도스님들에게 감사 드립니다.
대한불교 법화종 정화추진위원회는 아래의 사실을 전 종도님들께 알리고 종단의 앞날을 심히 걱정하는 종도님들과 정화추진위원회의 모든 동참 스님들의 뜻을 모아 정의롭고 화안할 수 있는 종단을 만들고자 노력 하겠습니다.

총무부장(해암)이 교헌사(혜가)를 상대로 제기했던 무고 및 사기 고소 사건이 2008년 8월 25일 자로 모두 무혐의로 처분되었고 이에 교헌사(혜가)는 총무부장(해암)을 무고 및 유언비어유포 혐의로 다시 성남지원에 고소하는 사태로 발전되어 있습니다. 총무부장(해암)은 그간 교헌사와의 소송 및 고소사건 경비를 총무원장(혜륜)이 일천만원 지원해 주어서 자신이 받았다고 스스로 밝힌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총무원장(혜륜)은 임직원을 시켜 대리로 이 사건을 진행해 왔다는 것인데 이는 곧 총무원장(혜륜)이 한짓이니 적법한 절차를 거쳐 총무원장(혜륜)도 무고 및 유언비어 유포 죄로 고소 할 것이라 교헌사(혜가)는 밝히고 있습니다.
종단의 지도자로 자칭하는 총무원장이 그 임직원을 시켜 말사 주지를 무고하고 그 경비를 주었다면 당연히 책임도 져야겠지요.

또한 총무원장은 자신의 상좌(출가한지 2년여)를 교무국장으로 임명하고 교헌사 전권을 위임한다는 위임장을 먼저 써주고 물의를 일으키자 주지 임명장을 주었습니다.
총무원장 상좌(법명(홍선)백정현)는 그 주지 임명장과 위임장을 근거로 교헌사에 2차례나 불법진입을 시도하였으며 교헌사에서는 사수를 목적으로 용역회사에 부탁하여 인원을 동원하여 그 경비 및 손해금으로 15억여원이 지출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홍선(백정현)은 그 주지임명장과 위임장으로 교헌사 불사 공사를 준다는 조건으로 건설회사에 8억원을 받는등 불법을 저질렀고 그 받은 금액은 어디로 갔는지가 궁금 합니다.
이에 교헌사는 그 손해금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총무부장(해암)사찰 무학사에 3억원. 김해시 삼방동 모 사찰은 가압류한 상태이고 일부 소송에서 승소한 교헌사(혜가)는 앞으로 총무원 청사 및 종단명의의 사찰 지방교구종무원을 가압류하겠다고 법원에 서류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또한 여러 임직원들(김용대,백정현,이상구,김영호,강계중,안송현,이재영,이일광,나영근)에게 유체동산 가압류 및 그 집행을 진행중에 있으며 곧 그 결과를 종도님들에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는 승려로써의 자질이 의심되는 자신의 상좌를 교헌사 전권을 준다는 위임장을 발부하고 주지 임명장까지 발부한 총무원장 및 그 임직원에게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앞으로 종단이 정상화되어도 총무원도 없고 종무원도 없고 갚아야할 빚더미만 남는다면 법화종의 앞날은 참으로 암담합니다.

사건이 이리할진데 중앙종회위원들은 총무원과 야합하여 전국에서 일어난 부정부패 및 총무원장의 패륜적 행동을 모른체하고 2008년 8월 11일 흥국사에서 개의된 임시 중앙종의회에 안건으로 고지도 않된 참으로 기이한 종법을 만들었으며 총무원과 임직원들은 종단을 걱정하고 애종심에 모여서 종단의 앞날을 걱정하는 종도들을 해종행위자로 취급하여 등원요청을 수차례 해오며 처벌 할것이라 협박해 오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종정마져 총무원장의 그 같은 불법 패륜적 행동을 모른체하고 종도가 모여 종단 걱정하는 스님들을 해종행위자로 취급하여 엄벌하라는 교시를 근무일도 아닌 일요일(2008년7월27일)날 급히 내렸습니다. 돌이켜 보건데 전 종정이셨던 포항 극락사 해산스님이 종도에게 내렸던 교시가 일요일 날 이루어졌다 하여 불법이며 그 교시가 무효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현 총무원장 혜륜이었습니다.
이에 우리 정화위원회는 더 이상 종정 및 중앙종회를 믿을 수 없기에 종정 및 중앙종회의원들은 직무정지를 법원에 신청하고 그 직무유기죄를 검찰에 고소하였으며 총무원장은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하고 그 조사 및 판결에 임하려 합니다. 그리고 작금에 애종하는 종도를에게 가해지는 어떠한 처벌도 무효임을 천명하며 개정된 종법도 합법인지를 법원에 이의하여 마땅한 대책을 강구 할 것입니다.

이에 지난 8월 11일 흥국사에서 열었던 임시중앙종회가 합법하게 개의되고 종법이 개정 되었는지는 누구보다도 중앙종회의원들이 잘 알것이고 또한 의제에도 고지되지 않은 종법을 개정한 것이 합법이 아니라면 전 중앙종회의원에게 그 책임을 물을 것 입니다. 그 자리에 참석했던 중앙종회 위원들 모두에게 묻고 싶습니다. 혹 스님들이 해종행위자는 아닌지요. 종도의 입과 귀를 막고 양심마져 저버리라는 종법 개정에 동참하였으니 진실과 정의가 바로 서는 날 자신이 만든 법에 의해서 법화종 종도에서 멀어질 것 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이는 명백한 종도들에 대한 배신행위이며 자신들에는 길이 씻지 못할 추악한 행적으로 기억 될 것입니다.
본 정화위원회 위원 및 오십여 사암 주지 및 대표임원 동참스님들은 꼭 정의로운 날이 올 것 을 믿고 작금의 중앙종회 의원들의 행적을 심판할 것 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너무도 많으오나 지면으로 밝히기 너무나 부끄럽고 종도들에게 누가 되는 사실이 많아 이만 줄이렵니다. 혹 궁금하신 일이나 도움이 필요 하시면 연락 주십시오.
참담한 마음으로 종도에게 고하 옵니다. 고르지 못한 일기에 종도님들의 법체 청안 하심을 부처님전에 발원 합니다.

불기 2552(2008)년 9월 4일

사)대한불교 법화종 정화추진위원회 의원 일동 [정화위원회 사무실 전화 : 053)643-4771/팩스 053-643-4772]

현장속으로



한마음선원 자원봉사단 첫 연합활동 현장









“나와 남이 둘 아닐때 깨끗하고 행복한 세상 와요”

회원들 6개 팀으로 나눠 복지관 등서 ‘구슬땀’
안양시와 유기적인 관계로 활동 영역 확장

8월의 마지막 날 오후 1시. 연두색 조끼를 입은 불자들이 안양시 석수동 삼막천에 모였다. 한마음선원 자원봉사단(단장 김선희, 이하 자원봉사단)이 발족 후 처음으로 갖는 연합 봉사활동이다.

복지관과 군부대 등 분야별로 활동해오던 자원봉사팀을 하나로 통합해 발족된 자원봉사단은 6월 27일 한마음선원 주지 혜원 스님을 모신 가운데 발대식을 가진데 이어 7월 11일 창립총회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발대식에서 혜원 스님은 “가장 큰 봉사활동은 내 집부터 챙기는 것”이라며 자신과 주변을 둘 아니게 여길 때 봉사활동도 즐겁고 보람 있는 수행이 된다고 강조했다. 100여명이 회원으로 가입한 자원봉사단은 6개 팀으로 나눠 안양지역 노인복지관 등에서 팀별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마음선원에서 초하루 법회를 마치고 집게와 장화 등 청소도구로 ‘무장’한 자원봉사단은 지도를 맡은 혜당 스님과 삼막천 일대를 청소하기 시작했다. 이날 자원봉사단의 첫 연합활동에 학생회 봉사단원들도 동참해 힘을 보탰다.

따가운 가을 햇살도 마다 않고 열심히 개천가 수풀과 돌 틈새를 뒤지는 봉사단의 손에 들린 검은 비닐봉지는 조금씩 무게를 더해 갔다.

“언뜻 볼 땐 깨끗해 보이더니 막상 안쪽에 들어와 보니 오물이 이렇게 많네요.” 누군가의 한 마디에 봉사단원들은 “보이는 곳의 깨끗함도 보이지 않는 곳의 더러움도 자신의 마음을 열지 않으면 챙겨지지 않는 도리를 다시 느낀다”고 입을 모은다.

쓰레기 봉지가 찰수록 마음은 가벼워지는 듯 봉사단원들의 표정이 밝아지고 3시간의 청소 활동으로 삼막천이 한결 깨끗해졌다.

자원봉사단은 안양시자원봉사센터와 유기적인 관계를 지속하며 활동 영역을 넓혀 갈 방침이다. 개별적인 봉사활동의 틀을 벗어나 보다 체계적인 활동을 하게 된 봉사단은 지역에서의 활동 위상을 강화하며 불자로서 ‘공용 공체 공생의 삶’을 살아가는데도 큰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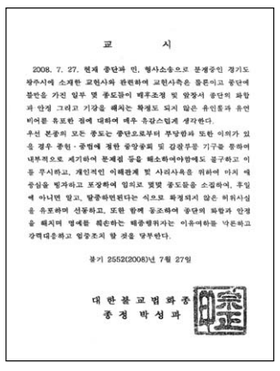
글=임연태 기자 사진=박재완 기자

한마음선원 자원봉사단의 선서

1. 우리는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기쁜 마음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하겠습니다.
2. 우리는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서 자비심을 키우고 더불어 살아가는 한마음 도리를 익히겠습니다.
3. 우리는 수행과 실천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자원봉사 활동에 임하겠습니다.
4. 우리는 모든 생명의 귀중함을 알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는 자세로 자원봉사 활동에 임하겠습니다.
5. 우리는 자원봉사 활동을 통하여 항상 감사한 마음과 양보하는 정신이 일상생활에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4면 하단광고에서 이어집니다

교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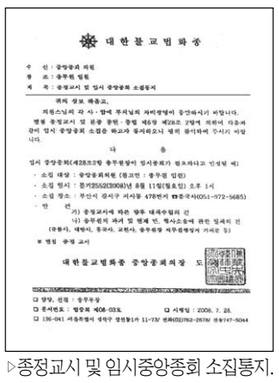
교 시

2008. 7. 27. 현재 종단과 민, 형사소송으로 분쟁중인 경기도 광주시에 소재한 교헌사와 관련하여 교헌사측은 물론이고 종단에 불만을 가진 일부 몇 종도들이 배후조정 및 앞장 서 종단의 화합과 안정 그리고 기강을 해치는 확정도 되지 않은 유인물과 유언비어를 유포한 점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우선 본종의 모든 종도는 종단으로부터 부당함과 또한 이의가 있을 경우 종헌 · 종법에 정한 중앙종회 및 감찰부등 기구를 통하여 내부적으로 제기하여 문제점 등을 해소하여야함에도 불고하고 이를 무시하고, 개인적인 이해관계 및 사리사욕을 위하여 마치 애종심을 빙자하고 포장하여 임의로 몇몇 종도들을 소집하여, 후일에 아니면 말고, 탈종하면 된다는 식으로 확정되지 않은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선동하고, 또한 함께 동조하여 종단의 화합과 안정을 해치며 명예를 훼손하는 해종 행위자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강력 대응하고 엄중조치 할 것을 당부한다.

불기 2552(2008)년 7월 27일

대한불교법화종 종정 박성파



대한불교법화종

수 신 : 중앙종회 의원
참 조 : 중무부장 입회
제 목 : 종정교시 및 임시 중앙종회 소집통지

귀의 정보 배증교.

귀하(소)의 더 사 · 업에 무지님의 자비광명이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종정교시 및 본종 종헌 · 종법 제6장 제28조 2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임시 중앙종회 소집을 하고자 통지하오니 법회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임시 중앙종회(제28조2항 총무원장이 임시종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 소집 대상 : 중앙종회의원 (참고로 : 총무원 입원)
- 소집 일시 : 불기2552(2008)년 8월 11일(월요일) 오후 1시
- 소집 장소 : 부산시 경서구 서서동 478번지 ☎(주국)(051-972-5685)
- 안 건
  가) 종정교시에 따른 말씀 대독총림의 건
  나) 총무원의 제기 및 명계 반, 형사소송에 관한 입처의 건
  (전통사, 대법원, 종무소, 교헌사, 총무원장 석무검행정서 기타로 등)

※ 법립 준개 교시

대한불교법화종 중앙종회의장 도

담당, 선림 : 총무부장
주서번호 : 법무회 406-03호 □ 시행일 : 2008. 7. 28.
136-041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1가 11-73/ 전화(02)762-2578/ 전송747-50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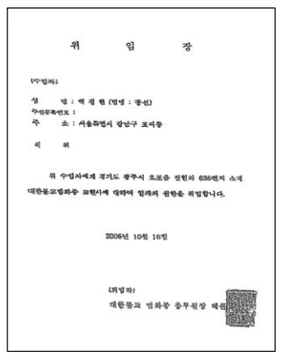
▷종정교시 및 임시중앙종회 소집통지.



의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총무부장(해암)이 교헌사(혜가)를 상대로 제기했던 무고 및 사기 고소 사건이 2008년 8월 25일 자로 모두 무혐의 처리됨.

위 임 장



위 임 장

(수임자)

성 명 : 백 정 현 (법명 : 홍선)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포이동

직 위

위 수임자에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신현리 636번지 소재 대한불교법화종 교헌사에 대하여 일체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2006년 10월 16일

(위임자)

대한불교법화종 총무원장 혜륜



任命狀

姓名 : 백 정 현 법명 : 홍 선

職位 :

所屬 :

任命日期 : 2006 年 11 月 21 日

上記와 如히 任命함

西紀 2006 年 11 月 21 日

大韓佛教法華宗

總務院長 金 慧

▷교헌사 주지 임명장

위 임 장

(수임자)

성명 : 백정현 (법명 : 홍선)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서울 특별시 강남구 포이동

직위 : 대한불교법화종 교무국장

위 수임자에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신현리 636번지 소재 대한불교법화종 교헌사에 대하여 일체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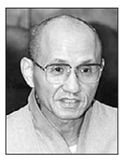
2006년 10월 16일

(위임자)

대한불교법화종 총무원장 혜륜

사)대한불교 법화종 정화추진위원회 의원 일동 [전화 : 053)643-4771 / 팩스 053)643-4772 / 후원계좌 농협 150084-51-064421 예금주:김경미(정화위원회)]

일주문



지구촌공생회, 몽골에 유치원 개원
지구촌공생회 대표 월주 스님은 9월 1일 몽골 울란바토르시 야르막 지역에서 가정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을 위한 공생유치원 개원식을 가졌다.



대구 서부경찰서 경승에 추대
대구 법왕사 주지 실상 스님은 8월 18일 대구 서부경찰서(서장 이영태) 대회의실에서 열린 추대식에서 경승으로 추대됐다.



조계종 감사국장에 임명
오덕사 주지 덕현 스님은 9월 4일 조계종 총무원 기획실 감사국장에 임명됐다. 95년 구족계를 수지한 스님은 총무원 호법부 호법과장, 상임감찰을 역임했다.



저소득 어르신 무료 수의 보급
능인 스님(일산노인복지관장)은 6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일거리 마련을 위한 수의(壽衣) 제작소를 운영해 저소득 어르신에게 무료수의를 보급한다. (031) 918-4177



동국대 이사에 선임
최규철 前 동국대 경주캠퍼스 부총장은 8월 26일 동국대 제 241회 이사회에서 故 유광진 이사 후임으로 이사 선임됐다.

"관정의식은 문수보살 지혜광명과 하나되는 수행"

티베트 '둑첸까규' 법왕, 길상사서 지혜관정 법회

"모든 수행은 지혜와 자비를 함께 닦아야 합니다."

서울 길상사가 8월 31일 봉행한 티베트의 '둑첸까규' 법왕 초청 지혜관정 법회에서 법문한 둑첸까규 스님은 "모든 수행에는 자비심과 보리심이 바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겔룩파에 이어 두 번째로 영향력이 큰 까규파(Kagyupa)의 둑바까규 계보의 최고지도자인 스님은 "티베트와 한국의 지역 · 문화적 전통은 다르지만 수행을 통해 깨달아 중생을 제도하는 것은 다를 바 없다"며 법문을 시작했다.

스님은 지혜관정법회와 관련, "지혜관정은 문수보살의 마음과 공덕을 전해주는 거룩한 의식"이라며 "문수보살은 다름아닌 청정무구(淸淨無垢)한 불성자리를 상징한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스님은 "본연의 불성이 수행의 인(因)이라면 지혜를 성취하는 것은 과(果)에 해당한다"며 "문수보살과 내가 둘이 아닌 경지에 이르는 것이 지혜관정의 참뜻"이라고 말했다.

스님은 그러나 문수보살을 외적인 실체나 형상으로 생각해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일체 모든 것이 실체가 없고 연기하기에 공(空)하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문수보살 자체도 공하다는 사실을 요달해야 한다"는 것. 이와 함께 스님은 "승의제에서는 일체가 공했지만, 세속제에서는 진언을 통해 공덕과 선업을 쌓는 수행이 없지 않다"면서 "문수보살의 지혜와 자비광명에 대한 확신을 갖고 관정을 받는다면 분명한 가피가 있다"고 말했다.

스님은 문수보살신주인 '옴아리바자나디' 진언을 외우며 관정의식을 행하면서 관정의식을 주관하는 근본상사의 정수리에서 나오는 황금빛 광명이 우리의 입과 가슴을 통해 환희심을 자아내는 과정을 관상(觀想)하도록 했다.

관정의식을 행하기에 앞서 스님은 이 법회를 계기로 저마다 가진 본래의 지혜광명을 깨달아서 쓰는 문수보살이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까규파의 지도자는 카르마파로서 달라이 라마가 관세음보살의 화신으로 받들어



지는 것처럼 '살아있는 부처(活佛)'로 존중받고 있다. 12대를 이어 환생한 '활불'로 일컬어 지는 둑첸까규 법왕은 9월 4일 오후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예방하고 한-티베트 불교교류에 대해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김성우 기자 buddhapia5@hanmail.net

연변자치주 종교국 임원단 지관 원장 예방



중국 연변조선족자치주 종교국(국장 김헌) 관계자들이 9월 2일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예방했다. 김헌 종교국장을 비롯해 허몽림 종교처장, 연변자치주불교협회 신옥 부회장 등이 배석했다. 김성우기자

바스케스 우루과이 대통령 봉은사 방문



바스케스 우루과이 대통령이 8월 31일 봉은사를 방문해 한국의 불교문화를 체험했다. 바스케스 대통령은 대웅전에서 참배하고 경내를 둘러본 후 다래헌에서 주지 명진 스님의 영접을 받고 차담을 나눴다. 김성우기자

이주여성 보호시설 '죽향' 개소



김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센터장 진오 스님 • 사진)는 9월 1일 경상북도 가정폭력 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죽향' 개소식을 가졌다. 경북 구미 지산동 자리한 '죽향'은 466m2의 3층 건물에 가정폭력 대처 교육실, 상담실, 보호 숙소 등을 갖췄다. 노덕현 기자

불우이웃돕기 추석맞이 바자회



천태종 대구 대성사(주지 도산)는 9월 1일부터 3일까지 경내에서 불우 이웃돕기 추석맞이 바자회를 열었다. 첫날 총무원장(주정산)스님이 동참한 가운데 개장 절단 행사를 가졌다. 손법천 대구지사장

자비신행회 차문화아카데미 수료식



한꽃차문화아카데미(원장 이혜자)는 8월 30일 자비신행회 다도교육장에서 제6기 차문화아카데미 수강생들에 대한 수료증과 준사범자격증 수여식을 개최했다. 14명이 수료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인재육성위한 기반 다질 것"

불교아카데미 박희택 신임 원장



"국민과 함께하는 불교를 위해서는 불교인재의 체계적 육성이 필요합니다."

9월 2일 불교아카데미 신임 원장으로 취임한 박희택 원장(위덕대 사회복지대학원장)은 "사회에서 불교계가 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지혜와 자비가 용맹으로 결합된 삼덕의 인재가 필요하다. 인재육성을 위해 재임기간내 다양한 방법으로 불교아카데미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장은 불교인재교육에 대해 "불교 유치원 · 어린이학교 · 학생회 등이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는 것이 걱정이다"며 "종단 중앙교육원 중심에서 교구본사 단위 교육체계 확립으로 지역과 환경에 맞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원장은 이어 "중장기 플랜을 세워 종단 교육기관들이 접근하지 못하는 분야에 집중하고, 지도자교육과 시민교육, 오프라인-온라인교육을 병행해 교육의 흐름에 발맞추겠다"며 ▲연구인재 개발 ▲인적네트워크 활성화 ▲온라인교육 조기도입을 제시했다. 박 원장은 "강화된 역량을 온라인과 메일링 시스템 활용해 홍보, 후원회를 조직하겠다"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주식회사 미디어붓다'로 새 출발하는 '미디어붓다'

'미디어붓다' 회장 금강스님-고문 종광스님



불교계 인터넷 언론 '미디어붓다(www.mediabuddha.net)'가 8월 8일 이사회를 열어 법인전환을 결의하고, 9월 1일부터 '주식회사 미디어붓다'로 새롭게 출발했다. 이사회의 이사로는 종광 스님, 금강 스님(사진), 상덕 스님, 이학종 대표가 참여했고, 감사에 윤청광 방송작가가 선임됐다. 또 이사회는 고문에 종광 스님(경주 기림사 주지), 회장에 금강 스님(미황사 주지)을, 대표기자에 이학종 이사를 각각 선임했다.

김성우 기자

제23회 불교미술대전 수상작 발표

조각부문-이재윤, 회화부문-이수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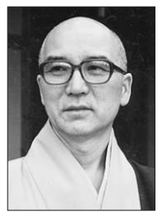
대한민국 불교미술대전 운영위원회(위원장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제23회 대한민국불교미술대전(이하 불미전) 수상작을 발표했다. 조각부문은 이재윤(32 · 왼쪽)씨의 '석가모니불'과 회화부문에 이수정(25 · 오른쪽)씨의 '겁'이 최우수상으로 선정됐다.

최우수상자에게는 상패 및 상금 1,000만원이 수여되며, 시상식 및 전시개막은 10월 15일 오후 2시 불교중앙박물관에서 진행된다. 수상작들은 10월 15일~21일까지 불교중앙박물관에서 전시한다.

이 외에도 특별상인 최우수상급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에는 공예부문 안명선씨의 '연화문 사리함'이 선정됐다. 우수상으로는 조각부문에 한주영씨의 '나무와 금속의 어울림' · 공예부문에 김승열씨의 '원패세트' · 회화부문에 유현정씨의 '수월관음도' · 김민호씨의 '심우' · 최미리씨의 '탑' · 이수예씨의 '미황사괘불 모사도'가 선정됐다. 특별상인 우수상급 문화재청장상에는 공예부분에 원천수씨의 '범종'이 선정됐다. 가연숙 기자

"대전 시민과 함께 하는 사암연 될 것"

대전불교사암연 제20대 회장 진철 스님



대전불교사암연합회 제20대 회장에 선출된 진철 스님은 '신뢰와 화합'을 바탕으로 "추락한 대전 불교의 위상을 재정립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9월 1일 불교계 기자들과 기자회견을 가진 진철 스님은 "회원간의 불신과 불화로 추락한 대전 불교를 일으키기는 것이 급선무"라며, "화합이 이뤄지도록 연합회 주최의 행사를 재검토 하는 등의 다양한 노력도 할 예정"임을 밝혔다.

이를 위해 진철 스님은 종단을 초월해 연합회 임원진을 구성할 계획이다. 또한 스님은 "추석도 다가오니 취임식에 사용될 비용은 불우이웃 돕기에 쓰겠다"고 말했다.

진철 스님은 조계종 총무원 총무부장(1979),공주 마곡사 주지(1980), 통도사 자비원 원장(1994), 충남도장학회 상임이사(2000)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대전 만불선원 회주(2007), 대전 파라미타청소년협회 총재를 맡고 있다.

손효선 기자

공 대한불교원효종 지

대한불교원효종은 오랜 기간 동안 종권 다툼으로 인하여 분열과 와해로 대 · 내외적으로 종단의 명예가 실추 되었는바, 이런 어려움을 딛고 종단에 전통성을 되찾고, 원효성사의 맥을 이어가기 위해 고군분투하신 몇 몇 스님들의 노고로, (2007라1580) 2008년 8월 25일자로 김윤철(향운)스님을 임시 종정으로 정함에 따라 종단에 안정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김순서(용일)스님 측, 최병일(덕산)스님측, 우종산(청은)스님측 등의 위촉 · 임명 또는 임원 · 의원 등 모든 임원의 직책은 법적효력이 소멸됨에 따라 종무행정의 질서를 재정비확립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갱신업무를 시행하오니 착오없이 갱신발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김윤철(향운)스님 측의 갱신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갱신하지 않으신 스님들께서도 아래 기간에 맞추어 속히 갱신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갱신범위 : ◆ 사암등록증
◆ 주지 또는 대표임원 임명장
◆ 승려증
2.갱신기간 : 2008년 9월 8일부터 10월 31일까지
3.수 수 료 : 총무원으로 문의
4.문 의 처 : 서울연락사무소 02)735-0501~2
총무원 052)262-6857
※ 재정비 후, 원효종 전 종도대회가 있을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추후 공지합니다.

대한불교원효종 임시종정 김윤철(향운)

한국의 호국불교 서구에 잘 알려져

해외불교칼럼

한국 불교의 감연한 호국호법(護國護法)의 전통은 서구사회에 더 널리 알려져 있다. 다음의 글은 미 합중국군의 <군법사 승가>에 게재된 '한국의 승병역사' 관련 칼럼을 인용, 보완 편역한 것이다.

한국의 승병은 신라 후기부터 한반도를 침범한 거란, 여진, 몽골 등 중앙아시아의 여러 침략자를 물리친다. 또 고려사(高麗史)의 <최영전(崔瑩傳)>에는 고구려 때 당 태종이 침입하자 승병 3만 명이 분전했음이 기록되어있다. 이후 고려 시대의 사찰에는 수원승도(隨院僧徒)가 있었다. 일종의 국방예비군인 그들은 평상시에는 성곽과 방어요새의 구축, 백성들의 긴급 재난구재와 역병치료, 식량배급 등 제중(濟衆) 활동에 종사한다. 그러나 국가비상시에는 항마군(降魔軍)이란 강력한 전투단으로 재편성된다.

한국승병이 특히 용맹스러운 저력을 발휘한 시기는 임진왜란(1592~1598) 때다. 전국시대라는 장기내전 끝에 일본을 통일한 히데요시군벌이 도발한 '왜란'은 사실상 2차에 걸친 조선 대침공이다. 그들은 정명가도(征明假道), 곧 조선을 통해 명나라를 치러갈 터이니 길을 빌리자는 명분을 내세우나 조선은 이를 즉각 거절한다.

일설에 따르면, 그즈음 히데요시는 심각한 정신질환으로 인해 중국은 물론 인도와 유럽까지 진공한다는 과대망상에 사로잡힌다. 오래전부터 동아시아해안을 노략질한 일본의 해적, 즉 왜구에 시달려 온 조선은 이처럼 대대적인 침공을 미처 예상하지 못한 채 전쟁초기에는 속수무책으로 패한다. 게다가 조선의 문반 선비들은 국방을 소홀히 하고 무반을 천시한 탓에 조직적 반격의 구심점을 찾지 못한다.


조선시대 임진왜란을 맞아 승병을 이끌고 구국의 일선에 나섰던 서산 대사 청허 휴정 스님의 영정.

왜적이 잔인무도한 대살육전을 벌이며 순식간에 북상하자 조선의 왕인 선조는 수도인 한양을 탈출한다. 그러자 평소 불만이 누적된 상당수의 무인들도 필사항전보다는 탈주를 택한다. 그 패배적 정황에도 일부 남은 무장 세력들이 전열을 정비하여 적의 예봉을 꺾는바, 그 중 가장 결정적인 타격을 가한 무장집단이 승병(sungbyung)이다.

여기서 잠시 당대 조선중기사회에서 불교의 입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불교가 4세기에 한반도에 들어온 이래, 정치사회 문화 예술의 창달에 크게 공헌하고 조선의 건국에도 고승들이 참여한다. 그러나 조선 중기의 임진왜란 즈음에는 새 정치이념으로 자리한 성리학으로 인해 산문이 폐쇄되고 승려신분이 심히 격하된다. 불교는 이렇듯 수모를 당하나 일단 외침에 당면하자 성난 벌떼처럼 전국에서 일제히 봉기한다.

최초로 승병을 집결하여 참전한 승려는 기허당 영규(靈圭)다. 그는 공주 청련암에서 불법과 무술을 수행하던 중 왜란이 터지자 의승장이 되어 갑사, 마곡사를 주근거로 승병 600명을 포함한 800명의 전투단을 지휘한다. 그는 의병장 조헌과 더불어 청주성 탈환의 쾌승으로 적의 교두보를 차단한다. 이어 그는 금산전투에서 아군의 퇴로를 터주는 구출작전 중 휘하 승병과 의병 700여 명과 함께 전사한다. 전혀 예기치 못한 승병의 결사항전으로 기습타격을 당한 적은 작전상 대 혼선을 빚는다.

승병 편제가 조선 전역에 걸쳐 조직된 것은 1592년 7월부터다. 평안도 의주의 행재소, 즉 피난처에서 전전긍긍하던 선조는 급히 묘향산에 있던 휴정(休靜)을 찾는다. 조정 중신들도 허둥지둥 승단에 손길을 내밀며 승속을 망라한 불교계 전체가 왜적을 격퇴해주길 바란다. 서산 대사와 청허로도 알려진 휴정은 구국의 방도를 묻는 선조에게 "늙고 병들어 싸움에 나서지 못할 승려는 절을 지키며 구국을 기원하고, 나머지 모든 승려는 소승이 직접 이끌고 구국전선에 나서겠다"고 대답한다.

선조는 73세 고령의 노승 휴정에게 팔도십육종도총섭(八道十六宗都摠攝), 곧 조선의 승군 총사령관의 막중한 책무를 맡긴다. 즉시 최고지휘부 격인 승통(僧統)을 설치한 휴정은 문도 1500여 명의 승병과 함께 야전지휘부인 순안의 법흥사에 주둔하며 조선 8도의 승병 간 연합작전체계와 군수보급선, 첩보 및 정보통신망 등을 구축한다. 또한 그는 각 승병장(僧兵將) 별로 첩보수색, 축성, 병기제작 및 군량미의 확보와 수송임무를 분담시킨 한편, 평양성의 탈환전투에 투입할 정예승병 5000여명을 별도 모집한다. 휴정은 전국 각처의 승도들에게 진충보국의 일념으로 호국호법의 최선봉에 나서도록 독전(督戰)한다.

당대 최고의 문장가이자 시인이기도 한 서산대사 휴정은 친히 격문을 써서 조선팔도의 전체 사암(寺 庵)에 돌린다. 그의 승병총동원 격문 (the Manifesto, Calling upon the Monks to Mobilize)은 내용 전문이 영역되어 미 합중국군의 불교 사이트인 <군 법사 승가>에 실려 장렬한 한국 승병의 역사를 전하고 있다. (계속)

편역 : 성휴 스님

출처: Navy.Mil, ABN

출처 : Chaps' Dharma Talk: 'Sungbyong' – The Warrior Buddhists of Korea, Japan's Sohei, Shaolin Warriors ,기타

생활영어로 읽는 불교

Miracle? Saved by God?

기적? 신이 날 구해줘?



Swept by the swollen water right after a heavy rain, an American university student camping near a valley fell into the rapids leading to the waterfalls. His friends feared for his life. But he eventually managed to survive from the bottom of the falls. His friends admired, "Such a miracle ! God saved you!" He calmly smiled, "Well, I simply followed the Buddha's teaching. I adapted myself to the water and allowed myself to be shaped by it. Plunging into the swirl, I came out with the swirl. Miracle? Saved by God? Please, don't try to make sense out of nonsense! What a pity!"

계곡 가까이서 캠핑하던 한 미국학생이 폭우로 불어난 물살에 폭포로 마구 휩쓸려갔다. 친구들은 그가 죽을 거라 생각했으나 그는 폭포 바닥에서 어떻게 살아올라왔다. 친구들이 사뭇 감탄했다. "기적이야, 신이 구해준 거라고!" 그는 싱긋 웃었다. "난 그저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한 거야. 나 자신을 그냥 물살에 맡겨버린 거지. 물살의 소용돌이에 휩쓸려 들어갔다 다시 그 소용돌이에 휩쓸려 나왔을 뿐이야. 근데 뭐, 기적? 신이 날 구해줘? 니들 제발 그딴 말도 안 되는 헛소리 좀 말아줘, 나 진짜 슬퍼져.

번안: 성휴 스님 그림: 이태수

월드스타 불심도 스타

앨리스 워커 ⑧

흑인문학계 부흥에 '보살행'

앨리스 워커는 흑인문학계 선배문인들의 업적을 새롭게 닦고 빛내는 고결한 보살행을 펼친다. 그녀가 전기를 쓴 랭스턴 휴즈는 흑인만이 천부적으로 지닌 흑인성 또는 흑인영혼(Black Soul)을 자랑스레 여긴 문인이다. 시인, 소설가, 극작가, 칼럼니스트로서 인종차별을 주제로 한 저항시로 유명하다. 잠시 컬럼비아 대학에서 공부한 그는 '할렘의 셰익스피어'라 불린다. 또한 백인문학의 도식과 한계성을 뛰어넘는 흑인문학을 전세계에 알린 '흑인문학의 외교관'이다. 고대문명발생의 원류부터 현대 미국흑인의 애환까지 잔잔하게 노래한 그의 시 '니그로, 강들에 대해 말하다(The Negro Speaks of Rivers)'를 들어보자.

앨리스 워커는 사라질 뻔했던 여류 흑인작가 조라 닐 허스턴의 유고를 발굴해 출판하는 아름다운 보시를 행했다. 조라 닐 허스턴은 유랑극단생활 등 역경 끝에 고학으로 하워드대학에서 인류학과 민속사회학을 전공하며 창작활동을 시작한다. 4편의 장편소설과 36편의 단편소설, 희곡 등 역작을 내놓지만 문단은 그의 심오한 작품세계를 이해하지 못한다. 문단의 냉대, 극심한 생활고와 지병에 시달리던 그녀는 빈민복지원에서 슬픈 삶을 마친다.

그러나 1970년대 들어 그녀의 선구적 업적은 앨리스 워커와 흑인여성으로 최초의 1993년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토니 모리슨 등으로 이어지며 미국 흑인여성 문학에 있어 독보적인 자리매김을 한다.

비운의 작가 조라 닐 허스턴 유고 출판

대학가 교양필독서로 자리매김한 '걸작'

나는 강들을 알고 있다
이 세상만치 오래되고 사람의 핏줄 속의 피처럼 흐르는 그 강들을
내 넋은 그 강들처럼 깊어져 왔다

나는 이른 새벽 유프라테스 강에서 멱을 감았고
콩고 강의 물결은 강나루에 움막을 친 나에게 자장가를 들려주었다
나는 나일 강을 바라보며 그 위에 피라미드를 올렸다

에이브링컨이 뉴올리언스로 내려갈 적에
나는 미시시피 강의 노래를 들으며
저녁노을에 온통 황금빛으로 물드는 보드라운 진흙 둔덕을 보았다

나는 강들을 알고 있다
먼 옛날 으스름한 그 강들처럼
나의 넋도 깊어져 왔다

조라 닐 허스턴의 작품들은 1990년대부터 미국 대학가의 교양필독서로 애독된다. 앨리스 워커의 문학적 어머니라 할 그의 작품 중 <그들의 눈은 신을 보고 있었다>는 소재와 배경에서 <컬러 퍼플>의 원형이랄 수 있다. 자신의 현재 위상에 도취하여 지난날의 고난과 역경을 망각할 때 개구리가 올챙이 적 모른다 하는바, 앨리스 워커 보살은 그와 대조적으로 잘 '정리된 인격체'다. '남을 생각하는 지식인'인 그는 지금도 창작활동을 하며 여성권익개선, 환경보호, 경제정의실천 운동에 적극 참여한다. 또한 '스피리트록센터'에서 대중들에게 불교의 내관참선을 지도한다. 그의 말을 빌려 이야기를 마치고자 한다.

"불교는 고요의 필요성을 늘 내게 일깨운다. 고요란 분노를 넘어선 연민이며, 미움을 모르는 자비이다." (끝)

성휴 스님

불교식 아동교육 강화 … 호주 데일리스불교학교

호주 데일리스불교학교는 불교식 아동교육을 강화하고자 8월 31일부터 초등예비학급부터 3학년까지 아동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불교과정을 개방, 등록접수중이다. 불교참선을 통한 자아인지 및 불교윤리, 예술창작, 자유토론 과정 등의 신설취지에 대해 안드레아 훠니스 교장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의 장기 비전은 불법의 지혜와 방편을 실제 교육현장에 도입하는 것이다. 우리 학교는 불교철학이 제시하는 비구속적인 정신환경, 권위보다 관용적 탐구정신을 통해 성장기아동들이 일생동안 지향할 원융과 화해의 정서를 배양하고자 한다. 따라서 우리는 인종, 종교, 문화배경의 구분 없이 모든 대중을 환영한다." 출처: Advocate, BCN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보존회

2008년 제6회 영산재 국제학술 세미나

◆ 주 제 : 불교 예술과 영산재
◆ 일 시 : 2008년 9월 19일 (금요일) 오전 9시~오후 6시
◆ 장 소 : 서울 신촌 봉원사 범음대학 세미나실
(서울시 서대문구 봉원동) 02-392-3234
◆ 주 관 :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보존회,
옥천범음대학, 봉원사
◆ 후 원 : 한국불교 태고종 총무원, 한국문화예술진흥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08년도 문예진흥기금
불교음악 연구소, KOREANA 예술단

[등 록] 9:20-9:30 [개회식] 9:20 - 9:30 개회사, 격려사

•기조연설 : 홍윤식(동국대 명예교수, 일본학연구소소장) "불교예술과 영산재"
▷영어통역 : Lee Bon

진행순서

〈오전 발표〉
10:00-12:00 1부 진행 사회 법현스님(동국대 한국음악과 교수)
10:00-10:30 서한범(단국대 국악과 교수) "영산회상의 음악적 가치"
▷지정토론-김영운(한양대 국악과 교수)
10:30-11:00 윤소희(동국대 문화예술대 외래교수)"대만 불광산 수륙법회 연구"
▷지정토론- 최재륜(전북대 국악과 교수)
11:00-11:30 심상현(동방대학원대학교 불교문예학과 교수
전통가사의 색상과 의재에 대한 고찰 - 한국불교의 홍가사를 중심으로
▷지정토론 -법현스님(동국대 한국악과 교수)
11:30-12:00 양은용(원광대 한국문화학과교수, 한국종교학회장, 원광대 대학원원장)"팔관재의 한국적 전개"
▷지정토론 - 이만교수
(동국대 불교학과교수 불교문화대학원 원장)
12:00-13:00 점심 공양

〈오후 발표〉
13:00-18:40 진행 : 백원기(동방대학원대학교 교수)
13:00-13:30 Max-Peter Baumann"음악, 불교 그리고 세계평화"
〈Music, Buddhism and World Peace〉
▷지정토론-장휘주(용인대 국악과교수)
13:30-14:00 松尾恒一(마쯔오 코이치) 日本歷史民俗博物館
准教授(일본역사민속박물관 준교수 민속종교 전공)
"불교의례와 한일비교,
그 구조와 예능 - 영산재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佛教儀禮と韓日比較, その構造と芸能 - 靈山齋との比較を中心に)
▷지정토론 -지인스님(동국대 선학과 교수)
14:00-14:30 태국 ducation(Mahachulalongkornrajavidyalaya University (MCU), Thailand)
▷지정토론-정명스님
(경영학박사, 성전사주지, 명상수행가)
14:30-15:00 TSAI Tsan Huang,
(홍콩중문대학교 교수 Assistant Professor, Chinese University of Hong Kong)
?"Sacred in Profane" or "Profane in Sacred"? Ritualisation of Music and Musicalisation of Ritual in Han Chinese Buddhist Practice? The Case of Sacred Instruments Faqi
▷지정토록-윤영해(서울대)
15:00-15:20 휴식〈다 과〉
15:20-18:00 종합토론-좌장 신대철교수
(한국학중앙연구원교수,한국문화교류센터 소장)
18:00 저녁 공양

◆세미나관련 문의
• 범음대학 김혜련실장 02)392-3234
• 영산재 본존회 범음대학 학장 일운스님 011-272-5805
• 법현스님(동국대 한국음악과 교수, 영산재보존회 기획, 홍보부장) 011-340-6406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보존회

연꽃에서 부처님 탄생하듯 솟아난 '절대공간'

기획연재

통도사 적멸보궁의 장대한 영기화생 (上)

불지종가 통도사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건축은 적멸보궁이다. 금강계단 옆에 위치한 이 법당을 미술사가 강우방 명예교수(이화여대)가 영기화생(靈氣化生)의 원리로 해석했다. 9월 3일 일향미술사연구원에서 열린 가을학기 개강 기념 특별강좌에서다. 통도사 적멸보궁의 새로운 해석, 강우방 명예교수의 강의 내용을 3차례 나눠 싣는다.<편집자 주>



도1. 통도사 적멸보궁. 편액이 대웅전(동쪽), 금강계단(남쪽), 대방광전(서쪽) 등 사방에 다르게 걸려 있다.

영기의 싹 3단계로 발전 … 무한생명의 화생 표현
기단·천장·상륜부 등 '영기화생' 의미 응축돼 있어

1. 寂滅世界의 건축적 표현- 영기표현의 원리와 기단부의 분석

석가여래는 정각을 이룬 후 곧 처음으로 <화엄경>을 적멸도량에서 설합니다. 설법할 때 그 공간은 바로 법계(法界)가 됩니다. 불교가 이상으로 삼는 열반적정(涅槃寂靜)의 세계입니다. 그 상태와 같은 것은 도가에서 말하는 청정무위(淸淨無爲)의 경지이기도 합니다. 그런 적멸의 세계를 표현한 건축이므로 궁극의 상징을 건축적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적멸보궁의 세계는 문자언어로 된 경전과 형상을 모두 거부하니 건축적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도 이런 법계의 건축적 표현은 선사상(禪思想)이 임란 후 크게 성하면서 성립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선종은 문자언어를 통해서는 열반에 들 수 없음을 알고 경전과 불상 등에 대한 관심을 자신의 마음에 집중합니다.

흔히 진신사리가 탑에 봉안되었으므로 불상을 만들지 않았다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첫째, 석가여래는 열반에 들 때 유언을 남깁니다. "'나에게 의지 말고, 불성을 지닌 네 자신과 내가 설한 법에 의지하라고." 그러므로 불상을 만들어서 그것에 의지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둘째, 화엄경에서 석가모니 여래가 절대적 진리인 법(法)을 설하는 순간 비로자나가 됩니다. 비로자나는 바로 태양입니다. 어디나 골고루 비추는 진리의 빛입니다. 삼라만상이 바로 비로자나의 나타남이니 실은 불상의 형상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니 적멸보궁에는 불상이 봉안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과연 적멸의 세계를 표현할 수 있을까요. 마침내 우주에 가득 찬 비로자나불, 혹은 우주에 가득 찬 영기를 건축에 표현합니다. 일찍이 우주에는 기(氣)가 충만하여 있는데 양기와 음기가 조화롭게 상호 작용하여 만물이 생성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만물은 동시에 비로자나의 현현(顯現)입니다. 일체가 영기문입니다. 영기(靈氣)란 말은 기(氣)를 가리킵니다. 靈과 氣는 같은 말입니다. 그러나 뉘앙스가 달라서 함께 씀으로서 기의 개념이 강화됩니다. 영기에서 일체가 탄생하는 것을 영기화생이라고 합니다. 제미술사이론인 영기(靈氣)-영기문(靈氣文)-영기화생(靈氣化生)이란 상관관계에 의거해서 적멸보궁의 상징구조가 밝혀지므로 부득이 영기란 용어를 쓰게 된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체가 영기문이므로 일체가 비로자나라는 명제와 만나게 됩니다. 비로자나와 영기가 만납니다. 불교와 노장사상이 만납니다. 바로 그러한 절대공간을 통도사 적멸보궁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도1).

불교사상의 중심 개념은 '생명'이며, '생명 경외'입니다. '노자'사상의 중심 개념도 생명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적멸보궁의 건축의 중심 개념도 생명입니다. 영기는 만물을 생성하게 만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도(道)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생명에는 탄생이 있고 성장하고 죽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시 탄생하고 죽는 순환을 영원히 반복합니다. 이런 생명생성의 과정을 조형적으로 표현한 것을 영기문이라 부릅니다. 그런 근원적인 것을 보여주는 표현 원리들은 세 가지로 귀결됩니다. 바로 제1영기 싹 - 제2영기 싹 - 제3영기 싹이라 할 수 있는데, 이들은 가장 원초적 전개과정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각각 독립적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이들은 결국 끊임없이 반복하며 전개하는 다양한 영기문으로 발전해 갑니다(도2).

그러면 그 영기 싹들을 보고 어떻게 만물이 생성하는 도(道)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선 제3영기 싹을 그렇게 증명해 보이기로 합니다. 제3영기 싹은 제1, 제2에서 성립한 것이므로 제3영기 싹은 모두를 아우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알게 될 것이지만, 통도사에서 향완, 범종, 적멸보궁 건축의 기단-공포-천장-상륜부 등에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는 흥미 있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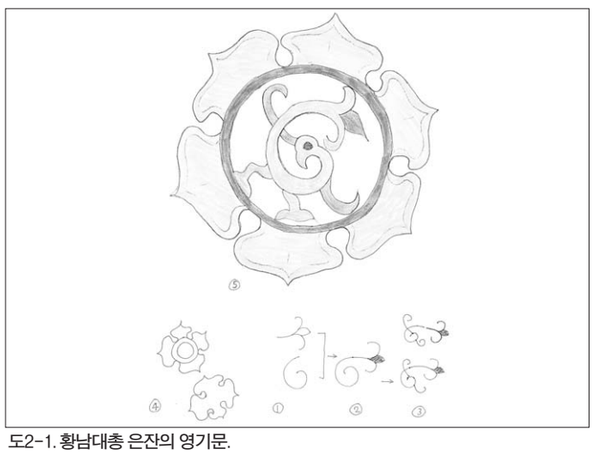
그러면 '제3영기 싹'무늬가 왜 만물생성의 근원이 되는지 증명해 보기로 합니다. 영기 싹이란 생명의 싹을 의미합니다. 모든 생명은 처음 제1영기 싹 모양을 띱니다. 거기서 줄기가 뻗어나갑니다. 그 갈래 사이에서 빠알간 연봉 같은 것이 탄생합니다. 그러나 연봉이 아니고 뭣인가 생명이 탄생하는 것을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신라시대 6세기경의 황남대총에서 발굴된 은제 잔이 있습니다. 그 잔 바닥 중심에 추상적 무늬가 있는데 그 도상을 설명해 보기로 합니다(도2-1). 봉황을 추상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얼굴 부분은 제1영기 싹 모양이고 몸은 제3영기 싹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제3영기 싹이 봉황으로 탄생하여 가는 중요한 모양입니다. ①에서 ②로, ②에서 ③으로 성립하여 가장 단순한 봉황으로 변하여 갑니다. 그리고 그 만물생성의 근원인 봉황으로부터 노란 연꽃잎 같은 영기문이 사방으로 발산합니다. 앞으로 더 설명을 하겠지만, 제3영기 싹은 봉황은 물론 용(龍)이나 연꽃으로 탄생하는 시발점이 됩니다. 그리고 용 · 봉이나 연꽃 등은 만물 생성의 근원이 됩니다. 따라서 제3영기 싹은 만물생성의 근원이 되는 추상적 영기문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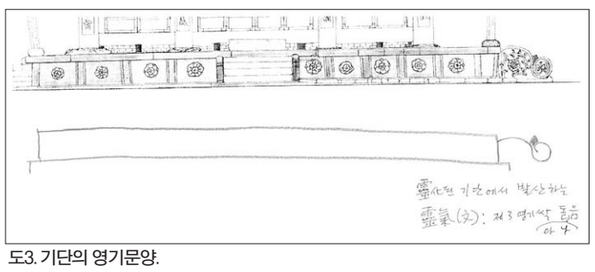
원래 영기는 일정한 형태가 없으며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영기는 무한한 형태로 표현됩니다. 용모양, 불꽃 모양, 식물의 덩굴모양 등 다양합니다. 그런 무늬들을 통칭하여 영기문이라 합니다. 여러 형태 가운데 영기 싹의 모양이 가장 중요합니다. 바로 그 영기에서 불상이 탄생하듯이, 건축이 탄생합니다. 따라서 적멸보궁의 건축은 영기화생하는 건축에서 다시 영기가 발산하는 영기표현의 원리를 그대로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소우주이며 법계인 거대한 목조건축 전체가 홀연히 우리 앞에 나타나는 형국입니다. 그것은 마치 불상이 홀연히 현신하는 것과 같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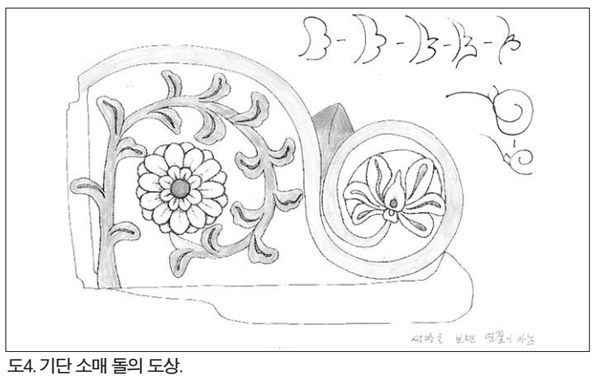
그러면 어떤 영기화생의 과정을 거치는지 살펴보기로 합니다. 이 글에서는 기단부만 분석해 보기로 합니다. 기단의 면석에는 여러 가지 아름다운 연꽃 같은 영기문들이 조각되어 있습니다(도3). 왜 그런 영기문을 기단 전체에 새겼을까요. 그것은 기단을 영화(靈化)하기 위해서입니다. 기단에 강력한 정신적인 힘을 부여하여 법계라는 우주 공간을 탄생시키기 위합니다. 그러면 영화된 기단이 과연 그러한지 다시 증명해야 합니다. 영기에서 만물이 나오고 만물에서 다시 영기를 발산하는 것이 영기표현의 원리입니다. 기단 사방에는 계단이 있는데 각 계단 양쪽 소매 돌은 놀랍게도 제3영기 싹을 형상화시킨 것입니다. 그러니 기단에서 영기가 발산하는 형국입니다(도4). 그러면 소매 돌의 도상을 분석합니다. 제3영기 싹을 표현하고 끝에는 영기문이 꽃핍니다. 씨방이 주머니 같아서 반구형의 연꽃 씨방과는 달라서 연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나머지 넓은 공간에는 땅에서 발산하는 영기문이 있으며 역시 영기문 꽃이 활짝 피어 있습니다. 자, 이런 강력한 영화된 기단에서 탄생한 건축의 외부와 내부의 영기표현을 다음 글에서 밝혀 보기로 합니다.



도2. 영기문의 발전단계.


도2-1. 황남대총 은잔의 영기문.


도3. 기단의 영기문양.


도4. 기단 소매 돌의 도상.

강우방
(일향미술사연구원장)

빙의 퇴마 최면을 전수합니다

빙의 치유
●영을 직접불러 누구인지? 무슨 원한인지? 소원이 무엇인지? 천도

전생체험
●원통한 인간의 인과 응보와 원인을 찾아 업장을 소멸하고 사업자 상업자에게 사업성취를, 기도자는 기도성취를, 원인모를 악질증상 등을 좋은 운으로 돌릴수 있습니다.

치유가능한 증상들
●빙의(귀신병), 퇴마, 우울증, 공황장애, 대인공포, 불안공포, 불면증, 만성두통, 게임중독, 약물중독, 급한성격, 집중력, 성적향상 등등
●빙의,퇴마,최면을 배우실분 ●자기최면,타인최면을 배우실분
●자녀들의 성적향상을 위한 부모님
●포교활동에 꼭 필요하신분(성직자 특별우대,종교불문)
●전수를 받고자 하는 분들은 대체의학, 침술, 최면, 빙의, 퇴마 등을 한곳에서 전수가능하며 전수 후에 각 시도 지사도 가능함.
●최단기간 실전교육 ●최면시술 누구나 가능합니다.

●어디 아프세요. 불치병 몽땅 상담하세요.
●하는 일마다 안풀리세요. 당신의 사주를 바꾸세요
●빙의(귀신병) 퇴마,최면? 100%전수 - 치유
●신침전문, 목디스크, 허리디스크 ●전통항아리 불부항전문
●우울증, 공황장애, 산소수맥 ●비염, 발기부전 특효

부산본부 : 부산시 북구 화명동 1388-8 지장사
☎ 051)364-5586 , H.P. 010-3056-3315
서울지사 :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3가 65-230
트럼프월드 102동 510호 ☎ 02)796-7579
본부장 - 현오 합장 010-3056-3315
지사장 - 혜진 합장 010-7508-3315
실 장 - 혜성 합장 010-7509-3315

●부산교육 : 화, 수, 목 ●서울교육 : 금, 토, 일

한국 빙의 퇴마 최면 연합회 본부 지 장 사 현오 합장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 1388-8 (부산 지하철 2호선 화명역 2번출구 전자랜드 후문 앞)
TEL 051)364-5586 / 010-3056-3315 HTTP://WWW.JIJANGSA24.ORG





이경수 (교사, 제주 바라밀 호스피스회 봉사자)

"죽음이란 육신의 옷만 벗는 것일 뿐 영혼은 새로운 세상으로 떠나는 것 아닙니까? 준비된 죽음이 있는가 하면 준비되지 않은 죽음이 있어요. 죽음을 편안히 맞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호스피스 봉사활동을 하면서 일상을 잘 산 사람이 잘 죽는다는 것을 알았으며, 잘 죽기 위해서는 잘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올바르게 사는 법을 익혀야 죽음을 평온하게 맞을 수 있음을 알게 되었으니 참으로 다행한 일입니다. 죽음의 임박성을 의식하면서 살게 될 때 만일 내게 주어진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면 내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지 자기 자신에게 되묻게 됩니다."

"삶과 죽음은 다른 길이 아닙니다"

#간암 수술 후 남 위한 삶 서원

초등학교 교사인 이경수씨는 호스피스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제주 바라밀호스피스회' 초대 회장을 역임했으며, '정토사관 자재회' 아미타 호스피스교육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다. 그가 호스피스 봉사자의 길을 걷게 된 사연을 먼저 들어보자.

이경수씨가 불교와 인연을 맺은 것은 간암으로 투병중일 때였다. 수술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것조차도 불투명할 때 선배가 염주를 주었다. 불교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염주를 돌리자, 마음이 편안해 졌다.

"수술을 받고 퇴원 후 1년이라도 살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불교 책도 읽고 스님들의 테이프를 들었어요. 1년을 살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어요. 부처님 공덕으로 10년을 덤으로 살았으니 앞으로 남을 위해서 살아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봉사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토마을에서 호스피스 교육을 받았다. 그 후 방학 때면 보름에서 한 달 정도 호스피스봉사자들을 위한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3년 전에는 '제주 바라밀 호스피스회'를 결성하는데 한 몫을 담당하였고 초대 회장직을 맡아 활동하였다.

#기저귀 갈아 주는 일이 가장 쉬워

호스피스환자란 병원에서 의사가 생존할 수 있는 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고 판정한 환자를 말한다. 호스피스는 죽음을 앞둔 말기환자와 그 가족들을 사랑으로 돌보는 행위이다. 환자가 남은 여생동안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높은 삶의 질을 유지하면서 삶의 마지막 순간을 평안하게 맞이하도록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영적으로 도와준다. 그리고 환자와 죽음으로 이별을 해야 하는 가족들의 슬픔과 두려움을 완화시켜주는 역할 또한 호스피스들이 담당하고 있다.

대부분의 호스피스환자들은 자신의 죽음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못한단다. 자신의 죽음을 알게 되면 대부분의 환자들은 처음에는 절망하거나, 죽음을 부정하거나, 왜 죽어야만 하는지 분노하거나, 자신의 죽음에 대하여 슬퍼한다. 그러다 시간이 흐르면 자신의 죽음을 현실로 받아들이거나, 사후세계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지니고서 죽음을 바라보게 된다. 유머와 여유로서 죽음에 임하여 밝은 마음으로 여행을 떠나는 것이다.

호스피스 봉사자들은 환자의 기저귀를 갈아준다든가, 튜브로 음식물을 투여해 준다거나 대소변을 받아낸다는 등 이런 간병활동을 하기도 한다. 그런 간병활동이 힘들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기저귀를 갈아주는 일은 활동 중 가장 쉬운 일"이라고 했다. 오히려 염불을 하면서 환자와 마음이 일체가 되는 것이 어렵단다.

#심리 안정, 극락왕생 희망 심기 주력

대부분의 환자들은 쉽게 마음을 열지 않으며, 처음에는 봉사자들을 신뢰하지 않는다. 오히려 형식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라 생각하여 처음에는 경계심을 가지고 대하기 일쑤다.

호스피스봉사자가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은 무엇일까?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가 죽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도를 하거나 '나무 아미타불' 염불을 해 주는 등 심리적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임종 시 최후 일념을 잘 챙기도록 돕는 것이 호스피스 봉사자의 할 일입니다. 그래서 호스피스봉사자는 정토사상이 확고하게 정립되어야 합니다. 윤회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윤회해서 극락정토에 새로 태어난다는 믿음을 환자에게 심어주어야 합니다."

호스피스환자들과 잘 지내다가도 헤어질 시간이 되면 죄를 지은 기분이고, 환자분들도 왜 정을 주고 가느냐고 아우성을 치는 것만 같아서 발길을 돌리기가 어렵다고 하였다. 이미 예견된 죽음이지만 돌보던 환자분의 죽음을 접하게 되면 하루 종일 우울한 기분을 떨칠 수가 없단다.

호스피스교육을 마치고 처음으로 실습을 나갔을 때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부처님의 설산고행상보다 더 바짝 마른 할머니와 마주하게 되었다. 할머니의 경계심과 이경수씨의 두려움으로 할머니의 손을 잡기까지 1시간이 걸렸다. 처음엔 손을 잡았고, 나무둥치처럼 아무런 감각이 없는 다리와 무릎을 만졌다. 할머니의 무릎에 손을 올린 지 30여분이 지나자, 싸늘한 다리에서 온기 같은 것이 느껴졌다. 그때 이경수씨는 자신의 그런 작은 활동에 반응을 해준 할머니가 너무나 고마웠다고 한다.

#"잘 살아야 잘 죽는다"

이경수씨는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죽는 것이라고 생각할까 궁금해졌다.

"부처님 가르침대로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지요. 저도 말은 이렇게 하면서 실천은 잘 하지 못합니다. 호스피스활동이 바로 육바라밀의 실천이라고 생각해요. 호스피스 활동을 하다보면 욕심 부리면서 사는 것이 부질없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라는 것을 순간순간 느끼게 되지요."

'웰다잉(well-dying)의 문제가 웰빙(well-being)의 틀 안에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는 이경수씨의 말은 '삶과 죽음이 결코 다르지 않음'을 가리키는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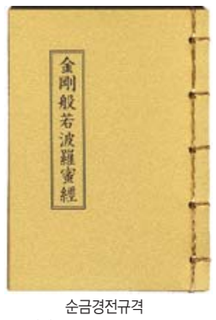
염불을 듣고 깨달음을 얻어 이생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마지막 가는 사람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기에, 이경수씨는 앞으로도 호스피스환자들에게 시간이 허락하는 한 염불을 해줄 것이라 했다. 이경수씨의 희망사항은 제주도에 호스피스센터를 만드는 것이다. 죽음에 임한 사람들 누구나 다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게 해 주고 싶은 그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다.

자신만을 위하는 삶을 막힌 삶이라고 한다면 재보시를 비롯하여 타인을 위해 봉사하는 삶은 열린 삶이 아닐까 싶다. 열린 삶을 지향하는 사람들은 제주도의 돌담처럼 어떤 고난이 와도 쉽게 무너지지 않고 지혜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글·사진=문윤정(수필가·본지 논설위원)

세계최초 초소형 경전 순금나노 불경금책

순금의 氣를 직접 만지며 느낄 수 있는 불경금책, 소병풍, 달마.연꽃액자, 옴마니반메훔족자 등



순금경전규격
(소) 3.5 × 5cm
(중) 5 × 7cm
(대) 6.8 × 9.7cm
· 반야심경(소, 중)
· 천수경(중, 대)
· 관세음보살보문품(중,대)
· 묘법연화경요품 (중,대)
· 금강경(소, 중, 대)
· 지장보살본원경요품(중)



관세음보살보문품



지장보살본원경

소형금병풍 규격 : 74cm x 74cm

최고급 소형 금병풍은 소법당, 스님방, 불자님의 가정에 소장용으로 최고이며 기도정진, 영가천도, 재례용등 여러 용도로 사용합니다.



달마액자 (중)35 × 50cm (대)42 × 65cm



연꽃액자 26 × 26cm



족자 60 × 20cm

금달마, 연꽃액자, 옴마니반메훔족자 등은 스님 및 각가정에 개인소장용으로 최고입니다. 불사용으로도 널리 사용합니다. (불사용으로 단체주문시 크기별 제작가능)

금강 불교예술원에서 세계최초로 99.9%의 금을 나노화 하여 조성된 초소형 경전인 불경금책을 제작보급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복장용으로 장엄하오며 단체 주문시 발원문, 가족명단을 인쇄하여 드립니다. 또한 영가천도, 불사, 소장 및 휴대용으로 가능하며 기타 용도로 사용합니다.

순금경전을 휴대하는 것만으로도 부처님의 공덕과 불심으로 가피를 입을 수 있으며 호신용으로도 최고입니다.

(불사인연 공덕을 맺으시어 세세생생 선근의 인연 공덕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큰스님 법어, 법구경도 크기별로 주문제작 합니다.

부처님께서 사용하시던 흑단목

氣가 발산되는 신비의 흑단목염주, 포대화상향로, 흑단목탁



흑단목108염주,단주
8mm 55,000원
10mm 65,000원
12mm 85,000원
가격이 저렴한 흑단무늬목염주는 행사(보시)용으로 수량에 따라 가격 조정이 가능합니다.



흑단무늬목 포대화상향로
(대)26×16×16cm 155,000원
(소)20×12×12cm 95,000원
예술조각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없는 사람과 나눌 수 있는 미덕과 복밥을 마음을 이루어 주며 입에서 향이 뿜어져 나와 예불시에도 사용합니다.



1등급 흑단목탁
지름 6~6.5cm
가격 95,000원
소형이므로 스님 만행용으로도 최고입니다.

부처님께서 즐겨 사용시던 흑단목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나무중 유일하게 氣가 발산되고 최고로 단단하며 자연 문향이 은은하여 아름다우며 동남아 국가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나무중 최고의 명품인 흑단목 입니다. 스님 및 각가정에 개인소장용으로 최고입니다.

※ 제품 특성상 수공에 품으로 크기 및 모양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북한 신비의 금강염주

2가지 소원이 꼭 이루어지는 신비와 영험의 금강염주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금강약돌 금강염주는 1,500℃이상 에서도 녹거나 타지 않으며 강력한 氣와 93% 원적외선, 높은음이온이 발산하며 98%의 살균작용으로 영원토록 색상과 모양이 변하지 않고 남아있어 더욱 신비함을 드립니다. 녹색의 금강염주는 내세에 무량한 생명과 풍요, 행운, 번영, 장수, 건강, 명예와 왕생을 상징하는 부처님께서 주신 연꽃을 의미하는 파드마 염주입니다. 진밤의 금강염주는 금강의 강한氣가 발산되는 금강염주는 몸에 지니는 것만으로도 정신이 안정되며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강한 마음으로 가족의 건강을 지켜 드리고 동서남북의 복을 불러 2가지 소원이 꼭 이루어지는 신비와 영험의 금강염주입니다. 1SET (3EA) 245,000원

대리점 및 딜러모집

불교용품점을 운영하시는분 환영 소자본으로도 대리점가능
무점포시 : 불심이 강하며 차량소유자로서 활동하시는 분

금강불교예술원 문의전화 02)722-1850 (농협 1143-12-049474 송명화)

금정중학교 박민준군 과학영재교 수석 합격



부산 종립 학교법인 금정학원(이사장 계전) 산하 부산 금정중학교(교장 현익채)에 재학 중인 3학년 박민준군이 한국과학영재학교에 수석으로 합격했다.

박민준군은 영재학교 2009학년도 신입생 선발에서 전국의 수재 2654명이 응시한 가운데, 18.4대 1의 높은 경쟁률 속에서 서류전형과 필기시험, 과학캠프 및 심층 면접 총 3단계 전형을 거쳐 수학, 과학 통합 최우수 및 수학부문 최우수 합격으로 수석 합격의 영예를 안았다.

평소 박군은 공부뿐만 아니라 친구들 사이에서도 착실하고 바른 모범생으로 정평이 나있다. 또한 어머니 역시 교내 학부모 불자모임 반야불자회의 회원으로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어 주위에서는 불심 덕분에 더 좋은 결과가 있었다고 칭찬했다.

박군을 배출한 금정중학교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영재학교 합격생을 배출함으로서 부산 청소년 불자 인재불사의 요람으로 굳건히 자리매김하고 있다.

금정중학교 현익채 교장은 "박민준군이 훌륭한 과학인재로 성장해 국가와 인류를 위해 공헌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박지원 기자

국제청소년 회원 모집

교실에서 배운 영어를 외국인과 만실습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

(사)한나래문화재단에서는 청소년 국제 교류 활성화를 위해 국제청소년회원을 모집한다.

자격요건은 초등학교 5~6학년 및 중·고생으로 영어회화가 가능하고, 불자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진취적이고 적극적이며 우리 문화에 대한 관심과 자긍심이 있으면 된다.

합격하면 매월 국제부가 주관하는 외국인을 위한 문화행사에 도우미 활동을 한다. 도우미로 선정된 학생의 어머니도 국제부 후원회 회원 자격으로 외국인을 위한 다양한 행사에서 도우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매월 참가 학생에게는 봉사활동 증명서도 발급한다. 접수는 9월 20일까지, 영어 인터뷰를 통해 선발된다. (051)508-0345 박지원 기자

풍성한 한가위 복지관과 함께

송편·쌀·과일 나눔, 성금·장학금 전달 … 자비 나누는 따뜻한 명절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이 3일 앞으로 성큼 다가왔다. 하지만 소외계층에게 명절은 더욱 쓸쓸하게 느껴지기 마련. 후원 손길도 확 줄어 '명절이 더 외로운' 소외된 이웃을 위해 부산지역 불교계 복지관에서는 저마다 한가위 축제를 마련해 훈훈한 나눔과 자비의 한마당이 펼쳐진다.



'추석' 자비 나눔이 복지관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두송복지관에서 실시한 명절맞이 음식나누기 현장.

거제불교사원연합회(회장 지연, 055-636-8634)는 거제지역 어르신 및 외국인 노동자 1500여 명을 초청 한마당 잔치를 개최했다. 9월 7일 거제중학교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이번 잔치에서는 문화공연, 이미용 봉사, 의료 봉사, 장학금 전달식이 함께 진행됐다. 또 참가자 전원에게 떡과 과일 등 푸짐한 점심 공양과 기념품을 전달했다.

두송복지관(이사장 지현, 051-265-9471) 재가복지봉사센터에서는 '9월 12일 추석맞이 기쁨의 쌀 지급'과 '음식나누기 사업'을 진행한다. 기쁨의 쌀 지급 사업은 지역 내 독거노인, 장애인 및 저소득 100세대에 쌀 10kg을 전달한다. 음식나누기 행사는 거동이 불편해 식사해결이 어려운 세대에 명절 연휴동안 먹을 수 있는 과일, 떡, 라면 등 20가지 이상의 음식으로 구성된 명절 음식선물세트를 직접 배달해 명절의 정을 나눌 예정이다.

몰운대복지관(관장 정련, 051-264-9033) 재가복지봉사센터에서는 지역의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정성이 담긴 후원물품을 전달하는 '추석맞이 사랑나누기'를 실시한다. 9월 11일 오전 10시부터 3시간동안 다대 1동 몰운대 영구임대아파트 단지와 다대본동 내 75세 이상의 저소득 독거어르신, 장애인 및 조손가정 130세대에 생필품과 송편을 전달한다.

양정재가노인복지센터(관장 혜종, 051-866-0454)는 지역 내 홀로 어르신과 저소득 어르신 총 150세대에 쌀을 전달하는 '한가위 정나누기' 행사를 마련했다. 9월 11일 오후 2시부터 양정청소년수련관에서 1시간 동안 유치원 어린이들의 율동과 악기연주와 참가자들 간의 소개 시간, 후원물품 전달 및 화합의 장이 마련된다.

용호종합사회복지관(관장 이춘성, 051-628-6737)에서는 지역 주민의 따뜻한 사랑을 모아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는 '한가위 어울림 한마당'을 실시한다. 9월 11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용호종합사회복지관 2층 강당에서 1시간 동안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세대, 한부모가정 등 총 400세대를 초청해 쌀 전달 및 다양한 어울림 공연을 준비한다.

(사)맑고 향기롭게 부산모임(회장 박수관, 051-898-2672)은 9월 9일 독거노인과,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100세대에 각 10만원씩 총 1000만원의 성금을 전달했다.

한편 사회복지법인 내원 이사장 정련 스님은 "명절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가족의 정을 느끼는 화합의 장이 될 것"이라며 "이번 기회를 통해 부처님의 자비사상을 나누는 따뜻한 명절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박지원 기자hdbp@hanmail.net

"행복한 사회 만드는 데 헌신"

부산불교지도자포럼 9월 월례회의

부산의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등 각 분야를 이끄는 불자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부산불교지도자포럼(회장 설동근)이 9월 2일 오후 7시 해운정사에서 9월 월례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는 회장 설동근 부산시교육감을 비롯해 5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해운정사 방장 진제 스님은 특별법문을 통해 "유독 타종교에 비해 우리 불교계에서 사회지도층이 적다고 하는데 이 자리에 모인 지도자들이 역량을 발휘해 부처님 가르침을 온 사회 전반에 뿌리내리게 해주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설동근 회장은 "이번 범불교도대회에서 종교편향 중단 주장은 정당했다. 하지만 촛불시위 수배자의 수배해제까지 요구한 것은 안타까웠다"며 "우리 부산지역 불교지도자들이 불교의대중화와 문화 창달, 나아가 참된 삶의 지혜를 발휘해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데 헌신할 것"을 당부했다. 박지원 기자

구독신청 및 기사제보
부산지사 : (051)632-4440

우리지역 부루나존자
불광사 주지 보광 스님

"참회, 내 삶의 기본 지키는 것"

"부처님 법을 찾아가는 길은 아무리 멀더라도 가야지요. 혜인 스님께서는 100만 배를 이뤄낸 원력이 대단하신 분이잖아요. 우리 불자들이 약천사 도량에서 혜인 스님께 보살계를 받게 돼 너무 기쁩니다."

부산 초읍 불광사(주지 보광)와 부산 가야 대원사(주지 법지) 신도 450여 명이 제주도 약천사에서 회주 혜인 스님에게 보살계를 받기 위해 바다를 건넌다.

9월 22일 저녁 6시 연안터미널을 출발해 24일 아침 6시에 다시 돌아올 때까지 모두 4가지 기도법회가 이어진다. 제주로 향하는 설봉호 갑판 위 바다 한가운데서는 선망부모 영가천도재 및 일체고혼 천도재, 방생법회가 열린다. 특히 천도재에는 어산, 바라, 승무 등을 해주시기 위해 대원사에서 스님들이 특별히 동행하기로 했다.



23일 아침 제주에 도착하면 제주 3사로 불리는 법화사, 약천사, 관음사를 차례로 순례하면서 참배기도를 한다. 특히 약천사에서는 회주 혜인 스님에게 직접 보살계를 수계 받을 예정이다.

보광 스님은 "지난해에 우리 절에서 혜인 스님을 모시고 보살계 수계법회를 봉행한 적이 있는데, 이때 스님은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108배를 마치신 후에야 수계를 내려주셨다"며 당시 혜인 스님의 진실한 모습에 모든 불자들이 감동받았던 첫 인연을 떠올렸다.

보광 스님과 불광사 신도들은 6월 초 설악산 봉정암을 10보 1배로 참회 기도를 다녀오기도 했다. 이번 제주 수계법회 역시 참회하기 위해 떠난다고 한다. 스님은 "불교의 모든 것은 참회다. 모든 기도와 수행의 근본 또한 결국에는 참회다. 참회는 내 삶의 기본을 지키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제주 수계법회를 준비하면서 450여명에 이르는 신도들이 동시에 움직여야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김기범 법사는 "지난 봉정암 10보 1배 때도 준비하면서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많은 고비가 있었다"며 "그때마다 보광 스님의 원력과 불광사 신도들의 신심이 합쳐져 원만회향 할 수 있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보광 스님이 10보 1배나 영가천도, 방생 등의 기도법회를 하는 이유는 불자들에게 참회를 몸소 보여주기 위해서 라고 한다. "불교의 가장 좋은 점은 아무리 신분이 낮고 배움이 적고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참회를 통해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발을 준비하는 보광 스님에게 혜인 스님은 "법당으로 불자들을 부르지 말고 네가 밖으로 나가야 한다"며 이번 보살계 수계법회를 격려했다.

한편 보광 스님은 2009년 1월 1일 시청 앞 광장에서 출발해 부처님오신날까지 약 4개월간 우리나라 5대 적멸보궁을 찾아 10보 1배 탁발순례를 떠날 계획이다. (051)809-1420

박지원 기자

보광 스님, 참회기도 통해 부처되는 길 지도

장사 성공의 법구 금강 삼고저

안되는 장사, 안되는 사업, 산재 사고도 예방



경기가 너무없어, 장사가 너무안되, 문을닫아야겠어, 요즘 사업을 하는 중생들의 푸념이다. 반면 목도 않좋고 불경기에도 흥왕을 누리는 점포와 사업장도 많다.

풍수학적으로 보면 부자가 되는 터가 있고, 패망하는 터가 있다. 그리고 항상 겨우겨우 먹고사는 터가 있다. 한건물 한지붕 밑에서도 좋은터가 있어 사업이 잘되고 장사가 흥왕하는 것을 볼수 있다. **장사가 안되는 자리를 보면 보이지 않는 잡귀의 방해로 오는손님의 마음을 흔들어 문앞에서 방황하게 만들고, 들어왔다해도 결정을 못하게 방해하며, 일하는 사람이나 직원들은 오래 있지 못하고 첫손님**

개업 선물로도 품격!
사업 성공의 선물로도 품격!

이 헛손님이 되면 하루종일 헛손님으로 장사를 힘들게 잡귀가 조화를 부린다. 부처님법구인 금강삼고저는 밀교법구로 만사를 방해하는 악귀와 잡귀가 보기만 해도 도망가고 화로부터 사업장의 안전을 지키며 사업장의 성공을 위해 동서사방에서 인연의 귀인들을 불러드리는 영험의 법구로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거상들이 사업장에 걸어 놓았던 금강삼고저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유물로 볼수 있다. 경제대국 일본의 각종 식당과 점포, 각종 사업장, 산재위험이 있는 사업장 등에 금강삼고저가 걸려 있는 것을 쉽게 볼수있다. 불심사에서 장사흥왕및 사업번창과 산재예방의 축원불공을 마치고 시판하는 금강삼고저는 가로8cm 세로3.5cm에 벽에 걸게 고리와 수술이 달려있어 사업장 문안쪽 위에 걸어 놓으면 금니로 제작해 품위도 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린다. 보시가격:85,000원 (신용카드 분할가)

문의(02)741-4488
농협032-12-193445 이상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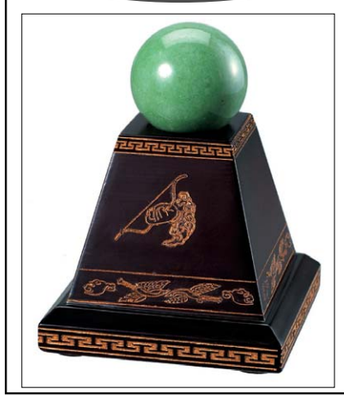
장사와 사업 흥왕의 비방 법구

식당, 가든, 의류점, 보석상, 부동산중개소, 이미용실, 목욕탕, 다방, 정육점, 노래방, 주점, 모텔, 여관, 병원, 각종학원, PC방, 당구장, 서점, 인쇄소, 문방구, 기원, 복권방, 각종스포츠센타, 핸드폰점, 분양사무소, 안경점, 신발매장, 전자제품매장, 미곡상, 방앗간, 공장, 주유소, 산재사고 위험사업장 등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영험의 구슬

보궁여의주

필승합격과 승진의 영험



여의주는 글자 그대로 원하는것이 이루워 진다는 구슬이다.

전설에 따르면 아들형제를 데리고 어렵게 살아가는 어머니가 남섬부주 바닷가에 떨어져 있는 구슬두개를 너무나 아름답고 신비해 집에 가져왔다.

집에는 관료가 되어 어머니를 편히 모시겠다는 형제가 시험만 보면 번번이 낙방을 하며 세월만 보내고 있었다. 아들에게 집에 오는길에 예쁜 구슬을 주었다고 보여주었다. 구슬을 본 형제는 참 신비한 구슬 갖어요, 어머니는 아들 형제에게 하나씩 주었다. 그후 매번 낙방만 하던 형제가 그해 관료에 등과되어 어머니는 소원을 이루고 건강장수 하고 관료가된 형제는 큰 공덕을 쌓으며다복하게 살았다고 한다. 각종 불경 해설서를 보면 제석천왕과 아수라가 싸울때와 전륜성왕이 바위를 부술때에 남섬부주에 떨어져 변한것이라고도하고 용왕의 몸에서 나와 사람이 여의주를 집안에 두고만 있어도 독이 헤칠수 없고 불속에 있어도 타지않고 권세와 명예를 얻는 공덕이 있는 구슬로 사갈라 용궁에도 있고 여의륜관세음부처님 두손에도 들고있어 중생들이 뜻한바가 이루워지는 비방의 법구로 삼고 있다. 시험을 보고나면 꼭 1~2점차로 낙방을 한다. 수험생들은 한두문제로 인해 1년을 또 고통속에 시험 준비를 하고, 승진시험도 승진심사날 심사위원의 마음이 누구에게 가느냐에 달려있다.

■시험을 보면 꼭 1~2점차로 낙방

보궁여의주는 수험생에게 부처님의 지혜인 금강의 지혜를 주고 부처님 가피로 승리하는 비방의 법구다.

불광사에서 필승합격과 필승 승진을 위한 축원불공을 마친 보궁여의주는 길상원목으로 품위있게 제작하고 수험생의 필승합격을 위해 성명과 생년월일을 알려주면 100일 축원불공을 해드리고 있다.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보내준다. (신용카드분할가)

보시가격:95,000원
문의(02)741-4488
농협032-12-193445 이상하

평생부자지갑

다라니 福 지갑

원하는 재물을 얻고 원하는 계획이 성취되는 영험



남성용금나노반지갑

여성용은나노장지갑

※고급케이스에 선물로도 품격!

소중한 남편과 자녀에게 성공의 선물
소중한 아내에게 부와 사랑의 선물

부처님법구에는 세상사는 동안 물질의 고통을 소멸하고 평생부자로 살게하는 대비신력(大悲神力)의 법구가 있는데도 미련한 중생이 깨닿지 못하고 법구가 무언지도 모르고 고통속에 살아간다. 불가에서는 인연법과 물연법을 중요시 한다. **돈의 집인 지갑역시 연이되면 돈이 동서 사방에서 들어오지만 연이 안되는 지갑은 돈은 들어오지 않고 고통만준다.** 불경, 다라니의 근본은 신묘장구(神妙章句)로 글자 그대로 신통하게 묘한일이 일어나 해결된다는 뜻이다. 점안불공과 축원불공을 마친 大다라니복지갑은 **동서사방에서 돈이 들어오게 하는 비방의 법구와 막혔던 모든 문제를 해결되게 하는 영험의 법구가 들어 있으며 음양의 조화로 원하는 소원이 성취되게 왕진언이 지갑 앞면에 들어있다.** 고급소가죽에 금나노, 은나노 처리 까지한 일반 지갑과는 비교될 수 없게 내부도 잘 꾸며져 있고 불광사에서 지갑 사용하실 분 의 물질의 소원과 원대한 계획이 성공되게 생년월일을 알려주면 100일 축원불공을 해드린다. 남성용 금나노 반지갑 65,000원 여성용은나노장지갑95,000원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 드립니다. (신용카드 분할가)

문의(02)741-4488
농협032-12-193445 이상하

동국사 유물 전시

국립전주박물관은 10월 20일부터 11월 30일까지 동국사 소장 유물 14점을 공개 전시한다.

전북도유형문화재 제213호 동국사 소장 석가삼존불은 조선 효종 1년(1650) 응매 스님 등 5명의 조각승에 의해 조성된 조선중기 불상이다.

2007년 10월 이 삼존불에서 발굴된 유물은 사리 1과, 후령통 3조, 1586년 김제 흥복사 발간 목판본 <묘법연화경>, 발행년도 미상의 <선문염송>을 비롯한 경전류 49권과 <보협인다라니경>과 '보협진언' 216장, 순치7년(1650년)에 작성된 발원문 2장이고 후령통에서 나온 볍씨, 보리, 녹두 등 곡식류와 금, 은, 진주, 유리, 호박 등 오보(五寶), 한약재, 오향 등 총 333점이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천불천탑 운주사 관광인프라 구축

'천불천탑(千佛千塔)'으로 유명한 화순 운주사(주지 정행)에 관광인프라가 구축될 전망이다.

전남도는 운주사 인근 화순군 도암면 용강리 일대 10만5495㎡에 올해부터 2013년까지 공공자금 96억원과 민자 19억원 등 116억원을 들여 공공편익시설과 휴양문화시설 등을 갖춘 관광지로 개발하기로 했다.

관광지로 조성되는 운주사 인근에는 미륵정원, 불교문화관, 생태연못, 습지연못, 야외공연장 등 휴양문화시설과 주차장, 산책로, 하수처리장, 휴게 광장 등 공공편익시설 등이 들어선다.

운주사는 2007년 2월 전남권 관광개발계획에 포함되면서 개발구상이 구체화됐다.

정행 스님은 "운주사 일대 정비사업으로 사찰과 지역 주민들이 상생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기대했다.

한편 운주사에는 도선(道詵) 창건설 등 많은 창건설화가 전해지고 있다, 보물 제796호 9층 석탑과 보물 제797호 석조불감, 보물 제798호 원형다층석탑, 부부 와불(臥佛) 등 많은 불상과 탑이 밀집해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전법 의지로 무소뿔처럼 당당히 가라"

조계종 포교사단, 송광사서 제6차 팔재계 수계실천대법회 봉행

"몸으로 지은 업, 입으로 지은 업, 마음으로 지은 업, 이 세 가지로 인한 업을 참회하오니, 모든 허물 사라져 몸과 마음 건강하고, 위험 원수 사라지고, 선업의 이익 나타나게 하소서."

조계종 포교사단(총재 혜총, 단장 강홍원)은 8월 30~31일 순천 송광사(주지 영조)에서 '정기연수 및 제6차 8재계 수계 실천대법회'를 봉행했다.

포교사단은 종단의 포살 · 결계에 앞서 2003년부터 매년 지계(持戒)를 점검하고 전법의지를 다지기 위한 8재계 수계실천대법회를 개최해왔다.

전국에서 모인 1100여명 포교사들이 동참한 가운데 열린 법회는 입재식에 이어 조계종 포교부장 동범스님을 강사로 포교사 정기연수교육이 진행됐다. 이어 송광사 율원장 도일 스님의 '지계실천을 위한 덕목'을 주제로 한 교육과 팔관재계 수계식, 촛불의식, 참회기도와 천수대비주 봉독 철야정진, '관정' 수계교육과 관정의식, 보살계 수계법회, 제13기 신규 포교사 및 제2기 전문포교사 품수식의 순으로 진행됐다.

입재식에서 혜총 스님은 "포교사 자신부터 정화돼 밖으로 그 향이 풍겨 나올 때 그것이 참된 포교"라며, "포교사가 매사에 모범이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송광사 주지 영조 스님은 "양식 없는 공직자와 일부 종교인들의 행위가 국민의 원성을 사고 있다"며, <숫타니파타>를 인용해 "인욕과 관용을 바탕으로 전법을 수호하는 당당한 의지로 외도들의 흔들림에 걸림없이 무쏘의 뿔처럼 앞으로 나아가라"고 포교사들을 격려했다.

이어진 8재계 수계식에는 조계종 포교원장 혜총 스님이 전계대화상, 송광사 율원장 도일 스님이 갈마아사리, 송광사 율주 도현 스님이 교수아사리를 맡아 계를 설했다.

포교사들은 8재계 받은 촛불을 들고 도량을 순회하며 부처님 가르침을 수호하고 포교에 임할 것을 스스로에게 다짐하는 촛불의식을 가졌다.

이날 8재계 실천 수계식과 보살계 수계식에서는 연비의식 없이 다음날 새벽예불 후 관정의식으로 대체했다. 이명박 정부의 종교편향에 항의하는 결의문도 채택했다.

한편 신규포교사 품수식에서는 397명의 새내기 포교사들과 20명의 전문 포교사가 새로 탄생했다.

전법에 공로가 큰 조철주(교정교화분과) 포교사가 총무원장상을, 최종옥(사찰문화안내)포교사가 총재상을, 전순호 · 박태호 · 최영민 · 박용금 포교사가 각각 포교사단장상을 수상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8월 30~31일 순천 송광사에서 조계종 포교사단은 제6차 팔재계 수계실천대법회를 봉행했다.

 # 팔재계란?

1. 생명을 해치지 않는 계율을 지키겠습니다.
2. 훔치지 않는 계율을 지키겠습니다.
3. 사음을 하지 않는 계율을 지키겠습니다.
4. 거짓말 하지 않는 계율을 지키겠습니다.
5. 술과 마약을 하지 않는 계율을 지키겠습니다.
6. 오후에 음식을 먹지 않는 계율을 지키겠습니다.
7. 향락과 몸 꾸미지 않는 계율을 지키겠습니다.
8. 높고 넓은 침상에 오르지 않는 계율을 지키겠습니다.

 # 팔관계란? 늘 지켜야하는 오계에서 세 가지 계를 더한 것이다. 팔관계는 하루 밤낮동안 지키는 것으로서 오후에 시작해 다음날 아침 해뜰 때까지 한다. 팔관계를 지키는 동안 경을 보거나 기도, 참선, 봉사 등 수행을 하며 보낸다. 팔관재일은 매월(음력)8일, 14일, 15일, 23일, 월말 이틀을 더해 모두 6일인데 월말의 이틀은 그 달의 크기에 따라 마지막 날과 그 전 날로 정한다. 남방에는 달 크기에 상관없이 5일, 8일, 14일, 23일, 29일, 30일을 지키고 있다. (이 6일을 육재일(六齋日)이라고 한다.)

백제불교 최초 도래지서 세계 종교문화엑스포를…

박찬수 전남도의원 의회서 주장

백제불교 최초 도래지 전남 영광에서 세계 종교문화엑스포를 열자는 제안이 나와 눈길을 끈다.

박찬수 전남도의원은 제235회 전남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세계종교문화엑스포를 한국불교 최초도래지 영광에서 개최하자"고 말했다. 이어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와 연계해 세계종교문화엑스포를 개최하면 지역 및 국가 이미지를 높이는 효과를 낼 것"이라 주장했다.

박찬수 의원은 "세계종교문화엑스포 추진을 위한 전담팀 구성과 종교계·학계·지역민 등으로 이뤄진 추진위원회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전남 영광은 인도 마라난타 존자가 백제에 최초로 불교를 전한 지역이다. 마라난타 존자가 상륙했던 법성포에는 '백제불교최초도래지 관광명소화' 사업이 진행중이며, 백제불교 최초 가람 불갑사도 인근이다.

박 의원은 "전남 영광은 원불교 창시자 박중빈 탄생지와 기독교 순교지로도 알려져 세계종교문화엑스포를 개최할 최적의 지역"이라 강조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세계종교문화엑스포 개최 제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영광 법성포 마라난타 성지 전경.

우리지역 부루나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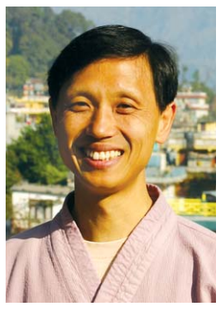
이해모 광주불교환경연대 집행위원장

불법으로 행복해지는 것이 '포교'

정부의 종교편향과 촛불시위, 다시 살아난 개발시대와 환경파괴, 경제위기설 등 암울한 이야기가 들려오는 요즘이다. 누구를 탓하기 보다 미래를 보지 못해 우리 스스로를 준비하지 않고 정진하지 않은 인과의 몫이다.

이런 가운데 빛고을 광주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광주불교의 희망아이콘이 있다. 광주불교환경연대 이해모 집행위원장이다.

"불교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인재양성이다. 종교편향 문제도 결국 불교계가 사회문제에 무관심하고 인재양성에 등한시했기 때문이다. 어린이 · 청소년 · 청년을 비롯해 불자들을 지역 사회의 오피니언 리더로 성장시키는 데 노력해야 한다."



이해모 집행위원장의 말에는 열정과 노력이 담겼다. 그의 이력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이해모 집행위원장은 1988년 광주 원각사불일청년회 입회 후 회보나 소식지를 줄곧 만들어 왔다. 이후 대불련 광주지부 편집부장, 선덕사청년회 편집부장, 부산 대각사청년회 편집부장 등을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불교출판을 업으로 삼았다. 불교출판과 인연을 맺은 것이 벌써 20년째다. 현재 이해모 집행위원장은 불교출판 부다기획 대표다.

이 위원장의 신행 열정은 그의 불교출판 열정 만큼이나 대단하다. 이해모 집행위원장은 1994년 선덕사 수행학교부터 지금까지 단 한 해만 걸렀을 뿐, 매년 광주전남 지역 사찰 어린이캠프를 진행해왔다.

평화실천광주전남불교연대 사무국장 역임, (사)불교아카데미 연구위원 등 이 위원장에게는 직함도 많다. 밤이면 전남대 대학원에서 한국현대사 과정까지 공부하는 그의 열정은 대단하다.

"이명박 정부 대운하 백지화를 위해 정진해 왔고, 현재는 종교차별 시정을 위해 교계단체들과 연대사업을 진행중"이라는 이해모 집행위원장은 광주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법일)에서 또 다른 미래 비젼을 준비중이다.

광주불교환경연대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젊은 활동가들이 지역에 불교 NGO를 설립하고자 2007년 4월 설립됐다. 주요사업은 매월 한차례 진행하는 사찰생태기행, 광주전남 사찰과 연계해 건강한 먹거리와 빈그릇 운동을 위한 환경법회, 어린이들에게 생태적 삶의 가치를 심어주는 어린이생태학교, 광주전남지역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쌀나누기 사업 등을 펼치고 있다.

불자들 오피니언 리더로 키우려 노력

"대불련 임원활동을 하면서 365일 중 추석과 설날 명절만 빼고 대불련 사무실로 나가 활동했던 때다. 그때의 에너지로 지금껏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였지만 열정적으로 활동했다"는 이해모 집행위원장은 2001년 북녘동포를 위해 100일간 매일 저녁 충장로 우체국 앞에서 모금했던 일을 가장 인상 깊게 떠올렸다.

"포교는 부처님 법을 바탕으로 지금 자신의 삶을 행복하게 하고 더불어 이웃과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가꿔내는 일 아니겠습니까?"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지리산 대 화엄사 사적비 및 리산당 도광 대선사 부도탑비 제막식

일 시 불기 2552(2008)년 9월 22일(음. 8월 23일) 오전 10시 30분

장 소 화엄사 경내 사적비 앞

귀의삼보하옵고

천오백년의 歷史를 이어온 지리산 대 화엄사에서 화엄사 역사와 高僧大德스님과 外護大衆들의 공덕을 정리한 사적비 제막과 中興祖이신 리산당 도광 대선사 부도탑비 제막식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사부대중 여러분께서는 무루동참하시어 또 다른 千年을 향해 도약하고자 하는 本寺의 큰 誓願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화환은 사절하오니 복지기금으로 시주해주시면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사적비 및 도광대선사 부도탑비 제막 기념세미나

■ 일 시 : 불기 2552(2008)년 9월 21일(일요일) 1시 30분 ~ 5시

■ 장 소 : 화엄사 범음료

대주제 : 화엄사의 화엄문화와 도광 대선사

사회 : 종석스님(중앙승가대 교수)

- 기조발제 : 화엄사의 역사와 문화에 대하여 (인환스님)
- 화엄사의 불교문화와 화엄사상
  발제 : 도업스님(동국대 교수) 논평 : 지관스님(김포 용화사)
- 조선후기 화엄사 역사와 불교문화
  발제 : 김용태 박사(서울대) 논평 : 진옥스님(석천사)
- 도광 연구 : 그의 삶 구도와 보살행
  발제 : 김광식 교수(부천대) 논평 : 각묵스님(초기불전연구원)

자유토론 : 종열스님(조계종 초심호계원장)
종고스님(전 천은사 주지스님)
혜수스님(화엄사 승가대학 강사)

대한불교조계종 제19교구본사 화엄사 주지 종삼 합장

왕의 최측근, 살아선 막강한 영향력 사후엔 '쓸쓸'

52 내시

역사는 승자의 기록, 양지의 흔적이다. 하지만 존재의 역할은 꼭 그렇지는 않다. 보이지 않고 새겨지지 않아도 역사에 영향을 끼치고 왕들의 삶에 생수, 비타민이 되고, 때로는 독극물이 되기도 했던 이들이 내시다. 소수는 이름을 남기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내시는 사극 드라마에 감청색 관복을 입고 허리를 굽혀 등장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한다.

김처선은 조선조 초기 내시로 세종부터 연산군에 이르기까지 일곱 임금을 모셨다. 그는 내시이면서도 임금에게 직언을 서슴지 않았다. 이 때문에 연산군으로부터 미움을 받아 결국 처참하게 죽음을 당했다.

1505년(연산군 11) 연산군이 궁중에서 자신이 창안한 처용희(處容戱)를 베풀고 음란한 거동을 벌이자,

"이 늙은 신이 일곱 임금을 섬겼고, 경서와 사서를 대강 통하지만 고금에 전하와 같은 짓을 하는 이는 없었습니다."

라고 직간하니, 연산군이 크게 노하여 활을 한껏 당겨 김처선의 갈빗대를 쏘아 맞추었다.

그러나 김처선은 피를 흘리며 옆구리의 화살을 부여잡고 다시 말하길,

"대신들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늙은 내시가 어찌 감히 죽음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다만 전하께서 오래도록 임금 노릇을 하실 수 없는 것이 한스러울 뿐입니다."

연산군이 화살 하나를 더 쏘아 맞히고 땅에 넘어진 김처선의 다리를 잘라 버리고 일어나 걸으라고 명했다. 이에 김처선은 연산군을 쳐다보면서,

"전하께서는 다리가 잘리시고서도 걸어 다닐 수 있으십니까?"

연산군은 분기탱천하여 그의 혀를 자르고 친히 그 배를 갈라 창자를 끄집어내어 시체를 호랑이에게 먹이로 주었다.

그 뒤 김처선의 가산을 몰수하고 그의 집을 파서 연못으로 만들었다. 양자인 이공신과 7촌까지의 친족도 모두 연좌시켜 처형하고 본관인 전의(全義)도 없앴으며, 부모의 무덤을 파헤치고 석물(石物)을 없앴다. 또 연산군은 분한 마음을 참지 못하여 김처선에 관한 일로 어제시를 내리기까지 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백성에게 잔인하기 날 따를 자 없건만
한갓 내시놈이 날 능멸할 줄이야.
부끄럽고 통분한 마음 가눌 수 없어
바닷물에 씻어도 한이 남는구나.









❶ 초암산에 있는 내시 묘. ❷ 비석에 '상궁 박씨'라고 새겨져 있다. ❸ 상궁 박씨의 묘. ❹ 상궁묘의 석물로 보이는 석상.

일곱 임금 섬긴 김처선, 조선 최고 충절 내시
초안산 분묘 1127개 절반이 '내시 공동묘지'

또 동 · 서반(東 · 西班)의 대소 관원 및 군사 중에 김처선과 이름이 같은 자가 있거든 모두 고치게 하였으며, 일력(日歷)의 처서(處暑)의 처(處) 자도 김처선의 이름과 같다하여 조서(徂暑)로 고치도록 했다.

심지어 처(處) 자는 죄인 김처선의 이름이므로 모든 문서에 처(處)자를 쓰지 못하도록 했다. 그 사례로 사인(舍人) 성몽정(成夢井)이 교서를 지을 때 처(處)자를 썼다 하여 사헌부로 하여금 국문토록 했는데, 그 날짜를 조사해 보니 법이 선포되기 이전에 작성된 것이었으므로 다시 국문하지 말도록 한 일이 실록에 기록되어 있다.

그 후 1506년(중종 1) 중종반정이 일어나 연산군이 폐위된 뒤, 연산군이 없앴던 전의(全義)를 복구했다. 김처선은 무시무시한 연산군의 폭정에도 굴하지 않고 직언을 서슴지 않았던 조선조 최고의 충절 내시다. 비록 가장 처참하게 죽었지만 그의 이름은 역사에 길이 남아 있다.

'내시 이 앓는 소리'란 속담이 있다. 내시는 거세를 했기에 가늘어진 목청으로 이 앓이를 한다는 뜻으로, 맥없이 지루하게 흥얼거리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내시'라는 단어를 들으면 음흉한 눈초리와 가냘픈 목소리, 그리고 쪼그라진 어깨에 종종걸음을 걷는 모습을 떠올리는 것이 우리의 고정 관념이다. 영화와 드라마의 영향이 크다. 하지만 내시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절대 권력자인 왕의 최측근으로 있으면서 때로는 정사 깊숙이 개입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특수한 신분의 사람들이었다.

서울 노원구 월계동과 도봉구 창동 사이에 해발 100여m의 초안산이 있다. 평범한 야산 수풀과 바위 사이에 석물들이 흩어져 있다. 이 일대를 조선시대 분묘군(사적 440호)이라 부른다. 분묘 유적이 1127개로 확인되고 있다. 이 중 절반 이상은 그 누구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던 버려진 무덤, 내시들의 공동 묘지다.

후손들은 내시가 자신의 조상이라는 것을 숨기려고 했기 때문에 내시들의 무덤은 없어지거나 훼손된 것이 많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왕을 모시며 궁궐에서 근무하는 벼슬 높은 관직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동네에서 가장 큰 어른으로 대접 받았다. 그러나 내시들은 왕조의 몰락과 함께 그 존재까지도 점점 잊혀져 갔다.

내시가 궁궐에서 생활하다 궁에서 생을 마쳤을 거라는 상식과는 달리 내시부는 경복궁 바로 옆 지금의 효자동에 해당하는 지역, 궁 밖에 있었다. 왕실의 수발을 들기 위해서 내시부는 궁궐로 파견부를 설치하였는데 이를 내반원이라 한다.

내시는 왕과 가까이 있으면서 궁중 내의 많은 고급 정보를 독점할 수 있었다. 따라서 정치적 혼란기에는 이들이 관여될 여지가 많았다. 특히 극비에 속하는 정책, 간첩, 국제첩보에 관한 사항에 내시들이 간여한 경우가 많았다. 또 부를 축적할 기회도 많았는데 이는 왕실의 재산관리, 각종 공사 등을 이들이 맡아서 했기 때문이다.

조선 시대의 내시부(內侍府)에는 140명의 내시가 있었다. 이들은 궁중 내 살림을 맡아보았으며 최고위직인 상선, 즉 판내시부사의 경우 임금을 바로 옆에서 모시는 중요한 일을 했다.

내시는 왕을 가까이 모신 관계로 그들 중에는 공신이 된 자가 매우 많았다. 내시 출신의 대표적인 공신으로는 세조의 왕위 찬탈을 도와 정난공신과 좌익공신 2등에 각각 책록된 하음군 전균, 성종조 때 남이 장군의 옥사를 다스린 공으로 익대 공신 1등에 책록된 흥양군 신운 등이 대표적인 경우다. 또 중종 즉위에 공을 세운 정국공신 4등에 6명, 선조의 피난을 도운 공으로 호성공신 3등에 24명이라는 많은 내시가 책록되었다.

내시도 일반 사대부나 평민과 마찬가지로 부인과 자녀를 두고 결혼 생활을 했는데 사대부와 같이 첩도 두었고, 아내가 죽으면 새로 재혼을 하여 두 번째, 세 번째 부인을 맞는 경우까지 있었다. 내시의 아내로는 평민뿐 아니라 왕실과 줄을 대려는 양반 사대부 가문의 규수도 많았다. 내시의 부인은 사대부의 부인과 같이 남편의 품계에 따라 정경부인(1품) · 정부인(2품) 등 높은 봉작을 받기도 했다. 내시의 아내는 고래등 같은 기와집에서 많은 전토와 노비, 금은보화 등 그야말로 물질적으로는 부족함이 없는 생활을 누렸다. 그러나 성적 불구자인 남편과의 잠자리만은 불만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래도 대부분의 내시 아내들은 이런 성적 욕구를 취미 생활을 통해 해소하기도 했으나 일부는 외간남자와 정을 통해 사회 문제로 비화되기도 했다.

이밖에 환관촌의 내시 아내들끼리 동성애도 성행했는데, 이를 속칭 '대식(對食)'이라 했다. 대식 관계가 이루어지면 서방님, 마님 하는 호칭으로 서로를 부르고, 대식 연인끼리 손을 묶고 나란히 목매어 정사한 사례도 있었다.

비교적 천한 출신으로서 권력과 풍요로운 삶 모두를 영위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씨 없는 남자'로서의 그들의 애환은 안타까움 그 이상이었다. 환관들은 어떤 물건이 없다거나 부족한 것에 대해 아주 민감했다. 예를 들어 꼬리가 없는 개를 보더라도 꼬리 없다 혹은 꼬리가 끊어졌다고 하지 않고, 사슴 꼬리를 가진 개라는 식으로 비유해서 말했다. 그들은 '자른다'라는 말에 대해서도 대단히 민감해서 자른다 대신 '찌른다'라고 말했다. 여기에서 환관들끼리만 통하는 환관 특수용어(은어)가 통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면 수술 때 잘려나간 성기와 고환은 어떻게 했을까? 내시의 절단한 양물을 고승이라 부르는데, 이는 주인인 내시보다 높다는 뜻이다. 수술 후 절단된 남근은 썩는 것을 예방하고, 피와 수분을 제거하기 위해 횟가루가 담긴 그릇 속에 넣었다가 젖은 수건으로 깨끗이 닦은 후, 다시 참기름 속에 넣어두었다. 참기름이 다 스며들고 나면 그것을 작은 헝겊 주머니 속에 있는 '목갑' 속에 넣고 잘 밀봉했다.

이후 길일을 택하여 수술 받은 환관의 사랑에 모시는데, 반드시 대들보 위에 놓았다. 그러다 그 내시가 죽으면 대들보 위에서 그 목갑을 내려 죽은 환관의 육신에 원래대로 바늘로 기워 맸다. 이는 죽은 환관이 온전한 남자가 되어 구중천에 가서는 떳떳한 신분으로 조상님을 만나라는 깊은 뜻이 담겨 있다.

내시 김계한은 임진왜란 당시 목숨을 걸고 선조를 구해냈다. 그 공을 인정하여 공신에 봉 하자 이에 반대하는 상소가 끊이지 않았다. 이처럼 분명한 공을 세웠는데도 내시라는 이유로 그들의 권리가 무시되었던 경우가 태반이었다. 역사는 그들을 비하하고, 분란을 일으킨 행적만을 부각시켰다. 그러나 조선시대에도 궁중의 사람으로 자기 직분에 충실했던 수많은 내시들이 있었다. 그들에 대한 평가는 객관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내시는 천년의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그 역할은 변형된 형태로 현재도 여전히 남아있다. 권력의 최지근거리에서 왕의 손발이 되고 왕과 가슴을 터놓고 대화한 이들이 내시다. 탐욕스런 내시는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민심을 올곧게 전달하고 충절로 왕을 섬기는 내시는 어느 고관대작보다 존경받아야 한다. 청와대를 향해 소리쳐 볼까. 후자에 속한다고 자신하는 내시는 손들어 보시오!

글=이우상(소설가 asdfsang@hanmail.net)
사진=최진연(사진작가)

불교전통의식 교육안내



최근 종교편향정책으로 많은 불자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속세를 벗어나 산사에서 수행정진 해야 할 스님들께서 도리어
서울광장에 모여 잘못된 정책을 꾸짖고 규탄하는 모습을 보며
소승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우리 불자들은 부처님의 가르침과 자비를 바탕으로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하는데 앞장서야 되겠습니다.

소승은 출가 59년간 불보살님을 모시면서 여법한 전통의식을 보고
들으면서 정진해왔습니다.
맑고 향기로운 세상 되기를 원하고자 지금껏 배운 불교전통의식을 많은 사람
들과 나누고자 교육과정을 개설했으니 뜻있는 분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특히 이번 교육은 안채비 전문의식을 중심으로 실시합니다. 한번 교육을
받으면 어느 때나 여법한 의식을 할 수 있도록 내실있게 준비하였습니다.

◆ 교육내용 : 전통작법 구감
안채비 : 시련,신중작법,향수례,상단,중단,지장,시왕단,대령,관욕,시식,영단
거채비 : 만바라,천수바라,사다라니바라,작법 나비춤
사물 다루는 법 : 목탁,요령,태징,북,종성(전과목 실기지도)
◆ 참가자격 : 불교전통의식에 관심있는 분 누구나 가능
◆ 교육기간 : 2008년 9월 24일(음 8월 25일) ~
28일(음 8월 29일) [4박 5일]
◆ 장 소 : 학림사(불교전통의식 교육원)
◆ 주 소 :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662-33번지
◆ 문 의 : ☎ 062)222-4133 (모집인원 선착순 5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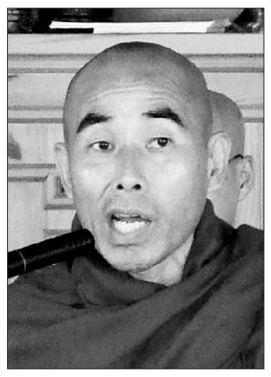
학 림 사 (불교전통의식 교육원) 주지 원명

한국 상좌부불교 선지식 초청법회

행복은 여러분 집에서 시작된다

한국을 대표하는 위빠사나 수행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20여 년 전 몇몇 스님들만이 삼각산 승가사에서 회합해 시작된 것이 근래 위빠사나의 뿌리다. 또한 여러 나라에서 수행하던 스님들이 한자리에 모여 위빠사나 법회를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다. 불교의 기본 수행인 마음관찰과 바라보기는 선정의 길로 가는 대표 방편이다. 북방불교에서 간화선을 주요 수행법으로 삼았다면 남방불교에서는 위빠사나 즉 마음관찰이 대표 수행법이다.
세 분 스님들의 주옥같은 법문은 우리를 평화와 행복으로 이끈다. 인생의 짐은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니며 행복을 위해 필요한 것 또한 그리 많지 않다고 말한다. 법문 속에는 작지만 꼭 필요한 것들이 담겨 있어 흔들리는 인생 항로 위에서 지혜의 등불이 되어준다.


나나로까 스님.


붓다락킷따 스님.


빤냐와로 스님.

강 사 : 빤냐와로 스님(부산 붓다의 길따라 선원장)
나나로까 스님(경주 마하보디선원장)
붓다락킷따 스님(서울 보리수선원장)
일 시 : 2008년 8월 30일
장 소 : 산청 정수산 도성사

#빤냐와로 스님(부산 붓다의 길따라 선원장)
나 외에 어느 것도 의지하지마라
진리 외에 어느 것도 의지하지마라

사람들이 만든 관념에 빠지면 그 안에서 알음알이를 일으키게 됩니다. 테라와다 승복을 입은 승려를 보면 "왜 한국에서 그런 승복을 입는가?"하고 물어보게 됩니다. 불교가 아닌 다른 종교의 형태를 갖고 있으면 "아니다 틀렸다"라고 합니다.

부처님이 깔라마인에게 이르기를 "세상에서 사람들이 그것을 따른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가 아니다. 너의 스승이 가르친다 해서 그 역시 진리가 아니다. 관습, 누군가 시킨 것을 그대로 따르는 것 또한 진리가 아니다. 어떤 것이 진리인가. 스스로 확인해서 나를 행복하게 하고 이익이 있는 것을 따르라. 이것이 나를 잘못된 길로 이끈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을 버려라." 즉 바른 것을 따르더라도 그 바른 것을 스스로 직접 확인하지 않았다면 버려야 한다고 합니다. 설령 부처님 말씀이라 하더라도 그러하면 버리라고 했습니다.

세상은 이와 같습니다. 부처님은 진리를 수호해 나가는데 2가지 방편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을 내가 배워서 실천하면 내 마음이 행복해지고 다른 이에게 칭찬을 받고 또 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면 배우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직접 그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수레의 양 바퀴와 같은 진리입니다.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내 자신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보고, 듣고, 냄새 맡고 하는 6가지 감각기관으로 살아갑니다. 그것을 떠나 무엇을 할 수 있겠냐는 것, 실제적인 것을 깨달으란 것입니다. 여러분도 살아갈 때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은 어떤 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이익을 주냐는 것입니다. 없는 것은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또한 이익이 있고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그것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어느 부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난다고 하더라도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나쁜 행위를 하지 말고 착한 일을 널리 행하라." 마음을 항상 깨끗이 하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무엇이 나로 하여금 이익 되게 하는가'를 따르는 것이 부처님이 가신 길이고 여러분이 가야할 길입니다.

#냐나로까 스님(경주 마하보디선원장)
일체 조건 지어지는 것은 영원하지 않은 것
일어난 것은 항상 사라지는 것이 곧 진리이다
일어나고 사라짐이 완전히 멈출 때만이 참 즐거움이다

'조건 지어진 것은 모두 변화한다'는 것은 익히 들어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유했던 것들 내 아파트, 투기 목적의 땅, 주식 등이 폭락하면 괴로워합니다. 모든 것은 변하기 마련인데 이것이 현실로 자기에게 다가올 때는 전혀 이 성스러운 진리의 말이 자기 것이 되질 못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사는 현실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현재의 고통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이 완전히 멈춘 때 그 것이야말로 진실한 행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기대할 때 자기 자신은 돌아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변화하고 있는 대상만이 변화를 멈춰주기를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삶이란 것은 삶의 주체인 내가 대상, 즉 사람과 일, 사건과 사물 등에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이 관계의 흐름이 곧 인생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대상이 어떻게 돼 주기를 바랍니다. 자기 자신의 내부의 헐떡이는 마음은 조금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헐떡이는 마음을 쉬게 해야 합니다. 이 마음은 계속 일어나고 사라지는 마음입니다. 헐떡이는 내 마음이 정지하면 대상도 정지합니다. 모든 조건 지어진 것은 변화한다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은 내 마음이 헐떡거릴 때 이를 가라앉히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헐떡인다는 그 자체를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은 즉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면 헐떡이는 마음을 아는 마음이 더 강렬해져서 마음이 작용을 멈춥니다. 곧 헐떡이는 것 자체가 마음의 작용이고 고통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알아차림으로 순간적인 평정을 얻고 그 속에서 대상이 가진 본성을 이해하면서 곧 괴로움에서 완전히 벗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수행은 삶의 목적이 아닌 삶의 방식입니다. 평화를 안고 살아가는 삶의 방법을 알 때 평안한 삶이 됩니다. 그것을 알아차리는 방법에 있어 수행은 필수과목입니다.

#붓다락킷따 스님(서울 보리수선원장)
부처님께서는 삶의 활력을 얻을 수 있는 38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 2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모님을 잘 모시는 것입니다. 이는 곳 행복이고 마음의 활력이며 하루 중 내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모든 존재는 어머니와 아버지라는 공덕이 한량없는 분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분들을 범천신과 같다고 했습니다. 자애와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평정심, 같이 기뻐하는 마음을 잘 수행했기 때문에 다음 세상에 범천으로 태어납니다.

두 번째는 어리석은 자와 사귀지도 가까이 하지도 의지해서도 안 됩니다. 대신 지혜로운 자를 따르고 가까이 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리석고 또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부처님은 '쓸데없는 생각을 만들고 그 이미지를 즐기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적절하게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몸과 마음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수행으로서 의지합니다. 이는 나를 위한 것입니다. 제일 먼저 나와 상대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5계를 지켜갑니다. 이 계가 바탕이 돼야만 보시 공덕이 있게 됩니다. 계 없는 보시는 없습니다.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수행을 하더라도 선정과 지혜가 따릅니다.

여러분은 38가지 복을 받는 쪽에서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내일은 무엇을 할 것인가' 2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모든 종교가 5계를 지키길 원합니다. 살생하지 않고 · 성내지 않고 · 음란하지 않고 · 거짓말하지 않고 · 마약이나 술을 하지 않길 바랍니다. 이것을 지키는 사람들과 만나고 같은 마을에서 살고 싶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까이 바로 여러분의 집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정리=박지원 기자

빤냐와로 "누군가 시킨것 그대로 따르는건 진리 아니다"
냐나로까 "수행은 삶의 목적이 아닌 삶의 방식입니다"
붓다락킷따 "할것과 말아야할것이 구분돼야 선정·지혜"



죽음의 뿌리를 끊고 생노병사를 초월하여 마장포망을 넘어 육신의병,정신의병, 잡신의 병을 태양 진광진법으로 중생 제도하는 최고 스승되는 숙명통 대법회

건강과 생명의 근본은 태식에 있고, 운명과 수명은 내마음자리에 있으며 생노병사는 죽음의 뿌리를 끊는데 있느니라.

● **경신수행으로 귀신의 번뇌를 벗고 새로운 천문도통으로 죽음의 뿌리를 끊고 막힌 운명을 찾아 도통하여 미래를 창조하여 자신도 구하고 중생도 다스리는 수련정진으로 초능력자 일류 스승으로 도통군자 비법으로 주인공 되시고 건강과 생명을 찾아 만사형통하는 최첨단 수련 육경신 철야정진 법회.**

수행진인도통군자 제위 귀하를 숙명통 대법회에 초대. 삼라만상 생명의 근본 태양진법인고로 자시와 오시에 점안하는 날이며 경신일, 혜안과 마음에 점안을 안하면 견성이나 득도가 되지 않고 한생을 고생만 하는 것이다. 경신도통법은 지구탄생과 더불어 사람에게만 하늘에서 내려진 도법으로 만세에도 전하지 않고 하늘과 땅에 감춰진 것을 금년 무자년 천년이 시작되는 해이므로 천용진인 태일대사는 만천하에 전하는 바 이오니 경신도법에 전하는 것은 후천대도는 이소식을 도통군자 후학들에게 전하는 것이며 득도에 따라 **천도는 드러나지 않게 지도는 움직이나 멸하지 않게 인도는 그 사람 그 자리와 기국이나 인품이 아닌 자에게는 전하지 말지니라.** 특히 욕심과 빨리 배우고 사용하여 이득이나 취하고 영리를 취하는 자에게는 삼가할 지어다.

● **경신도통이란?? 죽음의 뿌리를 끊고 생명을 연장하는 비법으로 생로병사를 초월하는 법이며 굿을 받아도 안되고 치료해도 안되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만병을 제도 해탈하여 자신도 구하고 중생도 구제하는 것이고 도통군자는 무불도통으로 초능력자가 되어 일류 스승으로 만병을 다스리고 귀신잡신도 제도하는 것이다.**

◆**신장 귀속들을 부려 말문과 글문과 도통군자들과 영통능력자가 되시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특별 태을경과 옥추경 주문으로 신장 귀속들을 마음대로 부리고 다를 수 있는 특별비법인 것이다.**

숙명통 기도수행으로 생명의 근본은 빛이고, 빛의 근본은 태양이며, 태양을 움직이는 것은 태시법으로 마음을 열어 막힌 운과 해도 안되는 사업과 약을 써도 병명도 없이 고통받으며 각종 질병과 비만당뇨병의 근본은 귀신장난인 고로 이번 숙명통기도로 득도하여 자신도 구하고 중생도 구제하는 육경신특별기도인 것이다.

宿명통 수행은 즉시 도통견성하여 영통능력과 말문을 열어 죽음의 뿌리를 끊고 생명과 건강을 연장하는 즉 마음자리를 보는 것이다. 특히, 집전이나 수행자, 지도자들이 자기 제 육신하나 관리 못하는 모든 수행자들에게 특별 숙명통 경신수행으로 견성도통하여 만천하제일의 견성도통 심령도통 광명도통, 말문도통, 의술도통으로 만법을 얻어 만중생을 제도하는 경신도통자 지도자 되는 특별기도 주문으로 득도하소서.



일체고액과 삼재팔난을 소멸하고 재수대통 하는 달마 구입처 : 태일 02)821-6622/016-239-3110

◆**천하대도 육경신도통으로 기천문을 열어 상통천문하달지리로 자신의 건강과 배꼽, 두뇌로 숨을 쉬어 정신,심신,육신에 일체의 병을 다스리는 육신의 병, 정신의 병, 잡신의 병, 귀신의 병을 귀신과 잡신에 포망을 넘어 자기 스스로 생명을 다스리며 관리하는 육경신 수행입문으로 생명과 수명을 연장하는 도통군자 사명자 되시며 꺼져가는 불교에 힘이 되소서.**

◆**제2도장 태양의 집** - 도인과 진인을 창출하는 천하 도통 명당 수행처 계룡명당, 봉황산, 계두봉, 서출동유, 비산비야, 비승비속 출현 태양의 집

※ **특히, 정신과 심신과 육신의 수양처 희망을 원하는 분은 이곳에 연연을 맺으시기 바랍니다. 토굴이나 기도처를 원하는 분도 환영합니다.**

충남 연기군 서면 봉암 2리 259번지 ☎ 041)867-7763 / 016-239-3110

세계불교달마종 육경신 도통회 제2도장 태양의집

● **입제 : 양력 2008년 9월 16일(음, 8월 17일 화요일)(해시)**
● **해제 : 양력 2008년 9월 17일(음, 8월 18일 수요일)(해시)**
02-821-6622 , 821-7767, 016-239-3110
● **농협 029-01-167866 곽태일 [선착순 접수] 간편한 옷**
7호선 신대방 삼거리역 3번출구 → 버스 461번,153번으로 환승하시고 두번째 모자원고개 하차. 동작구 약사회 골목. 관음정사 별관

웅조달마 경신도통회
세계불교 달마종 총 본산 태일합장

성인병(당뇨 · 고혈압) 예방

첫서리맞은 금강선원 뽕잎차

금강선원 뽕잎차는 초중스님께서 구증구포의 전통방식으로 정성들여 만들어 맛과 향이 탁월합니다.
초중스님의 뽕잎차 이야기는 현대불교신문에 연재되고 있습니다.

금강선원 뽕잎차의 특징

1. 혈당을 떨어뜨리는 성분이 10종이나 들어 있어 당뇨병 환자에게 매우 좋습니다.
2. 혈관내의 콜레스테롤 대사를 돕고 혈전을 용해시켜서 동맥경화를 예방합니다.
3. 다이어트, 소화촉진, 관절통 예방에 효과가 있습니다.
4. 머리를 맑아지게 하며 흰머리가 검어지게 하며 탈모예방에 좋습니다.
5. 중풍(뇌졸중)을 예방해줍니다.
6. 중금속을 제거하는 효능이 탁월하고 소변을 잘 나오게 합니다.
7. 식이섬유가 녹차의 4.7배가량이나 많아 변비에 좋습니다.



금강선원 뽕잎차의 수익금은 선원불사와 법당불사에 회향을 하오니 신심 있으신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www.ggzen.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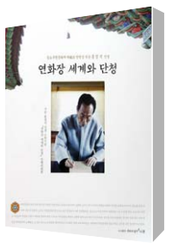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뽕잎차에 대한 자료를 상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15교구 통도사말사
금 강 선 원

구입문의 : 055)931-9590
계좌번호 농협 843162-55-000050 금강선원



연화장 세계 표현하는 일생



연화장 세계와 단청
홍점석 · 송인정 지음
디자인 나경 펴냄 | 비매품

중요무형문화재 제48호 단청장 석운 홍점석 선생.

오늘도 제자들에게 "단청 채색은 예쁘면 그만이 아니라 반세기를 염두해 색을 만들어야 한다"고 전한다. 주변 공간과 조화가 단청의 생명임을 당부한다.

이 시대 단청의 맥을 이어 온 산 증인으로 근50여 년 동안 이어 온 노화원(老畵員)의 칠순을 기념해 출간된 작품집이다. 단순한 장식미의 표현에 그치는 것이 아닌 연화장 세계의 미묘한 의미를 표현하고자 한 일생의 화두가 오롯이 담겨있다.

<연화장 세계와 단청>은 한국 사찰의 고유한 장엄의 미학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크다. 연화문을 중심으로 펼쳐온 단청 작업은 신앙적 체험과 함께 구도자의 면모를 스스럼없이 드러낸다. 홍점석 선생의 작업 세계를 단청계로의 입문 과정부터 전기를 서술하며 제자 송인정에 의해 스승의 단청문양에 담긴 정신과 기법의 논지를 심화한다.

가연숙 기자

다람쥐가 본 사람들 세상



호모사피엔스의 축제上 · 下
이만재 지음|석필 펴냄 | 각 1만2000원

생각하는 인류 호모사피엔스(Homo sapiens), 인간의 본질은 이성적인 사고를 하는 데 있다고 하는 인간관이다. 그러나 <호모사피엔스의 축제>는 이러한 이성관을 가차없이 허물어 버린다. 인간에 의해 포획돼 애완동물센터에 밀려들어온 다람쥐의 시선으로 비정한 도시를 투사한 소설이다.

작가는 고인 물을 거부한다. 현실 고발의 작가 의식은 인간의 사건이 다람쥐를 통해 투사되면서 현실적 서사가 인간의 윤리 규범 위에서 비판적으로 형상화 된다. 세속적인 삶의 부정적인 측면이나 자의적인 강요로부터 일탈을 시도한다. 흐릿한 미래 예감으로부터 미지에 얽매임 없는 세계를 꿈꾼다.

<호모사피엔스의 축제>는 환경 소설의 새로운 시도와 역작으로 평가받는다. 순수성과 대중성을 혼합한 중간 소설로 영적 세계와 단군 사상을 표상화한 획기적인 발상과 만난다. 오늘날 직면한 과학적 사고와 인간중심주의적인 인식의 편향성으로부터 해방을 시도한다.

가연숙 기자

본래 성품 깨우치는 경전

법의 실천적 측면서 이타의 역할 강조

'일체중생 실유불성(一切衆生 悉有佛性)'이라.

중생이란 여래장인 법신이 한량없는 번뇌에 얽매여 있을 때 다만 일컫는 호칭일 뿐이다. 여래장 사상에 의하면 중생은 본래 붓다의 씨앗을 품고 있다. 그러나 시작을 알 수 없는 두터운 무명의 미혹에 뒤덮여 해탈의 활로는 찾기 어렵다. 대승불교 정신을 한 권에 농축해 미로와 같은 인생 정각의 행로에서 헤매는 수행자로 하여금 자성의 본래 성품을 깨우치도록 하는 경전이 있다. 바로 <여래장삼부경>이다.

<여래장삼부경 강설>은 해인사 강주로 무영스님이 BBS불교방송 프로그램 '경전공부'를 통해 소개한 '<승만경>을 중심으로 한 여래장삼부경 강의'를 글로 엮은 것이다. <여래장경> <승만경> <부증불감경>을 합한 <여래장삼부경>은 성불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기반으로 수행에 매진하도록 한다. 본문의 번역은 직역을 기본으로 하되 비유와 해설을 통해 제차 이해를 돕는다. 각 경전을 서분 · 정종분 · 유통분으로 구성해 소주제에 따라 세부화 함으로써 각각의 체(體) · 상(相) · 용(用)을 모색한다.

<여래장경>은 금강혜 보살이 법을 물으면 부처님이 법을 설하는 형식이다. 법설은 최상근기의 사람을 대상으로 진리로서의 법을 있는 그대로 밝힌다. 유통분에서는 부처님의 성불에 관한 인연설화를 이야기 하면서 모든 이가 여래장을 지닌 바를 아홉 가지 비유를 통해 전생 인연으로 보이며 자비방편을 행한다. 더욱이 법의 실천적 측면에서 이타의 역할을 강조하며 하화중생(下化衆生)의 대승정신을 드러낸다.

<승만경>은 재가 불자인 여성이 설법의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경전의 제목을 풀어보면 승만부인이 일승대방편의 뜻을 사자후하는 경전이라는 의미다. 당시 인도의 시대적 배경과 불교의 사상적 배경을 통해 '여성성불론'의 저본으로 중요한 자료이다. 모든 중생이 성불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 여래장을 비중있게 다룬다.

<부증불감경>은 여래장이 증가하지도 않고 감소하지도 않는다는 가르침을 담는다. 무엇인가가 증가하거나 감소함에 따라 희비가 교차하는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행복한 삶을 위한 마음 다스림을 전한다. 산스크리트본과 티베트본이 존재하지 않는 경전으로 <구경일승보성론>에 일부가 인용됐을 뿐 전체 판본 없이 한역본만 남았다. 중생계는 여래장이고 여래장은 여래의 법신이라는 핵심으로 하나의 본질 세계를 밝힌다.

무영 스님은 강설을 마치며 '대승지관법문' 게송으로 여래장 사상을 매듭짓는다. '여래장은 본성을 따르거나 거스르는 성질 모두 갖추고 있어 번뇌로든 지혜로든 업에 따라 성인과 범부가 되네. 이것이 수행의 인연이니 속히 지관업을 닦아 청정한 공덕을 이루라'고 거듭 당부한다.

가연숙 기자 omflower@buddhapia.com



여래장삼부경 강설
연담 감수 | 무영 강설|운주사 펴냄 | 3만8000원

'최상승법문' 쉽게 재미있게



세종왕조 국역장경 묘법연화경
법화선원 마하사 발간
법화원 펴냄 | 10만원

부처님49년여의 설법이 대승 정신으로 되살아난다.

실상의 미묘한 법성을 연꽃에 비유해 밖으로 만 가지 경계에 통달하며 일심을 다독인다. 독실한 신행활동으로 모범을 보여온 김진철 법사(법화선원 마하사)가 <한자풀이 법화삼부경> 사본 전14권을 묶어 한권으로 출간한데 이어 난해한 세종왕조 국역장경 <묘법연화경>(계환 해 · 일여 집주)을 번역했다.

대승불교 초기 경전의 하나인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은 진실한 연꽃의 가르침이라는 의미다. 법화(法華)의 뜻은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경지를 진흙탕에 뿌리를 내리고 있지만 결코 그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아름답게 피어난 연꽃에 비유한 말이다. 법화부 경전은 불교경전 가운데 가장 넓은 지역과 가장 많은 민족들에 의해 수지 독송되는 대승경전 가운데 꽃이라 할 수 있다.

<세종왕조 국역장경 묘법연화경>은 <묘법연화경>과 계환 소(疏)를 훈민정음으로 번역하고 일여(一如)의 집주를 한문 그대로 엮은 것에 고어(古語)를 현대문으로 손보았다. 역자의 8년여 간 공덕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일승도(一乘道)의 공덕일 것이다.

가연숙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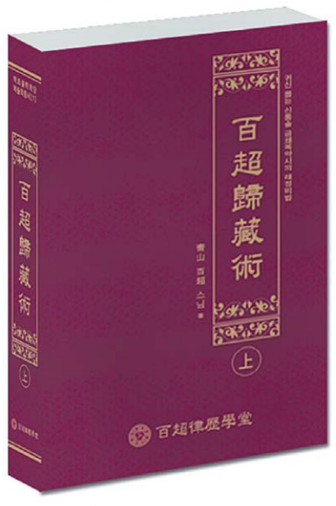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언젠가 이 세상에 없을 당신을 사랑합니다	월호	마음의 숲
2	아발로키테슈와라, 당신은 나의 연인	월호	운주사
3	신심	혜인	클리어마인드
4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월호	불광출판사
5	이와 같이 살았으면	무비	염화실
6	원력	혜인	클리어마인드
7	오대산 노스님의 인과이야기	과경	불광출판사
8	위없이 심히 깊은 미묘법이여	김일수	도피안사
9	붓다를 기억하는 사람들	김광하	운주사
10	답답하면 물어라	법륜	정토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모든불교서적이 모이는곳
불교서적총판 운주사
전화 02)3672-7181 팩스 02)3672-7188

베스트화제작 신간
귀신뽑는 래정비법!
백초귀장술 개인지도



찾아온 일진, 시간만 가지고
왜 왔는지
무엇이 탈났는지
어떤 귀신이 붙었는지
어느 조상이 탈이 났는지
들어오는 순간 알 수 있는
특수 초사법!

명리, 육임처럼 복잡하게 몰라도 간단히 알 수 있는 비법공개!
60갑자 일진별로 한눈에 쏙쏙 알 수 있게 초사를 확실하게 설명!

신국판/양장본/567쪽/정가 120,000원 著者 百超백초스님

百超律歷學堂 Tel : (02) 3667-4446 H.P : 010-3813-4443
입금계좌 (예금주 : 조영신) 농협 023-02-478822 신한 010-3813-4443

스님! 빙의로 고통 받는 중생을 구해 주세요

전생, 빙의, 자기 최면, 치료최면
(최면 시술사 과정)

• 개강일 : 9월 18일 목요일반 • 개강시간 : 오후 1시

▶ 교육 기간 : 6주(24시간) ▶ 모집 인원 : 선착순 10명 ▶ 교육 비용 : 60만원 ▶ 대상 : 스님, 포교사, 불자

특기사항
1. 10명의 소수 정예 엘리트 교육
2. 6주 24시간의 최단기 집중 현장 교육
3. 상상할 수 없는 최소의 교육 훈련비
4. 개인 교습식의 일대일 교육, 책임 교육
5. 현장에서 바로 활용 할 수 있는 실전 교육
6. 새로 개발된 테크닉 수시로 전수하는 평생 교육

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유일한 곳

수행과 포교 또 중생 구제에 바쁜 스님들께 귀의 합니다.
소승은 스님들께서 시간에 쫓기시고 경제적으로 넉넉지 못한 스님들의 사정을 너무 잘 알기에 모든 거품을 빼고 최단기, 최소 교육비로 보시 하고자 합니다.
소승은 자리이타의 정신과 회향하는 마음으로 본 강좌를 만들었습니다.

마하 반야 바라밀 - 무초 정락 합장 -

(사) 유마 정신 건강 최면 연구소
서울 지하철 1호선 구로역 1번출구 애경백화점 맞은편 세일빌딩 401호 ☎ 02) 763-0661~2

★ 최면을 배우시고도 시술을 못하시는 분, 자기최면이 안되는 분 개인지도 ★

한 권의 불서 성불의 씨앗 불서읽기 캠페인

"바른 역사 인식 없으면 불교의 내일도 없어요"

저자 인터뷰 '고구려 시대의 불교 수용사 연구' 낸 진관 스님



고구려의 넓은 영토와 정신 우리 불교사로 복원해야
종교편향 역사적 뿌리 깊어 … 불교사 연구자 많아야

'타이틀' 많은 스님의 검은 승복과 목탁

올해로 비구계를 받은 지 40년이 되는 진관 스님은 '타이틀'이 많다. 일찍이(1976년) 시인으로 등단했고 불교인권위원회를 설립해(1990년)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2000년에는 불교평화연대 대표로 평양을 방문했으며 한총련 시위 현장에서 연행돼 옥고를 치르기도 했다. 검은색 승복을 입고 목탁을 딱, 딱, 치면서 다니는 스님은 종단의 행사장이나 각종 시위현장에 늘 동참한다. 불교가 추구하는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는 확고한 신념 때문이다.

진관 스님이 시를 쓰고 인권운동에 앞장서는 것은 누구나 자주 보는 장면이다. 그러나 동국대 불교대학, 서울예대 문예창작과를 거쳐 광주대학에서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하고 조선대학에서 국어교육을 전공해 석사학위를,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통일정책을 전공해 석사학위를 받았다는 사실은 좀 의아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진관 스님은 중앙승가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논문을 쓰는데 이미 마무리 단계다.

'역사 인식' 화두로 학문의 길 순례

진관 스님이 박사학위 논문에 앞서 낸 논문이 650페이지 분량의 <고구려 시대의 불교수용사 연구>다. 943개의 각주가 달린 이 논문집은 고대불교사 정립에 대한 진관 스님의 관심을 집약해 중요한 문제점들을 제기하고 일정부분의 결론을 도출해낸 의미 있는 작업이다.

조계사 인근에서 '거리의 투사' '흑기사' 등으로 통하는 진관 스님은 거리에 서서, 군중들 속에서 뭔가를 힘차게 외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지한 학문의 도량에 앉아 있기도 한다. 스님의 학문적 관심은 매우 범위가 크다. 응축된 화두는 '역사인식'이라 할 수 있지만, 현대와 개화기 이후, 조선시대, 고려시대 그리고 삼국시대와 고대의 한반도에 불교가 어떻게 존재했는가를 조명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한국불교의 역사를 처음부터 새롭게 조망하겠다는 진관 스님의 학문적 순례길이 평탄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승려로서 못 갈 길이 어디 있느냐"는 스님의 도전정신은 새로운 기대를 가능하게 한다.

한국불교의 근현대사를 깊이 들여다 본 스님은 박사학위 논문을 이 분야에 대한 연구로 정했다. 개화기 이후 한국의 근현대 불교사야말로 오늘의 불교를 바라보는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구려에 먼저 눈길을 준 것은 무슨 이유일까?

"지금 그 쪽이 시급하잖아요. 중국의 동북공정은 아주 치밀하게 파고드는데 우리의 방어는 허술하니까요. 역사적으로 규명할 것이 제대로 되지 않았으니까 대응할 길도 찾기 어려운 겁니다. 나는 역사학자가 아니라 이런 연구를 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불교계에서 고대불교를 제대로 인식하지 않는 한 불교의 역사는 출발부터 비뚤어진 것일 수밖에 없잖아요."

고구려의 영토 정신 재인식할 때

현실참여를 이념 이전의 사명으로 여기는 진관 스님의 '깊은 뜻'은 고구려의 드넓은 영토와 높은 기상을 우리의 역사로 회복하자는데 있다.

"우리에게 고대사를 들여다 볼 수 있는 자료는 <삼국유사>와 <삼국사기>가 전부인데 이들 자료 역시 매우 편협 된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유사'의 경우 지나치게 설화적인 부분에서 역사적 사실을 봐야하는 어려움이 있고 '사기'는 지나치게 사대주의적 관점에서 기술된 자료라 한계가 있어요. 한반도에 불교가 처음 들어온 시기를 고구려 소수림왕대인 서기 372년으로 보고 있는데, 이 역시 '사기'의 기록에 의한 겁니다. 가락국의 불교유입을 허황후의 도래로 본다면 그보다 훨씬 앞 선 시기에 불교가 들어 온 것이 됩니다. 또 고구려의 건국사를 단순하게 신화의 차원에서 간략히 정리해 버린 점도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할 부분입니다. 고구려 건국사는 중국대륙의 드넓은 영토를 토양으로 하고 있고 전해지는 것보다 훨씬 웅장한 정신을 품고 있다는 것을 재정립하고 우리의 역사로 인식하자는 겁니다. 거기에서 불교는 어떤 힘으로 작용하고 있는지를 규명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대목과 관련 진관 스님은 논문의 결말에서 핵심적인 언급을 하고 있다.

'고구려가 불교를 수용함에 있어서 전진이라는 나라와의 교류를 할 수 있고 전진의 불교뿐만 아니라 고구려 국가의 율령까지도 전해 받아 고구려 국가의 기틀을 세우고 고구려의 불교 발전을 더욱 가속화하였다고 본다. 고구려가 불교를 수용한 이후에 국가로서의 체제 발전과 백성들에게 새로운 힘을 부여하였다.'

진관 스님은 고구려의 건국사에 불교가 힘을 보태고 있다는 측면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만큼 고구려의 멸망에 대해서도 불교의 약화가 원인이었다고 진단한다.

"고구려는 도교를 받아들이면서 멸망의 길로 들어선 것입니다. 수나라와의 전쟁으로 국력이 소진되기도 했지만 수나라는 고구려에 의해 망했고 고구려는 강대한 국가로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당나라의 도교를 수용한 영류왕 보장왕 연개소문 등에 의하여 고구려는 멸망의 길로 접어듭니다. 국가의 기틀을 다지고 강대한 나라로 발돋움 하는 데 불교가 힘을 부여했던 것과 매우 대조적인 겁니다."

원효 스님의 '화쟁'과 전쟁동참 비판

진관 스님은 논문에서 고구려의 멸망과 관련한 불교세의 약화와 상대적으로 도교를 받아들인 집권층의 태도 등을 '승군(僧軍)'의 활동상까지 연계해 조목조목 짚어내고 있다. 특히 논문을 통해 고구려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불교적 입장에서 제시하고 있는 진관 스님은 남북의 분단 상황이 고구려 연구가 진전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보고 있다. 남북의 역사학자와 불교학자가 상호교류를 통해 역사성을 바르게 고찰해야 한다는 것이다.

진관 스님은 이 논문에서 원효 스님도 비판하고 있다. '화쟁사상'으로 집약되는 원효 스님의 정신과 고구려를 멸망시키는 전쟁에 참가한 원효 스님의 행적이 보여주는 이중성을 공격한 것이다.

"원효는 당나라 군사들이 고구려를 침공하기 위해 평양성에 도착했을 때 군량미가 부족하다는 당나라의 요청을 신라에서 받고 김유신과 함께 고구려 지역으로 군량미를 전달하는데 동참했습니다. 이는 신라의 입장에서 보면 정당화 될 수 있겠지만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비판 받아 마땅합니다."

종교편향은 미군정 때부터 시작됐다

진관 스님이 불교역사에 천착하는 이유는 복잡하지 않다. 역사를 모르면 오늘을 모르고 오늘을 모르면 내일을 알 수 없다는 것이다. 때문에 스님은 오늘날 종교편향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것도 제대로 된 역사인식을 통해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지금의 종교편향은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개화기 이전으로 문제의 뿌리가 드리워져 있거든요. 일제 강점기는 차치하고 미군정기부터 살펴봐도 종교편향 훼불의 뿌리가 우리 현대사에 얼마나 깊이 박혀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이후 이승만 정권 때의 '정화 유시' 또한 명분은 일제 불교의 청산이라고 했지만, 어느 측면에서 불교 탄압의 의도가 보이거든요. 그 이후로도 10.27법난과 현재까지 이어진 정권의 종교편향 사례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역사인식을 철저히 가져야 할 이유도 알게 됩니다."

불교사 연구하는 스님 100명은 돼야

진관 스님은 불교역사학자이길 원하는 것이 아니다. 사학 전공자가 아니라는 점 때문에 받아들여야 할 난처한 점이 없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누군가 불교의 관점에서 한국불교사를 넓고 깊게 정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안거철에 선원에 방부 들이는 조계종 선객이 2200여명이라면 적어도 100명의 스님은 불교사를 연구하는 게 옳지 않겠느냐"고 말한다. 그리고 종립대학에 불교역사학 전공도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임연태 기자 mian1@hanmail.net
사진=박재완 기자 waniholo@hanmail.net



고구려 시대의 불교 수용사 연구
진관 스님 지음 | 경서원 펴냄 | 3만5000원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20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 루 자죽염 125g 27,500원
가 루 자죽염 230g 50,000원
알갱이 자죽염 125g 27,500원
알갱이 자죽염 230g 50,000원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0,000원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기본 배송비 2,500원 (5만원이상 구매시 무료배송)

주문전화 : 053)985-1135 / 054)733-0979
전국 각 지역별 판매처 모집중 ! 016-823-0483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화제 집중
관세음보살 순금 (22K) 목걸이 메달

대자대비의 발원으로 만들었습니다 (의장등록 출원 중)

자비구세 정신의 핵심으로, 천 가지 지혜 눈으로 중생계를 살피고 천 가지 구원의 손길을 펴서 고해에서 허덕이는 중생을 구하시려는 넓고 깊은 원력을 지니신 대자대비의 유일한 진신 관세음보살님... 그 위신력과 가호를 항상 간직하시길 기원합니다.

사업성취, 신수대길, 재수대통, 복덕구족, 만사형통, 승진, 합격, 안전, 성취발원, 삼재팔난 관재구설 병고액난 일시소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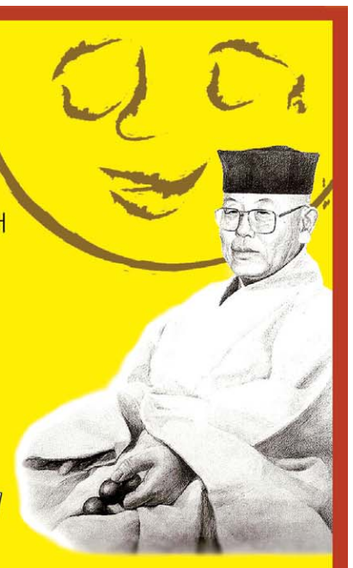

확대[앞]


확대[뒤]

※ 메달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재질 : 순금 22K, 케이스 : 케노픽(항공기 유리소재) / 크기 : 가로 2cm × 세로 3cm
사찰 불사용으로 매우 좋습니다.
스님들께서 문의 주시면 성심껏 안내하여 드립니다.
■구입문의 : 010-7208-3777, 010-2869-5777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봉상리 산100번지 각원사 혜일 합장
농협 231080-52-220201 이규상

조계종 77조
전강 대선사님 법어집

이 책은 지혜 제일 전강 대선사님의 법거량과 법문, 일화를 인가 제자인 대원 선사님께서 재조명하여 보인 것입니다. 이제는 전설이 된 한국 근대선의 거목인 전강 선사님의 최상승법과 예리한 지혜, 선기로 넘쳤던 삶이 생생하게 담겨 있습니다.
대원 선사님과의 특별한 인연과 고수명창같이 어우러진 두 분의 법거량도 자세히 실려 있습니다. 섬광과 같은 지혜로 수놓은, 최상승법의 자취없는 문양과 향 없는 향기에 흠뻑 취해보시기 바랍니다. <달다>는 선(禪) 수행자들에게 10년 가뭄의 단비와 같은 역할을 할 것입니다.



달다



대원 문재현 선사님 역저
바로보인 전등록 전5권 / 바로보인 무문관 / 바로보인 벽암록 / 바로보인 천부경 / 바로보인 금강경
바로보인 신심명 / 바로보인 증도가 / 바로보인 반야심경 / 바로보인 선문염송 전30권 중 11권
바로보인 환단고기 전5권 / 바로보인 법융선사 심명 / 바로보인 선가귀감 / 바로보인 법성게
주머니 속의 심경 / 영원한현실 / 앞뜰에 국화꽃 곱고 북산에 첫눈 희다
선을 묻는 그대에게 1, 2권 / 세월을북채로세상을북삼아 / 달다

법회 안내
매월 첫째 일요일 서울 육조정맥선원 선가귀감 법문 02-3494-0122
매월 둘째 일요일 국제 육조정맥선원 영원한현실 / 선문염송 031-531-8805
매월 셋째 일요일 광주 육조정맥선원 영원한현실 / 선문염송 062-944-4088
매월 넷째 일요일 부산 육조정맥선원 반야심경 법문 051-503-6460

02-3494-0122 www.zenparadise.com

깨달았다는 생각마저 버려라

오늘의 禪語 ㉞ 백천간두 진일보

깨달음, '백척간두' '최고봉'으로 비유
부처세계 머무르지 말고 중생 교화해야

'척(尺)'은 길이나 높이를 나타내는 단위입니다. 우리말로는 '자(尺)'라고 하는데, 1척이 대략 30.3㎝이므로 100척이면 약 30m가 됩니다.

'백척(百尺)'이나 '백화(百花)' 등에서도 볼 수 있듯이 중국 사람들은 많은 것을 표현할 때는 '백(百)'이라는 숫자를 주로 씁니다. 예컨대 중병에 걸려 갖가지 약을 써도 통하지 않을 때는 '백약(百藥)이 무효(無效)'라고 합니다. 이때 '백약(百藥)'은 실제 백 가지 약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갖가지 약'을 뜻합니다. '백화(百花)가 만발(滿發)했다'라는 말도 '갖가지 꽃이 다 피었다'는 뜻이지 '백 가지 꽃이 피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백척'은 '아주 높음'을 상징합니다.

'간두(竿頭)'는 빨랫줄을 높이 올리는 긴 막대기를 말합니다. 요즘은 접이용 빨래건조대를 사용하지만, 옛날에는 빨래를 빨랫줄에 널어서 말렸습니다. 이때 빨랫줄이 축 늘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빨랫줄 한 가운데를 높이 받쳐 주는 막대기가 바로 '간두'입니다. '진일보(進一步)'는 '한 걸음 더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풀이하면 '백척간두 진일보(百尺竿頭 進一步)'란 "백 척이나 되는 높은 장대 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라"는 뜻인데, 실제 백 척 장대 끝에서 한 발자국 더 전진한다면 그날 올라간 사람들은 아마 모두 제삿날이 똑같은 날일 것입니다.

백 척이나 되는 높은 곳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선어에서 '간두(竿頭, 장대)'나 '봉우리(峰)' 등은 최고봉을 뜻합니다. '고봉정상(高峰頂上, 높은 봉우리 정상)'이나 '독좌대웅봉(獨坐大雄峰, 홀로 대웅봉에 앉다)'이라는 선어에서도 볼 수 있듯이, 선에서 최고봉은 '깨달음의 세계'를 말합니다. 깨달음의 경지를 '백척간두(百尺竿頭)' 또는 '고봉(高峰)'이라고 합니다. 고봉정상에 섰다면 그는 이미 '목적지에 도달한 사람' '깨달은 사람'입니다.

문제는 이미 백척간두에 올라섰다면 그것은 바로 앞에서 설명했듯이 깨달은 것으로 더 전진할 것이 없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가라는 말(進一步)은 무슨 뜻일까? 이 말은 '더 공부하라' '더 수행하라'는 뜻인데 그 역시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선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선의 목표와 관점은 어떤 기준에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금강경>에 보면 '무유정법 명 아뇩다라삼먁삼보리(無有定法 名 阿耨多羅三藐三菩提)'라는 말이 있습니다. <금강경>을 읽어 본 분들은 잘 알 것입니다. 그 뜻은 "고정된 법(진리)은 없다. 그것을 이름 하여 최고의 깨달음이라고 한다"는 뜻인데, 이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선의 목표는 깨달음이지만 깨닫고 나서는 그 세계에 안주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세계에 안주하면 그 역시 집착이요, 공(空)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은 이상향은 공, 중도, 불이(不二)입니다. 공, 중도, 불이는 무집착을 의미합니다. 예컨대 아름다운 꽃밭을 본 다음 그 꽃밭에 있고자 한다면 그것은 결국 애착, 집착이 됩니다. 자전거가 계속 굴러야 넘어지지 않듯이 깨달음도 그 세계에 안주하면 그 역시 집착에 지나지 않습니다.

백척간두 진일보가 의미하는 바는 "깨달음을 얻은 후에는 깨달았다는 그 생각마저도 버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깨달았다는 생각이 있는 한 그는 아직 덜 깨달은 것이라는 뜻입니다. 깨달았다는 생각마저 버릴 때 비로소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든 깨달음의 세계에 집착한다면 그것은 아직 미완의 깨달음이라는 것입니다.

훌륭한 사람이 스스로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는 아직 훌륭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훌륭함이라는 허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입니다. 정말 훌륭한 사람은 자기가 훌륭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깨달은 자가 스스로 깨달았다는 생각에 빠져 있다면 그것은 아직 덜 깨달은 것입니다.

학자가 어느 정도 학문이 이루어졌다고 하여 만족한다면 더 이상 발전할 수 없습니다. 기업이 어느 정도 성장했다 만족하면 그 자리가 무덤이 됩니다. 수행자로서 자신의 경지가 최고라고 생각한다면 진정한 깨달음을 성취한 것이 아닙니다.

백척간두 진일보의 의미를 다른 각도에서 설명한다면, 깨달음을 얻은 후에는 부처의 세계에 머물지 말고 다시 중생의 세계로 내려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생을 제도해야 합니다. 최고 목표인 깨달음을 성취하여 부처가 되었다면, 중생 속으로 내려와서 어려움에 허덕이는 사람들을 교화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부처다운 삶입니다.

부처로서 부처다운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것은 부처가 아닙니다. 부처라는 허상에 사로잡혀 있는 중생에 불과합니다. 깨달음이라는 것이 개인의 가치관에 머문다면 그의 깨달음은 무의미합니다. 사회적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윤창화 민족사 대표

깨달은 여인들의 수행법

분별심 내지 않아 중생 근기에 맞는 설법

㉞사자빈신 비구니

선재동자 깨달음으로 이끈 선지식 중 한 명
온갖 지혜 성취하는 해탈 이뤄 중생 제도

사람들은 중요한 일을 시작할 때 심호흡을 하고 마음을 고요하게 가라앉힌 다음 일을 시작하곤 한다. 그렇듯이 부처님께서는 감로법문을 열 때마다 삼매(三昧)에 들곤 하셨다. 부처님께서 삼매에 드시면 법문을 듣는 제자들은 저절로 심신의 안정을 얻고 마음의 문을 열어 설법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부처님께서는 <법화경>을 설하시기 전에는 '무량의처삼매(無量義處三昧)'에, <화엄경> '입법계품'을 설하시기 전에는 '사자빈신삼매(獅子頻伸三昧)'에 드셨다고 한다. 이 중 사자빈신삼매라는 뜻은 '사자가 기지개를 켜는 삼매'라는 뜻이다. 산하대지(山河大地)와 하나 되어 진리자체로 살아가시는 부처님께서 백수의 왕처럼 당당하고 걸림 없는 삼매를 누리신다는 의미다.

'입법계품'에 등장하는 사자빈신 비구니는 사자빈신삼매에 든 당당한 모습으로 53선지식을 찾아 구법여행 중인 선재동자를 깨달음으로 이끄는 선지식으로 등장한다.

선재동자는 수나(輸那)라고 하는 나라의 가릉가(訶陵迦) 숲의 성에 이르러 사자빈신 비구니를 찾아갔다. 그녀가 승광왕(勝光王)이 보시한 일광(日光)동산에서 법을 설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그 동산을 찾아간 것이다.

그 동산에서 선재동자는 그녀가 모든 보배나무 아래 놓인 사자좌에 두루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낱낱 사자좌에 모인 대중도 같지 않고 말하는 법문도 각각 달랐다. 그녀는 그들의 욕망과 이해 정도가 서로 다른 차별에 따라서 법을 설하여 아뇩다라삼먁삼보리에서 물러가지 않게 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계를 보고 또 불가사의한 법문을 듣고 한없는 존경심을 가지게 된 선재동자가 합장하고 서서 보살도를 닦는 법을 가르쳐 주기를 청하자, 그녀는 이렇게 설했다.

"선남자여, 나는 온갖 지혜를 성취하는 해탈을 얻었다. 이 지혜의 광명은 잠깐 동안에 삼세(三世)의 모든 법의 장엄을 두루 나타나게 한다. 나는 이 지혜의 광명문에 들어가서 모든 법을 내는 삼매왕(三昧王)을 얻었고, 이 삼매로 인하여 뜻대로 태어나는 몸을 얻게 되어 시방 모든 세계의 도솔천궁에 있는 일생보처보살의 처소에 나아갈 수 있었다."

그녀가 이어서 말했다.

"선남자여, 나는 모든 중생을 보아도 중생이라는 분별을 내지 않았으니, 지혜눈으로 보는 까닭이다. 모든 말을 들어도 말이라는 분별을 내지 않으니 마음에 집착이 없는 까닭이다. 모든 여래를 뵈어도 여래라는 분별을 내지 않으니 '법의 몸(法身)'에 대해서 통달한 까닭이다. 모든 법륜을 머물러 가지면서도 법륜이라는 분별을 내지 않으니 법의 성품을 깨달은 까닭이다. 한 생각에 모든 법을 두루 알면서도 모든 법이라는 분별을 내지 않으니 법이 환술과 같음을 아는 까닭이다. 선남자여, 나는 다만 온갖 지혜를 성취하는 해탈을 알 뿐이다."

사자빈신 비구니가 다양한 중생들의 욕망과 이해력에도 불구하고 각기 알맞은 법을 설하여 아뇩다라삼먁삼보리에서 물러나지 않게 할 수 있는 것은 일체의 분별을 내지 않기 때문이다.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다, 다만 분별심이 없어야 한다(至道無難 唯嫌揀擇)"고 한 3조 승찬 대사의 <신심명> 법문과 다름이 없다. 선수행의 처음과 끝이 시비 · 분별하고 취사 · 선택하고 조작하는 마음을 내려놓는 데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우리는 세상살이를 하려면 분별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다. 하지만, 대상과 일을 또렷이 알아차리되 거기에 집착하거나 애증(愛憎)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 수행의 요체다. 즉 승찬 대사가 설한 "미워하고 사랑하는 이 두 가지 마음만 없으면 무상대도(無上大道)는 툭 트여 명백하다(但莫憎愛 洞然明白)"는 법문이 이것이다.

선수행의 핵심은 <신심명>의 첫구절 '지도무난 유혐간택'에 있음을 깊이 믿고 받아지녀야 한다. 중생과 부처, 번뇌와 보리, 생사와 열반, 차안과 피안 등등 일체의 대립 · 고정관념을 단박에 내려놓을 수 있다면 화두니, 묵조니, 위빠사나니 하는 말이 어디에 붙을 것인가.

김성우 기자

신행게시판

●**참선집중수행 '참사람의 향기'**=해남 미황사는 9월 20~27일 2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참선집중수행 '참사람의 향기'를 진행한다. 법인 스님(실상사 화엄학림 학장), 금강 스님(미황사 주지) 등이 교수사로 나선다. 참선, 묵언, 오후불식, 수행문답, 수행체계 법문, 다도 등으로 수행을 하게 된다. (061)533-3521

●**구절초 축제 템플스테이**=공주 영평사가 9~10월 구절초 축제 템플스테이를 진행한다. 9월 20일부터 10월 25일까지 매 주말 1박2일 구절초 축제 템플스테이가 열린다. (041)857-1854

●**대관음사 53선지식 초청법회**=대구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가 계속해 오고 있는 53선지식 초청법회의 9월 법회가 17일, 29일 오전 11시 열린다. 17일에는 불교TV 회장 성우 스님이, 29일에는 탤런트 전원주 씨가 법석에 오른다. (053)474-8228

●**월정사 희망의 만등 밝히기**=평창 월정사가 10월 10~12일 제5회 오대산불교문화축전을 앞두고 '희망의 만등밝히기' 행사를 연다. 8월 25일부터 접수받기 시작한 '희망의 만등'은 10월 10일까지 접수가 이어진다. (033)332-6661

아봐타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일간의 내면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밝은길 아봐타 센터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지금이야 말로 당신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생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아봐타 마스터 김희균
●전화문의 상담 환영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45-3
전화 010-6230-2113 · ☎ 02)512-2736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heegyun@avatar21.com

간 건강해야 장수할수 이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웅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 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래식(가마솥)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다슬기 농축액 :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깨끗한 참 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 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에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입니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주문하시면 (생산) 달여 드립니다. 참 다슬기 농축액은 주문(생산) 달여들이며 주문시 기간은 3일~4일 걸리오니 참고하시고 주문해 주세요!
상담 (055)963-9583
문의 (055)355-5626
산마을 토종(민속농원)

21세기 불자 자가(自家) 기도법
해조(解祖) 범산(梵山)큰스님이 쓰신불자 한 사람이 꼭 한 권씩 수지 독송해야 할 "21C 불자 자가 기도법"이 드디어 불자님들께 선을 보입니다.
이책은 한글만 아는 사람이면 자기 집에서 혼자 충분히 기도할 수 있도록 저술하였음으로 불자님들에게는 필수적인 경서 입니다.
· 해조(解祖) 범산(梵山)스님
· 1949년 전남 순천출생
· 東山 無盡 큰스님을 은사로 득도 수계
· 법무부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 역
· 대한불교 원효종 경남종무원장, 중앙종회의원 역
· 현)해동불교대학,대학원교수
· 현)몽골불교대학 객원교수
· 현)여래암 주지
[논문]
· 인도불교의 철학적 고찰
· 원시불교의 선정사사에 대한 연구
· Buddkism과 인도철학과 제학파의 비교 연구
· 공사상에 대한 일 고찰
· 독서문화의 정착 방안에 관한 고찰 등
[저서]
· 그 속에 길이 있었다 · 웃으며 가는 저승길
· 공저 국역상용법요집 · 외 전문분야 다수
신간
21C 불자 자가(自家) 기도법
[차례]
제 1장 - 기본학습
제 2장 - 중요경전
제 3장 - 불공편
제 4장 - 진언과 다라니
제 5장 - 각종발원문
제 6장 - 기도체험수기
제 7장 - 불서출판수지공덕
제 8장 - 내면탐사와 여래33천풍기도
제 9장 - 자가기도법
제10장 - 불교기초지식
제11장 - 권선문
◆택배발송(발송비 무료) ◆정가 30,000원
◆문의 : 055-761-7462 / 011-552-3222
◆계좌번호 : 농 협 801032-51-032261
우체국 610790-01-001194 (예금주 : 여래암)
홈페이지 www.yeraeam.com / cafe.daum.net/yeraeam

(株)天星建設
석 · 납골당
석 · 굴법당
전문
석 · 납골당 조성공사
석 · 굴법당 조성공사 전문
석 · 축대 및 보수공사
석 · 저장실, 보관실(과일)
석 · 까다로운 석 · 길공사
석 파는 공사 전문 업체
충남 예산군 예산읍 산성1구 260-1
전 화 041)331-6863~5
팩 스 041)331-6862
핸드폰 010-4035-3354

풍기 정품 홍삼
풍기 정품 홍삼액 골드.액기스.
레드파워(산삼배양근추출액 50ml×16병) 판매
풍기인삼은 이래서 좋습니다
· 약탕기에 끓여 재탕, 삼탕을 해도 물렁하게 풀어지지 않습니다.
· 같은 분량을 달여도 다른 인삼보다 농도가 훨씬 진합니다.
· 인삼을 넣어둔 방문만 열어도 향기가 짙게 납니다.
· 육질이 탄탄하여 중량이 무겁고 약효가 뛰어납니다.
• 판매처 054)634-3429
• 휴대폰 011-9373-3778
입금계좌 : 우체국 703884-02-048103(예금주 : 박영애)
홍삼액골드 100ml×60포 (한달분)
유효사포닌(32종)의 성분들이 살아있는 최상의 건강식품 입니다
농축액 (진액) 500g
삼을 직접재배, 가공하여 만들어진 양질의 홍삼만을 선별!!
스님,불자님께는 특혜드림



도견 스님 (해인사 극락전 한주)

1925년 강화에서 태어남. 1944년 지월 스님을 은사로 득도.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역임. 성철 스님의 권유로 해인사 주지 역임. 해인사, 송광사, 범어사를 비롯하여 전국의 선방에서 50안거를 성만하였다. 지금은 해인사 극락전에 주석하고 있다.

"자비심 키워서 나와 남 둘 아니게 하라"

<화엄경>의 해인삼매에서 비롯되었다는 해인사(海印寺)라는 사명(寺名)만 진실로 알아도 큰 공부가 된다고 했다. 해인삼매는 부처님 정각의 세계를 가리키는 말이며, 오염됨이 없는 청정무구한 우리의 본디 마음을 나타내는 말이다. 해인사 일주문에는 '입차문내 막존지해(入此門內 莫存知解), 이 문안에 들어와서는 모든 알음알이를 버려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다. 본디 우리의 마음은 명경지수와도 같아 맑음 그 자체이지만, 알음알이로 인해 탁해졌으니, 그 식(識)을 일주문에 내려놓고 오라는 강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문구이다.

극락전 와선당(臥仙堂) 댓돌 위에는 낡은 털신 한 켤레가 가지런히 놓여있다. 그 옆에는 손때 묻어 반질반질 윤이 나는 주장자가 자리를 지키고 있다. 한 여름의 겨울 털신과 군데군데 옹이 박힌 주장자를 보니 막힘도 걸림도 없는 수행자의 가풍이 느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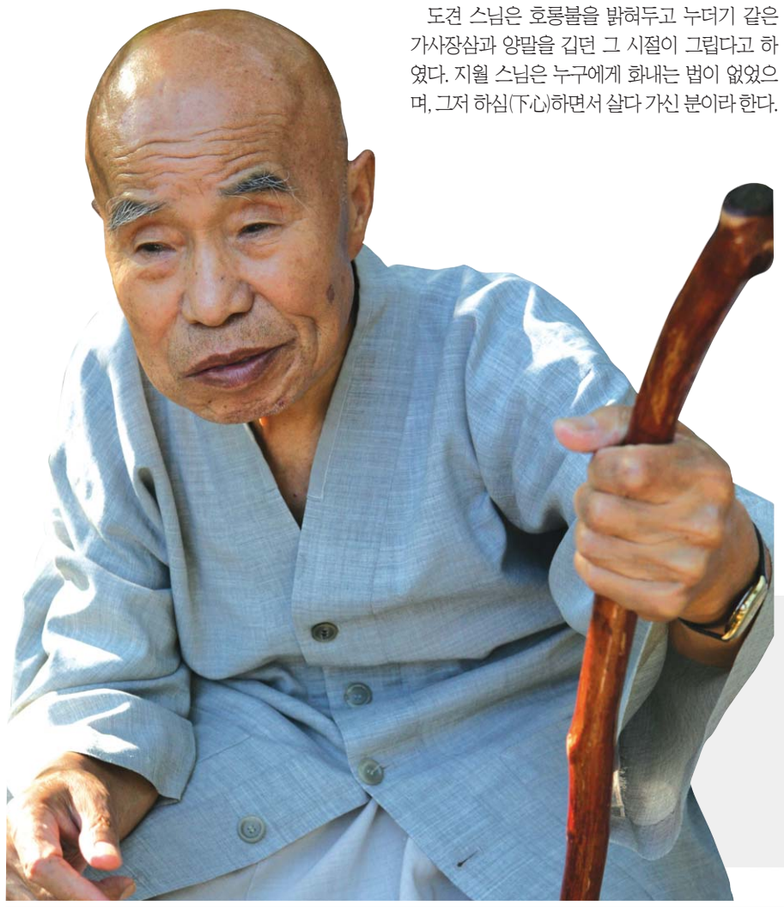
막 오후 포행을 나서는 도견 스님을 만나 뵈었다. 올해 여든넷이신 스님은 "작년에 심하게 앓고 나서 허리가 더욱 더 굽었다"고 한다. 하지만 평생을 참선으로 일관해 오신 스님이라 그런지 얼굴은 한없이 자애롭고, 목소리는 카랑카랑하다.

지금도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정진하고, 아침 공양을 하고 나서 경내를 한 바퀴 돈다. 일주문을 지나 스승 지월 스님의 부도탑을 비롯하여 성철 스님, 자운 스님, 일타 스님의 부도탑 주변을 돌면서 '열반 후의 한 소식'을 묻는다. 그리고 오후에는 날이 좋으면 극락전에서 걸어서 한 시간도 넘게 걸리는 지족암의 뒤편에 있는 토굴에서 선정에 드신다. 그 토굴은 일타 스님이 정진하시던 곳인데 도견 스님께 물려주었다.

강화도 백련사의 화주보살이었던 속가 어머니는 어린 아들에게 태몽을 들려 주곤하였다. '고려산 꼭대기에 부처님 한 분이 앉아 계시고 또 산 중턱에 부처님 한 분이 앉아 계시는' 태몽 탓인지 도견 스님은 열일곱 살에 출가하겠다고 발심하였다. 오대산 동관음암에서 인욕보살이요, 자비보살이라 일컬어지는 지월 스님을 만났다.

"산중에서 지월 스님과 둘이서 살았지. 그때 지월 스님은 행자인 나에게 아무 것도 시키지 않고 직접 나물 뜯고 밥을 하시데요. 그리고 율의(律儀)에 따라 보름에 한 번씩 목욕을 했는데 그때마다 내가 벗어놓은 옷을 깨끗이 빨아주셨어요. 원래 절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인줄 알고 스승님 하시는 대로 가만 있었지. 그런데 하루는 지월 스님의 도반 한 분이 오셨는데 나를 어찌나 꾸짖던지…. 불교가 좋아 출가는 했지만 스승을 어떻게 모셔야 하는지 법도도 잘 몰랐지."

도견 스님은 호롱불을 밝혀두고 누더기 같은 가사장삼과 양말을 깁던 그 시절이 그립다고 하였다. 지월 스님은 누구에게 화내는 법이 없었으며, 그저 하심(下心)하면서 살다 가신 분이라 한다.



"지월 스님을 모시고 일 년 동안 <천수경>과 <초발심자경문>을 배웠으며, 가장 큰 공부인 자비심을 배웠어요. 자비심은 '나'라는 이기심을 없앤 마음이요, 남을 살리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확대되면 남과 '내'가 둘이 아니며, 자연과 내가 둘이 아님을 알게 되어요. 자비가 넘쳐나는 그 마음에서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이 생겨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후 도견 스님은 오대산 상원사에 3년간 머물면서 다른 경전도 공부했지만, 한암 스님으로부터 <금강경>을 주로 배웠다.

"여기 한 물건이 있으니 한 물건이 무엇인고(有一物於此 一物何物)."

도견 스님은 함허 선사가 쓴 <금강반야바라밀경오가해서설(金剛般若波羅密經五家解序說)>에 나오는 첫 구절을 툭 던지면서 "이것도 아주 좋은 화두니 공부할 만하다"고 하신다.

함허 선사의 <금강경>서문과 주석에는 불법의 정수가 담겨있기에 일 천권 정도 인쇄하여 후학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함허 선사께서는 강화도의 정수사에 주석하시면서 <금강경>의 서문을 지었는데 무슨 생각에서인지 그 서문을 축석 쌓는데 넣고 돌담을 쌓아버렸어요. 함허 스님이 돌아가신지 십 년이 지난 어느 날 그곳에서 날마다 방광을 해서 꺼내보니 <금강경> 서문이 나왔다고 해요. 중국의 어느 총림의 방장이 누워서 시자가 읽어주는 험허 스님의 서문을 듣고 화들짝 놀라 일어났다는 일화도 있어요."

한암 스님으로부터 경전과 선을 익힌 후 해인사로 갔다. 해인사에서 삼년결사를 하였는데, 한국전쟁이 일어나 삼년결사가 깨졌고, 그 후에는 범어사에서 동산 스님을 모시고 삼년결사를 하였는데, 이번에는 동산 스님의 입적으로 삼년결사가 깨졌다. 기어이 도를 이루고야 말겠다는 각오를 다졌지만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다 송광사에서 구산 스님을 모시고 열댓 명이 삼년결사를 하였는데 끝까지 이루어낸 사람은 도견 스님뿐이었다. 도견 스님은 평생 동안 오십 하안거를 회향하였으니 선객중의 선객이다.

도견 스님은 "우리들이 천년 이후에 태어나서 어려운 보배를 만나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보니 그 다행스러움이 이보다 큼이 없다"는 함허 선사의 말을 인용하면서 "선공부가 얼마나 재미있는지 모른다"는 말을 거듭했다.

스님은 불자의 바른 도리는 첫째는 자비심을 키워나가야 하며, 둘째는 근본 계율은 꼭 지켜야 함을 강조했다. 남을 위할 줄 알고 자신을 잘 단속한다면 인격의 성숙은 물론이요, 승속이 대접받고 존경받는 사람이 될 것이라 한다.

"중생을 죽이지 않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자비심으로 뭇 생명을 제도하고, 도둑질을 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보시를 함으로써 복덕을 쌓아나가야 합니다. 불음주계(不飮酒戒)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술을 마시는 행위 자체가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술을 먹음으로서 잘못을 저지르기 때문에 금하는 것입니다."

오계 중 무엇하나라도 소홀히 하지 말고 지켜나갈 것을 당부하였다. 도견 스님의 제자 10여명 가운데 해인사 율주 종진 스님과 백양사 율주 혜권 스님 같은 대표적인 율사들이 배출된 것도 이러한 스승의 간절한 가르침이 큰 힘이 되었을 것 같다.

종회의장직을 내놓은 지도 오래고, 십년 넘게 활동했던 원로의원직을 내놓았지만, 도견 스님은 '범불교도 대회'가 세간에 어떻게 비쳐지는지 궁금해 하셨다.

가야산의 깊은 골에 잠시 금빛이 내려앉는 듯하더니 어느새 옅은 먹빛 어둠이 경내를 휘감는다. 그리고 둔중한 법고 소리가 허공을 가르면서 사방으로 흩어진다. 선공부하는 사람들은 거문고를 퉁기는 묘한 손가락은 있으나 음을 감상하는 아름다운 귀(지혜인)를 만나지 못했음을 슬퍼한다고 했다. 혹 누군가가 지금 슬퍼하고 있다면 무엇이 슬픔을 만들고 있는지 한 번 들여다 볼 일이다.

글·사진=문윤정(수필가·본지 논설위원)

50안거 성만, "선공부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

"지계는 수행의 근본", 종진 혜권 등 율사 길러

전통과 실력의 우수업체
범양금고 불전함

기존의 목재 불전함과 크기 및 외관이 흡사하여 금고를 사용한다는 심리적 부담감을 최소화 하였으며 통강판으로 견고하게 제작하였습니다. 특히 투입구의 취약함을 차단하여 더욱 안전하며, 바퀴부착으로 이동 및 설치가 편리합니다. 수시로 훼손되는 목재형 불전함과는 안정성 및 비용면에서 안심하실수 있습니다.

[불전함 야외용 주문 제작 가능] 특허신청중. 주문제작. 전국 택배 가능 (최대 3일이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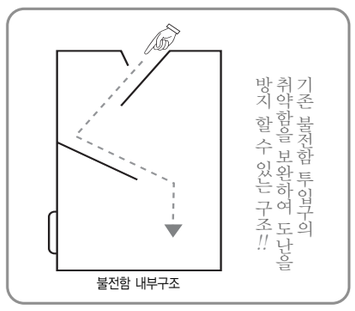
▶70만원
◆ 크기 : 높이700×넓이700×깊이350 / 투입구 : 가로350×세로350



▶40만원
◆ 크기 : 높이620×넓이350×깊이350 / 투입구 : 가로190×세로95

일반 내화금고 (가정용,사무용)도 구입 하실 수 있습니다


BY630 사무가정용 [중량 100KG] 외부 630×500×500 내부 410×360×335
BY670 사무용 [중량 120KG] 외부 670×500×500 내부 450×360×320
BY750 사무용 [중량 140KG] 외부 750×520×500 내부 550×410×340
BY860 사무용 [중량 160KG] 외부 860×580×510 내부 660×460×340


불전함 내부구조
기존 불전함 투입구의 취약함을 보완하여 도난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

범양금고의 모든것이 있습니다
http://bumyang.net
마이산 탑사, 부산 금정사외 계룡사, 보광사, 법성사, 혜림정사 등에서 이미 그 가치를 인정 받고 있습니다.

범양금고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연곡리 172-5
전화 02)2277-1540 / 031)764-6234, 6233
팩스 031)764-6462 / 011-414-2304
[계좌번호] 농협 221103-52-056910 (강순길)
기업 485-005940-01-017 (강순길)



사찰음식의 모든 것

정산 스님 산촌 대표

54 박우거리 조림

박에는 섬유질이 풍부하다. 칼슘이 250mg이나 들어있어 우유의 2배가 넘고 섬유질은 수박의 100배 · 호박의 10배 · 흰쌀에 비해서는 무려 37배나 넘는다. 찬 성질의 박은 몸을 정화해주고 다이어트와 숙취에도 효과적이다. 옛날 궁중요리의 탕에도 모두 박이 들어갔다. 박의 기름기 분해 성분 때문이다.

몸에 열이 나고 가슴이 답답한 증세에는 박을 삶아 먹으면 좋다. 박에는 단맛 나는 것과 쓴맛 나는 두 종류가 있다. 특히 쓴맛 나는 것이 약효가 좋아 갈증을 없애는데 탁월하다. 박은 심장과 폐장을 튼튼하게 하고 팔과 다리가 부었을 때도 효과적이다. 또한 쓴맛 나는 박은 담석증을 치료하는 효능을 갖고 있다.

어린 박을 따 채 썰어 뜨거운 물에 살짝 데친 후 간장·깨소금·참기름으로 양념해 나물을 해도 맛이 좋다. 박이 여물게 익었을 때 따서 절반을 가르고 씨를 뺀 후 푹 삶아 박속을 수저로 떠내고 된장·식초·고춧가루를 넣어 무쳐도 맛있다. 속 떠낸 박은 햇볕에 말리면 바가지가 된다.

조롱박은 멕시코 북부와 북아메리카 동부가 원산지로 수세기 동안 재배됐다. 조롱박 모양에 따라 포란형(nest egg)·배형(pearshape)·이색형·스푼형 및 국자형으로 부른다. 3각형 형태의 잎은 크고 짧은 거친 털로 덮여 있으며 꽃은 크고 화려하다. 암수 꽃이 모두 같은 그루에 피어나지만 수꽃은 암꽃보다 1주일 정도 먼저 핀다.

섬유질 풍부한 박, 몸 정화 및 다이어트·숙취에 효과

심장 폐장 튼튼하게 … 부종 담석증 치료 효능도 있어

조롱박은 열매가 성숙하기까지 오랜 생장기간이 필요하다. 씨는 봄에 서리의 위험이 사라지자마자 따뜻하고 양지바른 곳에 심는다. 물이 잘 빠지는 기름진 토양과 덩굴을 받쳐주는 격자시렁, 담장 또는 벽 등을 만들어주면 흠 없는 열매를 얻을 수 있다. 한국에는 조롱박을 비롯해 박·표주박 및 하늘타리속(Trichosanthes)·루파속 식물들을 관상용 또는 바가지를 얻기 위해 심고 있다. 산촌 (02)735-0312



박우거리조림 재료 : 박우거리, 간장, 물엿, 볶은 통깨.

만드는 법
① 박우거리를 5cm 정도로 잘라서 따뜻한 물에 담가서 식초 맛을 뺀다.
② 진간장에 물을 슴슴하게 탄 후 박우거리와 함께 넣고 서서히 졸인다.
③ 간장 맛이 우거리에 배었을 때 물엿을 넣고 박우거리가 갈색 투명하게 보일 때까지 졸인 후 통깨를 뿌려 그릇에 담아낸다.



금강선원 초중 스님의

뽕잎차 이야기 ❽



"지혜롭게 사는 법 배우러 오세요"

시대가 인터넷을 통해 빠르게 흘러가는 만큼 선(禪)을 알리고자 카페를 만들었다. 선에 대해 관심가진 이들이 하나, 둘 늘더니 어느새 회원이 5000명이 넘었다. 네이버 불교 카페 가운데 2위 규모다. 관심 갖는 이들이 늘다보니 홈페이지도 만들었다. 템플스테이 하려는 이들도 늘었다. 처음 도량을 찾는 이들을 위해 만든 황토방이 휴양과 공부와 더불어 참선 공간이 돼 템플스테이까지 하게 됐다.

금강선원 도량 주변은 볼거리도 많다. 5분 거리의 합천댐은 맑은 물과 댐 주변 풍광이 빼어나 보는 이의 마음을 트이게 한다. 즐겨보던 드라마 '서울 1945'와 '태극기 휘날리며'의 촬영지였던 영상테마파크도 가깝다. 합천 물문화관과 해인사도 좋은 볼거리 · 배울거리다. 금강선원이 전통 사찰로 부족한 부분은 해인사가 있어 든든하다.

우리는 하루하루 세상을 살면서 왜 사는지 생각해볼 여유도 없이 바쁘게 살아간다. 세상을 살면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법, 세상의 사물을 관찰하는 법, 짧은 인생을 살면서 효율적으로 살 수 있는 법을 산사에서 하룻밤 보내며 알아가는 것도 좋을 듯하다.

조용한 산사다 보니 공부하고자 하는 이들이 많이 찾는다. "고시원 가지 뭐 하러 오냐"는 핀잔에도 금강선원을 찾는 이들은 늘어만 간다. 사찰이라 술 · 담배도 금하고 조석예불도 동참해야 하고, 때마다 울력도 해야 하는데 그래도 좋단다.

"집중 안 될 때는 스님이 참선 지도도 해주지 않습니까?" 공부하겠다고 자주 들르는 이의 말에 웃음만 지을 뿐이다. 참선이 공부에도 도움 된다니 그저 감사하다. 사찰의 엄격함을 좇아 자녀 문제로 속 썩이는 부모들이 자녀를 데리고 와 지도해 달라며 함께 머물기도 한다. 자연 속에서 아이들에게 산사의 편안함과 엄격함을 가르치는 것이 할 수 있는 전부이지만, 돌아가는 이들의 편안한 얼굴을 보면 금강선원을 일군 보람을 느낀다.

이번 여름에는 원두막도 만들었다. 템플스테이를 찾아 외국인 등 도량을 찾는 이들이 늘어나니 시원한 원두막에서 추억의 향수를 느끼는 것은 어떨까 해 만들었다. 원두막에서 먹는 수박의 맛은 어린 시절 추억의 한 자락을 안은 듯 기분이 좋다.

해마다 금강선원의 1월 1일은 새해맞이 템플스테이로 분주하다. 유잠산에서 보는 일출은 장관을 이루기에 한해 소망 담아 찾는 이도 많다. 4월 5일 식목일을 맞으면 내나무심기 템플스테이를 한다. 자신만의 나무 한그루는 자연 보호 외에 자신만의 나무를 가진다는 것에서 친밀감을 주어 아이들에게 체험적인 가르침을 전한다. 6월이면 금강선원을 둘러싼 뽕나무 열매인 오디를 주제로 축제가 열린다. 오디축제 템플스테이는 무공해 야생 오디를 마음껏 맛 볼 수 있고 따갈 수도 있어 호응이 좋다.

이 외 뽕잎차가 누구나 만들고 즐길 수 있는 차로 한걸음 다가갔으면 하는 마음에서 뽕잎차 만들기도 준비 중이다. (055)931-9590 (계속)

행복한 삶을 위한, 선과 禪 심신건강 心身健康 ❶ 연재를 시작하며

박지숙 소장 이경재 한·양방 의료센터 삶 명상& 마음치유 연구소

마음다스리는 법 배워 '행복' 이루자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이곳에 왜 존재하는가?

꽤나 거창하고 철학적인 심오한 답이 있을 것 같고, 존재론적인 사유를 답해야만 할 어려운 질문이다. 지금 하기 싫은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이나, 같이 있고 싶지 않은 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야 하는 사람, 너무나 지겨운 자리를 견뎌내고 있는 사람,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 음주가무에 시간가는 줄 모르고 놀고 있는 사람, 사랑하는 이와 다정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 등.

이 사람들은 이유야 어찌 됐던 그 자리에 그렇게 있는 것이 행복하기 때문이다. 정확히 말하면 그 선택을 한 것이 더 행복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놀면서 불편한 마음을 겪는 것 보다 노력의 시간을 선택한 것이고, 불편한 상사라도 그 시간을 견뎌내야 나에게 유익함을 주기 때문에 앉아있는 것을 선택한 것이며, 내 즐거움을 위해 몸이 축나도 음주가무를 선택한 것이다.

결국 인생에 있어 '행복'은 가장 중요한 삶의 화두이자, 우리의 존재 목적이기도 하다.

기왕이면 즐겁고 건강하게

이렇듯 대부분 사람들은 각자 주어진 인생을 행복한 삶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 저마다 노력하며 산다. 목표가 무엇이든, 목적지가 어디든 기왕이면 즐겁게 웃으며 건강하게 살면 좋지 않을까?



그네타는 아이는 손을 놓아야 더 큰 세상을 경험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 가장 우선 돼야 할 것은 바로 우리 '마음가짐'이다. 아무리 돈 많고 명예가 높아도 내가 만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자리가 괴로운 지옥의 자리가 된다. 비록 돈이 조금 부족하고 명예는 없어도 만족하며 살면 그 자리가 즐거운 극락세계다. 이처럼 지옥과 극락세계는 손바닥 뒤집기와 마찬가지로, 한순간 나의 '한생각' 차이로 결정된다.

누구나 긍정적 마음가짐과 바른 한생각으로 매일 매일을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한다. 과연 마음가짐 잘 다스리고 '한생각' 잘하기가 손바닥 뒤집기처럼 그리 쉬운 일일까?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하냐고요?

살면서 자주 듣는 말 가운데는 "일단 참아봐", "화를 잘 다스려야지","긍정적으로 받아들여라"라는 말들이 있다. 하지만 어떻게 참고, 다스리고, 받아들여야 할지는 잘 모른다. 그냥 무작정하려고 하니 잘 될리도 없다. 강을 건너기 위한 수영을 위해서도, 한 골 넣기 위한 축구를 위해서도, 공을 주고받는 야구게임을 위해서도 배움을 통해 습득해야만 할 수 있다.

그런데 평생 삶을 건너는 인생여정에 있어 행불행을 결정할 만큼 중요한 '마음 다스리기'가 어찌 그냥 무작정 될 수 있을까? 반드시 배움과 훈련이라는 과정이 있어야 밝고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바른 한 생각이 작용해 행복한 삶으로 이어질 수 있다. (02)576-7575

(계속)

성불조각원

www.sungbul.co.kr



귀의 삼보 하옵고

저희 성불조각원은 불교 목공예를 전문으로하여 저희가 생산하는 모든 작품에는 작은 못하나 사용치 않고 짜맞춤 공법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간과 수작업을 필요로 하지만 작은 경상 하나라도 대를 이어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작품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초심을 잃지 않도록 여러 대덕스님들의 조언과 질책을 부탁드립니다.



서울 송림원 석가모니부처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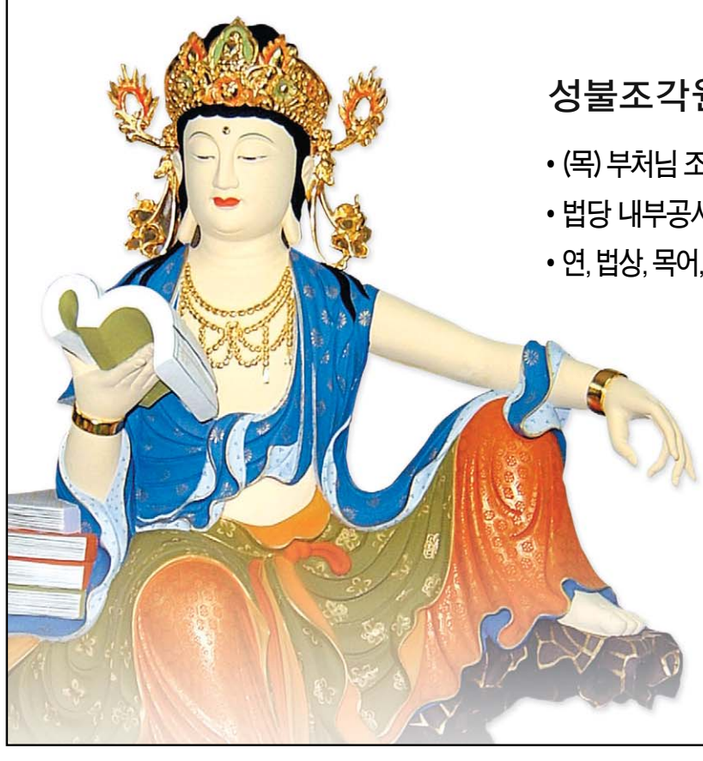
신흥사 천수천안 관세음보살



오대산 상원사 500나한



온양 수암사 지장 목탱화



성불조각원이 하는일

- (목) 부처님 조성, 목탱화, 사천왕, 나한...
- 법당 내부공사, 조각문, 현판, 용두...
- 연, 법상, 목어, 불명폐, 기타 모든 작품 주문 제작 합니다.

※ 작은 일이라도 불심으로 정성껏 상담합니다.

- 전시장 : 강원도 춘천시 칠전동 594-2
- 전 화 : 033)263-1102 / 017-379-0590

김명숙 늘휘무용단

'헌무다례(獻舞茶禮)'

9월 19일 국립국악원 예악당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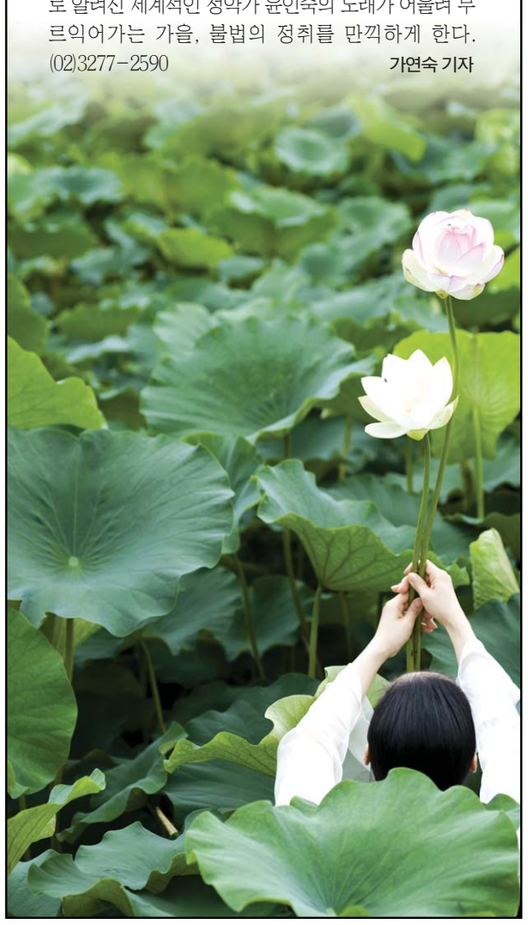
불교의식을 춤의 언어로 표현한다면?

성인의 위업을 기리며 그 정신을 본받고자 정성으로 다린 차를 올리는 '헌다례'를 창작무용으로 선보인다. 창단 이후 올곧이 한국 창작 춤 무대를 지켜온 김명숙(이화여대 무용과 교수 · 늘휘무용단 예술감독) 늘휘무용단은 9월 19일 오후 4시 · 8시 국립국악원 예악당에서 가을 신작 '헌무다례(獻舞茶禮)'를 공연한다.

향 · 등 · 차 · 쌀 · 과일 · 꽃 등 6가지 공양물을 부처님 전에 공양하는 '육법공양' 의식으로 몸짓을 통해 재해석한 '다예표연(茶禮表演)'이다. 손동작의 움직임은 가볍게(輕) · 끊임없이 이어져 나아가는 동작(連) · 부드러운 움직임(綿) · 둥그런 원형의 이동(圓) · 몸과 마음의 온화함(和)을 춤사위로 풀어간다. 옛것을 본받아 새로운 것을 창조한다는 정신으로 한국 춤의 우아하고도 유려한 의식무로 펼칠 이번 공연은 전통의식 속에 발현되는 숭고한 마음을 예술적으로 승화한다.

이번 공연은 김명숙 무용가의 서정미 넘치는 움직임에 불교 전통음악인 '영산회상'이 라이브로 연주된다. 명인 황병기 작곡의 '차향이제'와 연극배우 박정자(대한민국예술원 회원)의 낭송, 작곡가 윤이상 선생의 제자로 알려진 세계적인 성악가 윤인숙의 노래가 어울려 무르익어가는 가을, 불법의 정취를 만끽하게 한다. (02)3277-2590

가연숙 기자





9월 30일까지 성북동 테이크아웃드로잉서

현대미술이 해석한 '심우장과 한용운'

"성북동 허름한 골목길을 따라 걸어 들어가다 보면 북향으로 난 창문에 청빈한 삶이 묻어나는 만해 한용운(1879~1944) 선생의 가택 심우장(서울기념물 제7호)이 있습니다. 마당으로 들어선 순간 선생의 정신을 그 모습 그대로 현대미술을 통해 살리겠다고 마음먹었죠."

복합문화공간 '테이크아웃드로잉'에서 9월 30일까지 트렌드문화와 불교정신이 조우한다. 만해 한용운 선생의 삶과 작품 세계가 현대미술로 재해석돼 누군가의 나른한 오후 혹은 치열한 일상을 잠시 달랜다. 신문사설 · 시 · 노래 가사 등을 구슬과 같은 점으로 기호화하는 작업을 지속해 온 미술가 고산금(이화여대 조형예술대학 서양화)이 펼치는 '만해 한용운 연구'展 이다. 한용운 선생과 가택, '심우장'에 떠도는 시대정신으로 초대한다.

사람들 발길이 닿지 않는 심우장처럼 오래된 유물을 현대에 재해석하는 작업은 외롭다. 현대미술가에 의해 작품화된 '님의 침묵' '가갸날에 대하여-동아일보·1926' '여성의 자각이 인류해방요인-동아일보·1927' 등은 관람객으로 하여금 다양한 관점의 추측을 시도하게 한다. '님의 침묵' 초판본을 펼쳐 과거의 쩌렁쩌렁한 정신, 이 시대에 다시 주목해야 할 인물로 '한용운'을 재발견한다.

"이번 전시를 통해 심우장과 한용운 선생의 작품 세계와 사상을 전이(轉移)하여 시각적으로 재조명합니다. 1930년의 개화기 언어를 21세기 아이콘으로 단순 합리화해 그 의미를 전달하죠. 현실의 문제에 능동적으로 직면했던 선생이 불교 정신을 바탕으로 민족 시인으로 거듭났듯 그의 정신을 무한대로 확장시키고자 합니다."작가의 전시의도다. 작가는 시의 느낌과 심우장의 개념을 추상적인 기호화의 설치로 반영하는 과정이 어려웠다고 말한다. 공통의 문자 개념을 넘어 지극히 개념적이고 사적인 기호 체계로 접근하는 이유다.

한용운 선생은 1920년대 감상주의를 배제한 선지식으로 불교적인 '님'을 자연으로 형상화하며 고도의 상징법을 구사한 '님의 침묵'을 완성했다. 일제에 저항하는 민족정신과 불교에 의한 중생제도를 노래한 시로 선생의 차가운 열정을 메탈 소재를 통해 표현했다.

작품 '여성의 자각이 인류해방요소'의 경우 신문에 기고된 선생의 글을 치밀한 코바늘 뜨기 기법으로 선생의 내면을 표면에 내세운다. 코바늘 기법은 그녀의 일종의 '산수' 개념이다. 진보적인 신여성을 인정하고 글에 담긴 여성성의 부드러움을 살리는데 탁월한 소재다.

한용운 선생이 불성을 찾는 '심우(尋牛)'의 주체로서 스스로를 다독이듯 작가 또한 한용운 연구 작업을 통해 내면의 자아와 시대정신의 교감을 모색한다. 선생이 심우장을 지을 때 '총독부와 마주보기 싫다'하여 고의로 북향을 선택한 것처럼 전시공간의 모든 인테리어는 북향을 향하고 왜곡된 '메탈시트'를 통해 남향의 풍경을 반사했다.

각각의 사람들이 느끼는 관점의 다양함이 표출하는 다의적인 의미를 거부하지 않고 인정하는 작업을 통해 해석의 또 다른 가능성을 제안한다. 작가가 시도하는 언어의 확장은 일념을 통한 나름의 결론으로 개념과 노동이 지닌 작업과정을 강조한 집약의 결정체다. (02)745-9731

가연숙 기자 omflower@buddhapia.com

천에 수(繡)놓은 미얀마불교

한국불교미술관서 9월 28일까지

불탑과 승원의 나라로 국민의 89%가 불교신자인 미얀마.

종로구 원서동 소재 한국불교미술박물관은 9월 28일까지 불교의 나라 미얀마 '벽걸이 수(繡) 장식 특별전'을 제4전시실에서 개최한다. 지금껏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은 미얀마의 불교세계를 소개하는 전시로 작품 30여점을 선보인다. 동남아시아는 예부터 직물 공예가 발달한 나라로 조상을 향한 마음 · 종교 · 문화 등 불교 설화와 사상을 천위에 자수로 표현해 왔다.

석가모니 붓다 전생에 선행을 베푸는 내용을 묘사한 본생도(本生圖)를 비롯해 불보살 설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화려하게 수놓아진 미얀마의 장식문화를 감상할 수 있다. 수 장식 작품 외에도 미얀마의 불상 설법단 등 불교 미술품 6점도 함께 전시해 미얀마인들의 삶과 신앙의 면모를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02)766-6000

가연숙 기자

사찰로 찾아가는 연극 '한바탕 꿈인 것을'

대전 · 울산 등 전국순회

"불교 언어들이 어렵고 난해하다고만 생각해왔죠. 공연 연습을 하면서 '나'라는 인간이 얼마나 미약했고 또한 얼마나 위대한지 깨달아갑니다."

창작연극 '한바탕 꿈인 것을'(작 · 연출 정광진)은 나 자신을 위해 질주하는 한 평생 삶의 무상을 담은 연극이다. 주인공(선우·무명 스님) 배역을 맡은 배우 이정성씨는 "인간은 욕망과 집착에서 하루도 벗어날 수 없고 그래서 항상 고통스럽다"는 소감을 전한다.

사찰로 찾아가는 연극으로 진행되는 '한 바탕 꿈인 것을'은 10월 2일 대전, 3일 청주, 19일 울산, 11월 1일 춘천 공연을 앞두고 현재 맹연습 중이다. 과거의 기억과 집착에 사로잡혀가는 현대인의 일상을 비추며 고즈넉한 산사에서 펼쳐지는 무대 위의 설법이다. 바닷가 작은 암자 해탈암을 배경으로 무아의 마애불과 마주하는 특별한 나들이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010)8975-5631

가연숙 기자

다음 카페에 스님이 만든 원주생식을 쳐보세요!
효학검색 스님이 만든 원주생식 검색
생산물배상책임보험(동양화재해상보험)가입
ISO9001품질인증업체



스님이 만든 **원주생식**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준비하세요!

자연의 맛과 영양을 그대로 전하는 **원주생식**
원주생식에는 63여 종류가 들어 있어 자연 그대로의 영양을 전합니다. 특히 원주생식에는 한약재, 제소류, 해조류가 70%나 들어 있어 당뇨 및 간염에 좋습니다.
▶1일 1끼 1포(40g)×60포(2개월분): 80,000원

곡류 50%를 발아시킨 **원주발아생식**
원주발아생식에는 발아 제품의 맛과 영양을 그대로 우리 몸으로 전하며 일반 발아 생식과는 차별화 하였습니다. 비만으로 고민하시는 분 및 두뇌개발에 적합한 생식입니다.
▶1일 1끼 1포(40g)×60포(2개월분): 80,000원

검은 콩, 검은 깨, 검은 쌀의 영양 **원주뽀선식**
100% 국내산 원료를 사용하여 검정팥, 검은콩, 서리태, 검정깨 및 소백해아, 한약재와 등을 복식 혼합 제품입니다. 아기들 이유식 및 노인들 영양간식에 좋습니다.
▶1일 1끼 1포(40g)×60포(2개월분): 90,000원

한약재가 듬뿍 들어있는 **명품 참생식**
원주참생식은 원주생식의 효능을 한단계 높인 생식으로 엄폭소, 효소 비타민, 미네랄, 씨눈, 섬유질 등이 그대로 살아 있으며 한약재가 듬뿍 들어 있어 건강을 위한 명품 생식입니다.
▶1일 1끼 1포(40g)×60포(2개월분): 90,000원

원주생식 더욱 맛있게 드실 수 있는 방법 요구르트 1병+우유 200cc+원주청국장 1스푼+원주생식 1봉

주문처: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동 산 28-3
우체국 703314-01-001873 (예금주 : 무상사)
소비자 상담실 (053)958-5921

김문기 박사의
통증킬러 수정기공-STT

의학의 본고장 독일인들을 경악시킨 차세대 치료법. 진통제, 물리치료, 주사, 침, 한약, 비방, 교정법이 모두 필요가 없는 환상적인 기공요법 (S.T.T)

수정기공요법을 알면 귀하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통증 및 마비 종합 치료편 탄생!!

특징
1. 기공수련도 없고, 배움이 어렵지 않습니다.
2. 힘이 들지 않습니다.
3.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4. 경비가 하나도 들지 않습니다.
5. 즉석에서 효과가 나타납니다.
6. 기구나 재료가 하나도 필요가 없습니다.
7. 사술이 아닌 서양의학과 동양기공의 만남으로 환상적인 자연 그대로를 연출하는 요법.

시술 대상
두통, 경항통, 구안와사, 안검하수, 목 디스크, 오십견(부위별), 테니스엘보, 늑간신경통, 복통, 요통(부위별), 꼬리뼈교정, 요두증, 사경증, 치아교정, 유방교정, 허리디스크, 좌골신경통, 생리통, 퇴행성관절염, 족관절염, 족저통, 발가락변형, 중풍, 뇌성마비후유증, 전신장애 등등 수술을 제외한 전신의 모든 통증과 신경장애에 탁월한 효과 입증 이외에 600여종으로 병원에 치료가 불가능하였던 종목 수록.

비엔나 종합병원에서 임상결과 확실한 효과를 입증하는 **인증서 획득**

- 교재주문 : 수정기공크리닉 (일금 75,000원)
- 온라인 번호 : 농협 162-02-025918 (예금주 : 김문기)
- 속성강의 접수 : 1개월 과정
  (매월 첫째 주 시작 단 4일에 모든 과정을 필함, 선착순 8명)
- 참 고 : 홈페이지 SOOJUNG99.PE.KR 또는 수정기공크리닉.COM
- 장 소 : 수원 성대전철역 앞 전화 031)293-0806
  296-7806

〈부처님의 제자들〉과 함께하는
한글니까야독송회 "맛지마니까야" 독송 법회 안내

동산반야회 한글니까야독송회에서는 부처님 당시 생생한 육성법문인 범어 경전 5부 니까야(디카니까야 · 쌍윳따니까야 · 맛지마니까야 · 앙굿따라니까야 · 쿳다카니까야)를 중심으로 경전을 독송하여 부처님의 생생한 말씀을 전부 읽는 신행결사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동안 5부 니까야중 쌍윳따니까야 3권 독송을 마치며 가을 맞이 특강법회를 9월 〈부처님의 제자들Ⅱ〉과 10월 〈맛지마니까야〉 독송으로 함께 하고자 합니다.

맛지마니까야는 부처님의 〈수행의 발자취〉를 만날 수 있으며 모든 대 · 소승불교교리의 원천이 되는 가르침들과 반야부의 중심사상인 공과 중도사상의 원형이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교재제공	개강일시 및 장소	지도법사
부처님의 제자들Ⅱ (번역/오원탁)	9월 4일 매주(목) 오후 7시 동산법당	이미령 교수
맛지마니까야 Ⅰ (번역/전재성)	10월 2일 매주(목) 오후 7시 동산법당	

동산한글니까야독송회 |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0 ☎ (02)732-1206
www.dongsanbud.net

웃음보살 불등거사 <14>

구성 : 김흥인



어떤 왕의 어리석음 [백유경(百喩經)]



옛날 어떤 국왕이 딸 하나를 낳았다. 왕은 의사를 불러 "공주에게 약을 먹여 빨리 자라게 하라"고 하니 의사는 "곧 크게 하는 약이 있으나 당장 그 약을 구할 방법이 없다. 약을 얻을 때까지 왕께서는 공주님을 보지 말아달라"고 했다. 의사는 12년 뒤에 약을 갖고 돌아와 공주에게 먹인 후에 왕에게 보였다. 왕은 "참으로 훌륭한 의사다. 공주를 갑자기 자라게 하다니." 왕은 보물을 주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모두 왕을 비웃었다. "공주가 12년 동안 자란 것은 알지 못하고 그 장성한 것만을 보고 약의 힘이라고 말한다."

세상 사람들도 그와 같아서 선지식을 찾아가 말하기를, "나는 도를 구하려고 합니다. 원컨대 나를 가르쳐 당장 선지식이 되게 하소서" 한다. 스승은 방편으로 그에게 좌선하면서 열 두 가지 인연[十二因緣]을 관(觀)하게 하고, 온갖 덕을 쌓아 아라한(阿羅漢)이 되게 한다. 그러면 그는 크게 기뻐한다. "훌륭하시다. 스승님은 내게가장 빨리 묘한 법을 증득하게 했다"고.

옛 판화의 세계

병든 유마거사를 문수보살이 문병하다

문수문질(文殊問疾) 유마시질(維摩示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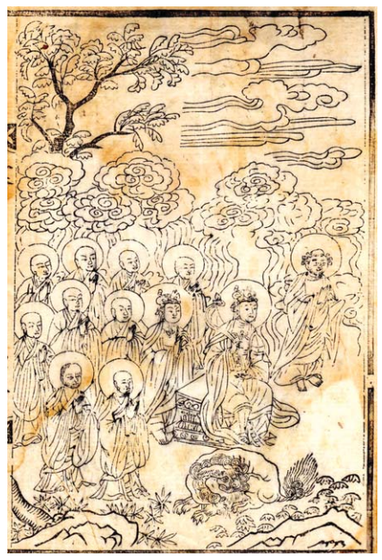
이 삽화는 석씨원류에 등장하는 삽화 가운데 연관 있는 앞뒤 장면을 한 장면으로 합친 것이다. 오른쪽 장면은 유마거사가 병문안온 사람들에게 질병에 관해 설명하는 장면이고, 오른쪽 장면은 문수보살이 유마거사를 병문안하는 장면으로 구성됐다.

본문을 살펴보면 "<유마힐경>에 이르길, 이때 유마힐은 몸의 질병과 인연해 자세히 설법하여 일렀다. 여러 어진사람들이여! 이 몸은 무상하다. 강한 것도 없고 힘도 없고 굳세고 단단한 것도 없다. 그리고 속히 썩어가는 법은 믿을 수 없는 것이다. 고통으로 고뇌하는 까닭에 온갖 병이 모여든다. (중략) 이 몸은 깨끗하지 않고 더럽고 악한 것이 몸 안을 가득 채우고 있다. 이 몸은 허위라서 비록 짐짓 목욕하고 옷 입고 밥 먹는다 해도 반드시 마멸로 돌아가고 만다." 본문에서는 우리 몸이 무상한데 영원한 것으로 집착해 병이 생긴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법했다.

왼쪽의 문수문질의 본문은 "<유마힐경>에 따르면, 문수보살에게 유마거사가 대답했다. 어리석음으로부터 애욕이 있습니다. 이것이 곧 제게 병이 생긴 원인입니다. 모든 중생들이 병들었으므로 병들었습니다. 만약 모든 중생들이 병들지 않는다면 제 병도 소멸될 것입니다. (중략) 이에 문수보살이 다시 물었다. '마땅히 어떻게 질병 있는 보살을 위로해야 합니까?' 유마거사가 대답했다. (중략) 마땅히 모든 중생들에게 풍요한 이익을 줄 것을 염원해야 합니다. 닦은 복업을 기억하고, 청정한 목숨을 염원하며 근심과 고뇌가 생기지 않아야 합니다. 항상 정진하는 마음을 유지해 의왕이 돼서 중생들의 병을 치료해야 합니다. (하략)"

이 본문에서 유마거사의 생생한 보살정신을 읽을 수 있다. 대승불교의 이상적인 수행자상을 보살이라 말한다. 보살은 보디히사트바(Bodhisattva)라는 산스크리트어를 보리살타(菩提薩陀)라고 음사한 것을 줄인 것이다. 보디(Bodhi)는 깨달음을 뜻하고 사트바(Sattva)는 중생을 이르니, 깨달음을 구하고자하는 중생이 보살이다. 보살은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구하는 일(上求菩提下化衆生)을 이념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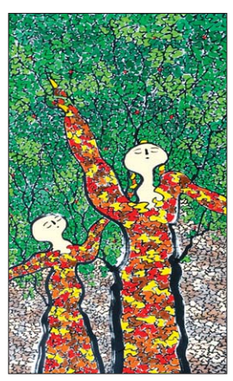
선학 스님(명주사고판화박물관장)





석씨원류(釋氏源流)중 문수문질(文殊問疾)편(왼쪽),
유마시질(維摩示疾)편(오른쪽 불암사판 1673년간행, 반곽(半郭) 27.2×18.0㎝

허허당의 세상만사



■ 共生

앞을 보니 앞산이요
뒤를 보니 뒷산인데
앞산과 뒷산이 마주하니
중생과 부처가 함께 푸르구나

혜인 큰스님 보살계 수계
선상영가천도와 방생 대법회



일 시 : 불기 2552년 9월 23일 관음재일
(하루만 시간 내시면 됩니다.)
가는곳 : 제주도 약천사, 법화사, 관음사
일 정 : 9월 22일 저녁 6시 연안터미널 설봉호 승선(배에서 1박), 석식
9월 23일 아침 7시 제주터미널 도착 – 법화사 참배(조식)
약천사 수계법회(중식) – 관음사 참배
저녁 6시 제주터미널 설봉호 승선(면세점 이용가능)
– 배에서 1박, 석식
9월 24일 아침 6시 부산 도착 – 해산

4대기도
제 1기도 : 선상법회 – 선망부모 영가천도재 일체고혼 천도재
제 2기도 : 방생법회
제 3기도 : 제주 3사 순례 참배기도
제 4기도 : 수계법회(전계 법사 : 약천사 회주 혜인큰스님) – 수계첩 증정

동참비 : 1인당 10만원 ※계좌번호: |부산은행| 188-01-000061-2 (예금주: 이정민)
접 수 : 051-809-1420 불광사 종무소
(※접수시 승선에 필요한 주민등록번호 및 수계에 필요한 인적사항 요함)

주최 : 대한불교 조계종 부산 가야 대원사 (가야공원 내)
주최 : 대한불교 조계종 부산 초읍 불광사 (어린이대공원 옆 초연중학교 뒤)

세계로 가는 서병후의 불경영어 · 천수경
수리수리마하수리
THE THOUSAND HANDS SUTRA
Mystical Gateway to Happiness and Enlighten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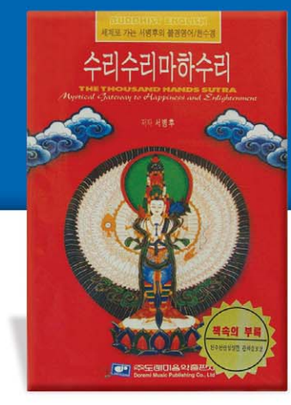


보다 활발한 한국 불교의 해외 포교, 그리고 신세대 지식인들에 의한 넓은 시야의 불교 공부와 수행을 위한 기본적 불경 영어 가이드로서 기획된 이 책은 천수경을 첫 텍스트로 했습니다.
영어화된 산스크리트어는 영어로 다루고, 그 표기도 표준적 국제 시스템에 따랐습니다.

자비와 깨달음의 감로를 내려주시는 천수천안 관세음보살의 구원의 염원이 담긴 천수경의 신비스런 비밀공식이 우리들 앞에 펼쳐집니다.

오랫동안 국내외에서 불교를 연구해 왔고, 풍부한 영어교육경험을 갖춘 필자가 선사하는 최초의 영어완역 천수경과 현대적 시각의 주해, 통쾌할 정도로 행간을 꽤뚫는 새로운 해석은 우리들을 감동케 할것입니다.

책1권, 오디오테이프 3개포함
20,000원 → ₩ 14,000원
저자 서병후 | 156쪽 | A5
출판사 : 도레미음악출판사



온라인 책방 여시아문
02)737-0695

불자생활정보 | 전면광고 | 21

▷ 문의 : TEL 02)2004-8219, 732-1522 , FAX 02)737-0696 / e-mail: parkwonbum@yahoo.co.kr
▷ 가격 : 1Box(4.4×4.4) 4만원, 1Box(9×4.4) 8만원
▷ 계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주)현대불교신문사
▷ 원고마감 : 매주 월~수요일(입금을 하셔야 광고 게재가 가능합니다)

유명 표구사
불자가 운영하는 유명표구사에서는 불자님은 물론 스님의 작품을 삼보전에 공양 올리듯 정성껏 표구해 드립니다.
대표장인 이종부 합장
▷전국 택배가능◁
서울 은평구 응암3동 응암5거리 (지하철6호선 새절역 1번출구)
02)374-9886
BBS 퀴즈대장경 신행상담 코너 - 달마도 표구 협찬(8년)

전통사찰 등록 문화재 등록 법인 등록
"비법인 설립"
(서류대행)
성산개발
011-9476-9001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소서
011-850-0176

빙의퇴치 비법전수
신병 · 불치병 고쳐드림
30년 경력 혜봉스님
부처골 지장선원
054)383-8553

전통불교 문화예술대학
문화재9호 영산작법무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태평소
사찰행사 문의
영산재 천도재 49재 점안식
011-9317-6686 (부산)
금정사 대명 합장

역학개인지도
한문과 용신격국 몰라도 물상으로 철학 배우면 바로 상담할 수 있음
역학을 물상으로 실제 감정 위주로 배워 영가 빼내어 천도재 지낼 수 있음
(주지스님 직강)
051)333-3258
011-591-5277

각종 불공 범음 · 범패전문
점안식, 49재, 천도재, 구병시식
영산재, 수륙재, 각시식, 불교의식,
사물, 바라나비춤, 명리활법
실전 위주 교육. 학인행자모집
031)953-3328
011-9923-3329
대광명사 (동양불교대학)

역학비밀 출장 개인지도
초보자도 30일이면
사주를 통달할 수 있는
옛스님들의 비법을
시원히 전수해 드림
(비구, 비구니, 일반인)
010-5668-5775

역학무병건강비법전수
- 2박 3일 체험 코스 -
1.구궁 당 주역/간단 비법 전수
2.난치병(스트레스,비만,혈압,당뇨,암..)
근본치유 예방, 무병 건강 양생법전수
052)264-8183
011-855-8180
건강 도인촌 신불정사 무구 합장

스님 되시렵니까?
45세 이하 결심 된분
전화 주십시오
02)584-8844
011-354-8484

불교전통 불공의식(범음,범패)
해드립니다
천도재, 49재, 점안
각종불공
(바라춤, 승무)
010-2200-8176

보살선방
• 1인1실 : 방1, 주방, 거실, 욕실
/ 방1, 주방, 욕실
• 부부실 : 방2, 주방, 거실, 욕실
절에서 수양하며 기도하고
불교공부하면서 노년을 보내실분
(일부시주금 내시고 종신재)
불광사 · 불광대학
053)656-6766

초혼 · 재혼 · 국내 · 국제
대졸 초 · 재혼, 신원확실
직장인, 공무원, 사업가
국제, 필리핀, 베트남, 한족
재혼 70세까지 전화상담환영
02)312-5004
017-766-6888

좋은일이 있으니
연락바랍니다
• 오심스님(강원도 만덕사)
• 법진스님(숙명:최승규)
• (속명:구권수)스님
※찾는사람 : 법광(김성화)
010-9310-7089

氣
★ 그대는 이미 천지를 얻었다 ★
흥망성쇠 성질감정 조절지도 훈련
풍수명당. 시험합격 기도터 성지
운의흐름 개운시기 전생 우울증세
장단기수행지도 단체 개인훈련
불교강좌. 출가희망자 선발 공양주
안성백마사 031)674-7188
백마사불교대학 017-203-9400

신심있는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경주 보광사
016-300-8150

급 모
부전스님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011-9342-9850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011-9350-3216

약사기도도량 약천사에서
같이 도량을 운영할
비구니 스님을 모십니다
비구니 행자 구합니다
(30대 후반 40대 초)
▷전남 구례군
061)781-6328
017-621-6328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50-60세)
▷경주
011-9562-4457

불사 같이하실
보살님 모십니다
법랍 25년, 50대
중반 비구승입니다
(명리학,침구학,최면학)성업중
부산 경남에서 하고자 함
010-2945-7704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031)335-2576
011-270-2675

산세좋은 곳에서
함께 하실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부부도 가능)
011-639-0075

행자(35세아하) 및
공양주보살님
구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사찰)
017-570-2050
011-388-6275

비구니 부전스님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010-2748-3004

사주운세 10초 내 맞추면
통장입금하시고 상담하세요
명리학 [사주첩경통달 이석영저자]
명리학 질문 10초내 답변
(만세력 책없이 5초 이내에 두뇌로 일주 통달, 양력)

서울이나 서울근교에
있는 보살님이 창건한
사찰(포교당)에서 무보
시로 기도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역학 잘함)
▷법랍35년,40대후반 비구승
010-2014-3478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충남
010-3191-9668

절이나 절 지을터
싸게 보시하실분
연락바랍니다
011-307-4223

기도스님
모십니다
▷의정부 불암사
031)842-7684
011-353-7684

청정한 수행도량
에서 신심있는
보살님과 女행자를
구합니다
▷수원소재 사찰
010-9336-2568

청정계곡물 약사여래
기도도량에서 함께
도량을 운영할 평생도반
비구니스님(40대 중반) 과
화주보살님 모십니다
▷경북 봉화
010-9518-3177
042)272-3177

격국 · 조후 · 통관 · 용신 · 신약 · 신강 신경쓰지 마세요.
핵심은 년 · 월 · 일 · 시 와 지장간 전체의 대흐름 판독입니다.
조상의 흐름이 잘못되면 이름모를 질병, 재난, 가출,
부부간의 갈등, 혼사지연, 부모와 자식간의 불화,
학업성적부진 등 명리학으로 원인을 찾아드리고
퇴마와 천도방법을 상담으로 알려드립니다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진해 성흥사
055)552-5111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서울
010-9478-9607

수중촛대 2008년 9.5 ~ 9.8 한국불교 박람회 출품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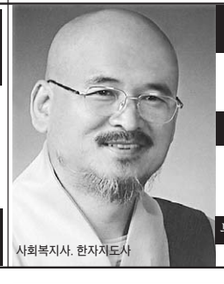
특 징
1.물속에서 양초가 타므로 화재위험이 없습니다.
2.촛불이 50시간-56시간 타므로 초 절약 됩니다.
3.촛농과 그름이 없고 공기정화 및 가습기능



만 행 화 011-9000-5715 / 02)733-5715

역 학 공 부
• 사주 + 궁합 + 택일 + 작명 : 초중급(월요일) 18:30
• 관상 · 풍수 : 매주 수요일 18:30
• 인터넷 동영상 강의: 사주+궁합+택일+작명(초급부터 완성까지)=45만원
www.kbs.cc 풍수, 관상, 육효, 자미두수, 수상/수료증 자격증
한국역학협회 관일학원 월간역학교육원
동대문운동장역 4번 출구 도보 2분. 전화 1688-1137

대방등 대집경 특별강좌
● 강좌내용 : 28숙 ● 대상 : 승려에 한합니다
● 신병(신을 받아야 된다는)이 28숙 기도로 해결됩니다
● 위치 : 부천 북부역 소명 4거리 3층
☎ 02)926-1259 / 011-741-0867


사회복지사. 한자지도사

진각스님 명리 철학교실
아기 이름을 예쁘게 작명
문의 051) 867-8438
진각 심리상담 아카데미
"鬱"막힐 울, 답답할 울, 성낼 울, 걱정할 울, 원망할 울.
우울이란 마음이며, 마음을 다스리는 행복한 마음을,
상담이나 최면을 통해서 찾아봅니다.
부산시청 뒤 거제리청과시장에서 양정쪽 150m 삼화탕 앞 송광정사

행자 (예비스님) 모십니다
● 성별 : 남자 ● 학력 : 고졸이상
● 연령 : 48세 이하
● 1인1실 및 개성존중의 민주적 수행
● 산중 감포분원 및 대구큰절 중 택일
● 수행, 공부의 모든지원,
최적의 교육 분위기, 자율적 시스템
● 행자문의 : 010-2488-8228
◇ 대구 도심 사찰 최초 납골당 운영 ◇
● 최첨단 시설, 편리한 교통,
한발 앞선 장례문화 시설!!
● 언제나 염불, 기도소리 들리는 법당안에
모셔져지므로 천도에 아주 좋습니다.
● 설 · 추석 · 제사천도 · 기일에
천도 축원해 드립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053)474-8228 www.TVbuddha.co.kr

011-498-5067/02)826-5067
031)774-5067 (토요일 10시 ~ 일요일 4시까지)
〔통화관계로 방문 사절〕
하나은행 361-810554-63707 김진동

탈 종 공 고

● 사찰명 : 묘각사
● 주 지 : 서봉스님
● 주 소 :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명달리 294-1

상기사찰 및 본인은 귀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총무원장 법하

탈 종 공 고

● 사찰명 : 극락정사
● 주 지 : 석정 (조운행)
● 주 소 : 충남 연기군 전의면
양곡리 100-4

위 사찰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3일

대한근본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법하

패철 보는법



나경은 나침반이다. 복잡하거나 어려울 이유가 없다. 누구나 이 책 한권이면 하루밤에 나경 사용법 뿐만 아니라 음택, 양택, 수맥, 명당 잡는 법까지 확실히 배울 수 있다.
문학박사 전용원 저. 표지본문 전체 올칼라 46배판 영구보존 정장본. 정가 25,000원. 할인가 22,000원 무료배송. 이 책 구입한 분 www.kbs.cc에서 나경 사용법 강의 무료시청. 주문전화: 1688-1137.
하나은행 388-910003-23704 한국역학협회

사주상담으로 고민하십니까?
이제 일주일 공부로 끝내십시오.
일주일 후 변화된 당신을 확인하십시오.

四柱비법 전수 (제2기)

1.교육내용 : 사주, 신수 (월운 · 일운 · 시운)
성명학,택일,이사방향
2.일주일 과정 : 6박 7일, 숙식제공
◆ 개강 : 2008년 9월 22일(월요일) 오후 2시
◆ 종강 : 2008년 9월 28일(일요일) 낮 12시
3.교육장소 : 의정부시 소재 비룡정사
4.모집인원 : 10명(전화상담 후 선착순)
5.수 강 료 : 일백이십팔만원정
[농협] 552-01-047918 대한불교 비룡정사
6.교육대상 : 스님, 포교사, 또는 희망자

▷별도모집 : 최면, 전생요법, 빙의퇴마, 과정

상담문의 : 031)842-8023 / 011-772-4606
서울 지하철 1호선 의정부역 200미터 거리
비 룡 정 사 제행 스님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 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기본 규격 50,000원
규격 5× 7cm 70,000원
규격 5×10cm 100,000원
● 계좌번호 : 국민은행 222-25-0005-381
농협 053-01-269088 (주)현대불교신문사
● TEL 02) 2004-8219 / 02)732-1522 (直)
FAX 02) 737-0696
● 원고접수기간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 e-mail : parkwonbum@yahoo.co.kr

사 찰 안 내

● 사찰,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 은행 · 일반융자 좋은 조건으로 알선해 드립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암자, 기도원, 연수원, 명당터 확보함

사찰(대가람)안내

마이 부처바위 출현(보물급) ※자연석 높이 15 M, 가로 50M

● 건물 : 법당 및 요사채, 기타건물 400평(6동)
● 대지 2500평, 임야 12000평
● 사찰 내 유명 약수터(100년생)
● 도량 주변 칠보석 다량 매장
● 30년생 주목, 단풍나무 다수
● 심산 유곡, 주변 직벽암반 경관 최고
● 계곡 폭 25M, 전면 300M
● 버스진입 가능(12M 도접)
● 가액 : 6억

부산 사찰전문 연산공인중개소
직011)560-8522
051)863-6622
※부산 대형사찰 및 임법당 · 포교원 · 사찰부지 다량확보 1억에서 부터 세무상담 및 소유권이전 대행 무료상담 서비스

사찰터 안내

● 위치 : 양산시 하북면 백록리
● 평수 : 700평
● 통도사,내원사에서 10분거리
● 가액 : 평당 50만원(절충가능)
011-558-6130
055)867-1610

포 교 당 구합니다

● 부산시내에 있는 50평이상의 포교원을 구합니다
010-3592-3631

포교당 안내

● 평수 : 108평
● 보증금 : 1000만원
월세150만원(전세2억)
● 시물권 : 2000만원
(실비 9000만원투자됨)
● 구미시 최고요지임
● 꼭 하실분만 연락주세요
010-2013-0082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북 포항시 덕산동
● 평수 : 35평 2층
● 법당 : 작은방 2개 공양간
● 보증금 200만원 월 32만원
시설비 1300만원
● 시설 최고급
016-436-6579
054)241-1008

사찰(급)안내

● 위치 : 전남 함평군 대동면
● 대지 391평(사용가능 땅 600평)
대웅전 : 35평
요사채 방5개,부대시설 일절
● 영광불갑사까지 이어지는 산세
● 2억2천만원(절충가능)
010-6654-1600

포교원(급)안내

● 위치 : 대구시 남구
● 4층건물중 2층(42평)
● 법당 35평, 비품일절양도
● 몸만 오시면 즉시 법회가 가능함
급한 사정으로 인하여 저렴하게 양도함
● 보증금 500만원 / 월 45만원
시설비별도 답사후결정
010-7496-3312

포교당(급)안내

● 위치 : 부천시 역곡동
온수, 역곡역에서 10분거리
● 법당 2층, 약 20평
● 방1, 화장실
삼존불 및 각단탱화, 도시가스
● 보증금 500만원 / 월 20만원
시설비 1200만원(조정가능)
02)345-3779
010-4517-3779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북 옥천군 돈의면
● 대지 450평(등기필)
● 기와법당 20평(2층)
● 요사채 40평, 창고 15평
옥외 화장실 6평
● 6층 석탑(제주 돌)
● 불필요 전화 사절
● 가액 : 방문시 절충가능)
010-3791-7037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남 해남군 현산면
면소재지 바로옆동네
● 100여가구 사는 마을 맨
뒷집(산자락)
● 대지 : 350평 임법당 32평
(살기좋은곳)
※직접 방문해 보시면 첫눈에 ok
● 가액: 7000만원
011-621-9549

포교원 안내

● 위치 : 서울 강서구 전철역 옆
● 평수 : 약 40평
● 포교 최적지, 시설완벽
● 보증금 1천만원 월 70만원
시설비 절충
011-526-0967

사찰터(급)안내

● 위치 : 경남 창녕군 창녕읍
여초리 화왕산 사찰터
● 평수 : 임야 관리지역 12,792평
농림지역 31,337평
총 44,129평
● 가액 : 2억 7천만원(급매)
017-570-1600

사 찰 터 안 내

● 위치 : 경북 상주시
화서 IC 3분거리 도로접
● 대지 680평, 건물 25평
현 임법당 사용중
● 산밑 양지바른 암자터
● 가액 : 7800만원
010-5015-3827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금정구 금사동
사거리 부근
지하철 내년 완공예정
출입구에서 도보 2분거리
● 총평수 87평, 주차장 42평
● 2층법당, 1층 요사채, 방4칸,
거실1, 미니다락
● 삼존불,탱화및비품일체포함
● 즉시법회가능
● 가액 : 3억 5천만원
010-9809-5006(직접)

사찰 암자터 안내

● 위치 : 경북 성주군 선남면 관화리
● 대지 : 568평, 건물 3동(가건물)
● 특징 : 계곡접, 저수지
노송 풍수, 수려함
● 교통 : 대구시에서 20분거리
성주대교 7분거리
● 가액 : 1억 7천만원
(답사 후 절충)
017-804-1234
053)627-1234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부산 가장 대변 입구 2주공 앞
● 2층 건물중 2층 35평,
● 주차장 완비, 모든시설 최상급
● 보증금 2,000만원 월 35만원
시설비 2,500만원
답사후 절충 가능
051)721-8359
010-4870-8359

토굴(터)안내

● 위치 : 경북 봉화군 석포면석포리
● 밭 3,200평, 백두대간 자락
● 포장 진입로, 약수 있음
● 가액 : 6천만원
* 토굴이 필요하신분만 연락바람
010-4920-3108

사찰(급)안내

● 위치 : 충북 보은군 보은읍
이평리 산 14-1
● 연력 50년, 바위에서 나오는 생수
● 대지 250평, 전답730평(국유지)
법당목조12평,요사채황토기와집
방5,등기필,조립식 한동
● 가액 : 1억 5천만원
018-406-3073

사 찰 안 내

● 위치 : 강원도 횡성 IC
10분거리 이내
● 평수 : 5,800평
● 법당 3동, 요사채 5동, 창고 1동
● 가액 : 22억
010-8507-9909

토 굴 안 내

● 위치 : 대구 팔공산
● 대지 75평
● 목조한옥 30평
● 세면장, 화장실 별도
● 사용가능한대지 150평
● 가액 : 1억(절충가능)
010-7446-0277

포교당(급)안내

● 위치 : 부산 수영 동사무소 옆
(팔도시장)
● 건평:45평
● 즉시 법회 가능하며 살림할수 있음
● 보증금 1천만원 월35만원
시설,비품비 700만원
(불상, 탱화, 살림집기 일절)
011-9798-8460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이천시 설성면
장릉 2리 395번지 용담사
● 옛날 구옥 2채,산신각,미륵전,
와불,삼존불
● 평수 : 400여평 도지 쌀한가마
● 가액 : 2000만원(건물만)
031)642-8346
016-9800-8346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북부 2개의 신도시 부근
노송우거진 풍치수려한 절
● 부지 630평(실사용 1000평이상)
법당 20평 요사채2동(100평,30평)
창고 2동 시설좋음
● 시청에서 차로 5분거리,
전철 개통 예정, 포교수행의 최적지
● 가액 : 시세절반 상담후 절충가
주변 주택가 평당 1000만원에서
500만원선)
010-5290-3709
011-393-0013

포교당 안내

● 위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능곡역 3분거리
전철개통공사완료
● 사정상 급 양도
● 상가 3층중 2층 50평가량
● 법당,주방,거실,방2,욕실2
● 삼존불,후불탱화,지장탱화,
신중탱화, 시설 특A(완벽함)
● 보증금 1000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3500만원(절충가)
010-3116-1992

도심속에 예쁜 절같은 포교당

● 위치 : 부산 광안 전철역 3분거리
● 대지 : 약 100평
건평 1,2층 55평
● 가액 : 가격절충
011-345-5155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부산 동래구 사직동
● 평수 : 약 40평
● 법당 20평, 방1, 공양간1
● 삼존불, 후불탱화 등
완벽하게 모셔져 있음
● 보증금1,000만원, 월20만원
시설비 약 1,000만원
● 사정상 급
010-2291-5558
051)503-0908

사찰(급)안내

● 위치 : 안동 임산 유원지 테마 마을
● 대지 200여평 법당 28평
● 큰방3개, 비품 일절 양도
● 삼존불, 소불(240불),각단탱화
● 관광단지조성계획지로
주변경관이 수려함
● 지장보살(6m),
텃밭(80평) 시내 10분거리
주변땅으로 잔디조성
● 가액 : 1억3천5백만원(급매)
054)858-9628~9
019-377-8967

암 자 안 내

● 위치 : 경남 하동
● 총평수 755평, 법당 20평
요사채, 상하채 방4개
● 주차시설완비 큰창고
● 양도가 : 2억
010-3138-4897

포교원 안내

● 위치 : 군포 안양 지역
● 평수 83평. 방4, 욕실, 주방,
냉난방완비, 모든시설완벽
즉시법회가능, 몸만 오시면 됨
● 보증금 2천만원/월 130만원
시설비 4천만원(절충가능)
010-6271-9959

포교원 안내

● 위치 : 전남 담양
● 법당 10평
● 수익성 사업체 가든
70평 포함, 주차장 500평
● 대로변 위치 최고
광주광역시 10분거리
● 가액 : 3500만원
010-5262-5545

포교원안내

● 위치 :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4층 건물 중 2층 약 45평
● 삼존불, 각단탱화
산신, 영가단
● 즉시 법회 가능
● 보증금 500만원,월 40만원
시설비 : 답사후 절충
031)405-4181

암 자 안 내

● 위치 : 부산시 연산 3동
지하철, 버스정류장 3분거리
● 큰법당, 삼존불, 신중단, 삼성단, 영가단
● 방2, 주방, 옥실구비, 시설완벽
● 보증금 500만원 / 월 25만원
시설비 1천만원
010-3832-0016
051)851-2337
(12시 이후 통화 가능)

사 찰 안 내

● 신비의 바다 보배의 진도
(전남 진도군 내) '살기좋은 진도'
● 대지 : 2,500평
● 법당, 산신각, 요사채
전기보일러, 산세수려함
● 가액 : 2억 7천만원
※꼭 사실분만 연락바랍니다
011-9928-0005
061)544-0484

포교원 안내

● 위치 : 동인천 역에서 5분거리
● 평수 약 85평
● 구조 : 법당,공양간,삼존불,
방,욕실,큰방 등, 심야 보일러
● 모든시설 갖춰져 있음
● 법당 50평, 주변환경 주차장
● 맑은 공기,산세수려
● 보증금 4천만원 월50만원
시설비 답사후 결정
010-2892-9877

사찰(급) 안내

● 위치 : 경북 포항시 북구 기계면
● 대지 약 1000평, 법당 28평
산신각, 용왕각, 요사채(75평)
● 가액 : 3억, 비품일절 양도
(일부후불가능. 스님직)
010-2536-8774

포교당 안내

● 위치 : 서울 장위동 드림랜드앞
● 평수 : 35평, 3층
● 보증금 1000만원,월30만원
시설비 1800만원
011-809-8876

사 찰 터 안 내

● 위치 : 경북 청도군 이서면 양원리
● 동네 윗편 주용한 명당터
● 대지 209평, 전 64평
● (현)조립식주택,차량마당까지진입
● 가액 : 1억 7천만원(절충가능)
016-537-6134
010-2208-4899

사찰전세안내

● 위치 :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152번지 혜화사
당고개역에서 5분거리
● 가액 : 전세 5,000만원
(양도도 가능)
● 법당 외 방3개, 산신각
02)2273-824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영양
● 종교부지 260평
● 법당 23평(불사중)
● 요사채 33평 완공, 창고,산신각
● 가액 : 1억
(현재 1억5천만원 공사비 들었음)
010-3553-7897

사 찰 터 안 내

● 위치 : 경남 거제 작목면
● 바닷가 내려다 보이는 명당자리
● 전 630평, 관리지역
● 입구까지 차량진입
● 가액 : 2억 2천만원(절충가능)
010-3850-8398
010-2208-4899

포교당 장소구함

● 위치 : 경기도 지역 일원
● 법당,농가주택같은
임법당(사 · 암)가능
● 건물전세(시설제외)
010-9045-3332

사 찰 중 개

● 위치 : 대구
● 부지 : 108평
● 법당 : 70평
● 요사 : 140평
● 가액 : 12억
● 위치 : 서울
● 대지 : 90평
● 법당 : 18평
● 요사 : 20평
● 가액 : 5억 급매
전국 사찰 암자 포교당 부전스님 공양주 소개합니다
광진불사 02)723-408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상남도 밀양시
● 부지 : 오천여평
● 시설 : 대웅전,자장전,관음전,삼성각,설송당,
자양당,요사채(건출 총 170여평) 잘 지은 집
● 환경 : 좌청룡 우백호 노적봉이 휘감은
수려한 산속. 지장기도도량의 명당자리
● 계획 : 실버복지원 납골당-토목공사 완료
● 가액 : 시세 50% 직거래, 답사 후 절충 결정
055)356-6083

포교당(급)안내

● 위치 : 대구시 수성구 만촌1동 망우공원내
● 3층 건물중 1층 약 128평(주차장 넓음)
● 대지400평 텃밭 50평, 삼존불, 후불탱화, 신중탱화
● 법당(48평)방5,거실,욕실,주방및 공양간
대형에어컨,엠프시설 완비 비품일체
● 가액 : 보증금 1천만원,월 85만원
시설비 3천만원(절충가)
비품일체 모든시설 갖춰져 있음
010-3382-7921

토 굴 안 내

● 위치 : 하동 악양 지리산 자락
● 부지 : 680평
● 가옥 : 신축 황토 기와집
● 특징 : 마을 외각 경치 좋음
● 가액 : 2억 2천
010-4782-2112

사 찰 안 내

● 위치 : 마산시 진전면
● 마산, 진주, 고성, 통영, 함안30분거리
● 대지 600평, 법당 25평
● 삼존불, 요사채 30, 20평
● 마당, 연못
● 가액 : 3억(융자가능)
● 꼭 필요하신분만 연락바람
010-3996-2035

포교원(급)안내

● 위치 : 충북 충북대학교 1km지점
● 평수 : 33평
● 보증금 1천만원 / 월 25만원
(꼭 필요한분에 한하여 시설비 1천만원)
● 역학하시는 분 적합, 법회 즉시 가능
010-2877-7746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성주군 성산부근
● 대지 : 2000평
● 법당1 삼성각1 공양실 20평,방2개
● 부처님 5불 모셔져있음 몸만오시면됨
● 가액 : 전세 3000만원
010-2938-2550

사찰(급)안내

계약후 불사하며, 분할도 가능

● 위치: 경북 고령 국도변 대구에서 30여분
● 대지: 약 800평 건평 약 80평
● 법당 25평, 삼존불, 방 7개
대형주차장 약 400평
● 노인요양원 및 영옥 사리불 안치 준비중
● 양도가 : 융자 9700만원 안고 2억 5천만원 인수
총액 4억 5천만원 중 1억 찬조보시함
(진정하게 운영할분)
053)471-3123
017-501-2315



송찬우 교수의
수습지관좌선법요 <52>
(修習止觀坐禪法要)

제6장 정수행(正修行) ⑯

신근과 촉진 둘 다 잊어야 마음이 청정

五身受觸時修止者 隨所覺觸 卽知如影 幻化不實 若受順情樂觸 不起貪著 若受違情苦觸 不起瞋惱 受非違非順之觸 不起憶想分別是名修止 云何身受 觸時修觀 應作是念 輕重冷煖澀滑等法 名之爲觸 頭等六分 名之爲身 觸性虛假 身亦不實 和合因緣 卽生身識 次生意識 憶想分別苦樂等相 故名受觸 反觀緣觸之心 不見相貌 當知受觸者 及一切法 畢竟空寂 是名修觀

다섯 번째로 신근이 촉진과 접촉하였을 때 지 수행을 하는 것에 대해 밝혀 보려고 한다.

신근이 촉진을 감촉하면 그것은 그림자, 허깨비, 변화처럼 실재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만 한다.

감정에 순응하는 즐거운 감촉을 느낀다 할지라도 탐애의 집착을 일으키지 않으며, 감정을 위배하는 괴로운 감촉을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진심과 고뇌를 일으키지 않으며, 감정을 위배하지도 순응하지도 않는 감촉을 받아들인다 해도 그것을 기억하고 분별하는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이를 두고 지 수행을 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다음으로 신근이 촉진을 받아들일 때 어떻게 관 수행을 해야만 하는가.

가볍고 무겁고 차고 따뜻하고 껄끄럽고 매끄러운 것 등을 촉진이라고 한다.

촉진의 성품은 허깨비처럼 거짓이며 몸 또한 실재하지 않는다. 단지 신근과 촉진이 화합하는 인연 때문에 바로 신식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 제육의식이 감촉을 기억하여 괴로움과 즐거움 등의 모습을 분별한다. 따라서 신근이 촉진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한다. 신근이 촉진과 인연으로 일어나는 마음을 돌이켜 '실재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라고 여겨야 한다.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은 받아들인 촉진과 일체법은 공적하다는 점이다. 이를 두고 관 수행을 하는 것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우리의 몸이 차고 따뜻한 것, 바람이 부는 것, 남녀의 몸이 부드럽고 윤기 있는 것, 아름다운 의복에서 감촉을 느끼는 것 등 모든 것을 촉진이라고 말한다.

촉진에서 지를 닦는다는 것은 감촉하는 촉진경계를 따라서 거울 속에 비친 그림자 영상과도 흡사하다. 그것은 거울상에 나타난 허상이기 때문에 실재 있지 않는 것이 그림자로 나타나는 것이므로 허깨비 변화와 같아 본래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만 한다.

하나의 예를 들어 보겠다.

부처님 제자인 필능가파차존자는 최초로 발심 출가하여 부처님으로부터 '세간의 모든 법은 고(苦) 공(空) 무상(無常) 무아(無我) 부정(不淨)하기 때문에 즐겨서는 안된다' 라는 말씀을 자주 들었다. 이 말씀을 듣고 그는 걸식을 하면서 관법에 들어갔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발에 독이 들어가 온몸에 퍼져 매우 고통스러웠다.

촉진은 거울의 그림자처럼 실재하지 않아 감촉하는 대상 경계는 성질이 본래 공적

그는 즐겨서는 안된다는 생각으로 인해 즐겁지 못한 경계까지 만나서 부처님 말씀을 깨닫게 되었다.

'내 몸이 앎이 있어야 만이 고통을 알 수 있다' 고 생각한 그는 심한 통증을 느끼게 되자 걸음을 멈추고 통증에 마음이 끌려가지 않으면서 '이 고통을 아는 사람은 끝내 누구일까' 하고 관찰하였다. 이로 인해 몸에 지각하는 마음이 생긴 그는 통증을 느끼기는 했지만 나의 본각인 청정한 마음엔 통증의 모습이 따로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 '한 몸에 통증을 느끼는 지각과 통증이 도달하지 못하는 마음이 어떻게 따로 있을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이 한 몸에 통증과 통증을 느끼는 마음 둘이 있어야만 된다. 지각하는 마음과 통증이 둘로 나뉘어 있다면 마땅히 이 한 몸에서 두 부처를 이루게 될 것이니 그러한 이치가 있을 수 있겠는가' 라고 생각했다.

그는 마음을 돌이켜 관찰하고 생각을 거둔지 오래지 않아 몸과 마음이 홀연히 공적하여 통증을 느끼는 마음과 통증을 일으키는 대상이 따로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바로 주관과 객관을 둘 다 잊어버려 마음이 청정해졌다고 한다.

내 감정을 위배하는 촉진도 이와 같다면 감정에 순응하거나 위배하지도 순응하지도 않는 촉진경계를 생각해보면 스스로 알게 될 것이다. 이를 두고 촉진을 통해 지 수행을 하는 것이라고 한다.

무엇을 두고 몸이 감촉을 받을 때에 관을 닦는 것이라고 하겠는가.

이에 대해 말해본다면 대상을 통해 느끼는 모든 촉감을 촉진이라고 하고 그 촉감을 주관적으로 받아들이는 머리 등 여섯 분야를 신근(몸)이라고 한다. 여섯 분야는 머리, 몸, 양팔, 양다리를 말한다.

알아야 할 것은 감촉하는 대상경계는 그 성질이 본래 공적하여 진실이 아니며 그 감촉을 받아들이는 내 몸도 역시 진실이 아닌 허깨비라는 점이다.

우리의 몸은 지수화풍 사대인연으로 화합하여 신근이 있으며 사대인연이 분리하면 신근도 따라서 없어진다.

안으로는 신근이 인이 되고 밖으로는 촉진이 연이 되어 내적인 인과 외적인 연이 화합하여 바로 신식이 일어나면 다음으로 제육의식이 일어나 목전의 촉진에서 괴로움과 즐거운 모습 등을 분별하게 된다. 그 때문에 이를 '촉진을 받아들임' 이라고 한다.

대체로 신식으로 인해서 촉진을 느끼고 의식으로 인해서 괴로움과 즐거움을 분별한다. 이로써 촉진은 자기 스스로 독립적인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으로 인해서 있게 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촉진을 받아들이는 마음은 끝내 따로의 모습으로 얻지 못한다는 것을 돌이켜 관찰해야만 한다.

이를 두고 말하기를 "마음은 본래 일어남이 없건만 대상경계로 인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대상경계가 없을 때엔 마음도 역시 없다"라고 한다.

이처럼 인과 연이 화합해서 일어난 것은 반드시 인연의 분리를 따라서 소멸하여 생멸거래는 끝내 형상이 없다. 그 때문에 모습을 보지 못한다고 말하였다. 따라서 촉진을 받아들이는 마음과 대상인 촉진이 끝내 공적한 것이다.

능엄경에서 말하기를 발타파라존자는 과거 전생에 위음왕 부처님 밑에서 법을 듣고 출가하였다. 어느 날 그는 스님들이 목욕을 하자 함께 들어가 이런 생각을 했다.

'몸이 물과 합하여 그 물에 촉감을 느낄 때 올바른 생각을 일으켜 이 감촉이 무엇으로 인해 있을까. 만일 이 감촉이 때를 씻는 것으로 인해서 있다면 때는 본래 무정물인데 어떻게 감촉을 일으키겠는가. 이는 때를 씻음으로 인해서 감촉이 있지 않는 것이 분명하다. 또 감촉이 몸을 씻는 것으로 인해 있다면 몸을 이루고 있는 지수화풍사대가 본래 공적한데 어떻게 있을 수 있겠는가'

이는 몸을 씻음으로 인해서 감촉이 있지 않는 것이 분명하다. 이를 따라서 끝까지 추구해 보았더니 촉진이 일어나지 않고 내 몸도 역시 존재하지 않게 되어 그 중간에서 감촉을 느끼는 마음이 편안하여 요동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원통경계로 깨달아 들어가 외부의 촉진과 안으로의 몸이 동시에 공적하여 오묘한 감촉이 청정하여 본래 오염됨이 없었는데, 청정하여 오염됨이 없는 처소가 끝내 공적하여 주관과 객관의 상대적인 두 모습이라고는 없었다.

이를 두고 촉진을 통해서 관 수행을 하는 것이라고 한다. ■중앙승가대 교수

cafe.buddhapia.com/community/song

쉽게 풀어 쓴
불교 기본교리

십팔계(十八界)

(2) 계의 의미

계(界)는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 우선 개념부터 정리해볼까요.

'잡집론(雜集論)' 과 '광론(廣論)' 에서는 "계(界)는 임지무작용성자상(任持無作用性自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순차적으로 풀이하면 자상(自相)은 그 자체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안근은 실질적인 안식의 의지처가 되어 안식활동을 일어나게 하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안근자체로서의 독자성이라는 의미에서 '안근계' 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임지(任持)' 는 육근 육경 육식 등 모든 법은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자체 성질을 임의로 지니면서 각자마다 그 성질을 버리거나 잃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가령 어떤 법이 됐던 모든 색법이나 심법이 때로는 홀연히 안근이 되었다가 다시 이근이 되거나, 또는 홀연히 이식이었다가 다시 안식이 되는 등 자체 성질이 따로 그 한계를 지니지 않는다면, 이 세상 모든 사물들은 그 어느 것도 일정한 법칙으로 유지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마주하는 모든 사물들에 있어서 혼란을 일으키지 않고 분명한 인식 바탕에서 올바른 생활이 가능한 이유는 안근 등이 그 자체 성질을 잃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사물들은 자체의 한계를 임의로 지니기 때문에 이를 두고 '계' 라고 합니다.

세 번째로 앞에서 설명한 자상이라는 두 글자 앞에 '무작용성(無作用性)' 이라는 단어를 붙인 이유는 육근 육경 육식이 각자마다 자체의 성질을 지니고 있다 해도 그곳엔 고정 불변하는 실질적인 작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주관적인 인식활동인 육식은 그 인식대상인 육경을 상대적으로 취하는 작용이 있다 해도 이를 사람이나 또는 다른 구체적인 사물처럼 실질적인 작용이 있다고 동일시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또 육근은 육식의 의지처가 되고, 육경은 육식을 이끌어 내는 바탕이 되어 육식을 생장하기는 하지만 육식처럼 실물과 동일시해서 그곳엔 실제적으로 작용하는 성질이 따로 존재해 있다고 여겨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광론' 에서 이러한 점들을 자세히 부여한 이유는 사람들이 근(根) 경(境) 식(識)의 자성에 있어서 구체적인 사물처럼 실질적인 작용의 성질이 있다고 잘못 헤아리고 집착할까봐 염려스러웠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무작용성' 을 넣어 근 경 식의 자체성질이 무아의 공성임을 명시한 것입니다. ■정리=張如舟

(명소 - 명산 - 명지)
사찰 및 템플수련 연수원용도 부지매각

■ 위 치 : 강원도 홍천군 서면 팔봉산 후면
■ 면 적 : 144,154㎡ (43,606평 - 관리12,000평)
■ 매 가 : 실 수요자와 직접상담(사정상-급매)
■ 참 고 : 동서고속도로 - 2009년 - 완공 - 개통 목적용도 및 토지투자가치 최적

■ 위치-입지 : 100대명산 팔봉산후면 접함,동 - 남향 홍천강인접 - 홍천대명콘도 5분거리 동서고속도로 - 남춘천 IC - 7분거리
■ 대표전화 : 033)435-8060 / 011-377-3410 주인직접 - 중개업소사절



▼ 전경 및 이미지 조감도

불교와문화필름

지진대비한 석축·다양한 식생 '불국'의 지혜와 자비

(105) 토함산 불국사


제비나비.

지구물리학에서는 단층운동으로 높아진 지대를 '지루(地壘)'라 하고, 계곡처럼 낮아진 지대를 '지구대(地溝帶)' 또는 '구조곡(構造谷)'이라고 한다. 신라인들이 도읍을 정한 경주는 형산강 구조곡이 만든 분지이며, 동해바다를 굽어보는 토함산은 형산강지루가 만든 산이다.

일찍이 신라는 오악(五嶽)을 정하고 제사를 지내왔다. 오악은 신라 변방의 외산으로, 동쪽의 토함산(吐含山)을 비롯하여 서-계룡산, 남-지리산, 북-태백산, 중앙-부악(팔공산) 등을 가리켰다.

토함산은 겉보기에는 두툼한 육산 같아 보이지만, 불국사화강암류가 지나가는 공산이다. 백악기 중기 이후에 형성된 불국사화강암은 토함산을 비롯해 주로 남동부 경상분지에 집중적으로 분포한다. 신라의 화려한 석조미술을 비롯해 세계문화유산인 불국사와 석굴암도 바로 이 불국사화강암이 탄생시킨 것이다.

<삼국유사>에 따르면, 불국사는 경덕왕 10년(751)에 김대성이 현생의 부모님을 위해 창건했다고 한다. 그러나 김대성이 재상이었던 만큼, 개인적 염원을 넘어신라의 삼남통일위업을 대외에 표출하고자 하는 의도도 있었을 것이다. 불국사라는 이름에서부터 그런 여운이 묻어있다.

전나무와 히말라야 삼나무가 듬성듬성한 일주문을 들어서면 좌우에 잘 가꾼 화단과 해탈교 건너 커다란 연못이 있다. 토함산 계곡물을 가두어 만든 연못 안에 인공섬을 띄우고 비단잉어를 풀었다. 연못의 녹조와 붉은귀거북은 옥의 티이다.

전문가들은 경주 일대를 활성단층 지대로 진단한다. <삼국사기>에는 신라 혜공왕 때인 779년에 '땅이 흔들리고 민가가 무너져 죽은 자가 100여명이나 됐다'는 지진피해가 나온다. 불국사 창건 무렵의 일이다.

해탈교를 건너 경내에 들어서면 높고 아름다운 대석단이 다가선다. 불국사 석단이 다른 여느 절의 석단과 다른 것은 이 단층활동에 대비한 내진(耐震)공법으로 축조되었기 때문이다. 석재 사이에 틈을 두어 지진 에너지를 흡수하도록 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그랭이 기법이나 석단에 튀어나온 쐐기돌도 역시 내진장치이다. 자연과 지혜로운 인간의 아름다운 만남이다.

최근 나온 보고서에 따르면, 창건 당시 석단 앞뜰에는 석가탑의 그림자가 비친 영지(影池)가 있었다. 조선 말 초의 선사 시에도 연지를 묘사한 귀절이 있다. 수원은 대웅전 뒤 무설전 샘물과 계곡수라고 한다.

대웅전 마당에 서면 동쪽 회랑 너머로 장송들이 나한들처럼 몸집 좋게 줄지어 서 있다. 경주 일대가 못생긴 안강형 소나무 지역이라지만, 이 장송들을 보면 본래부터 토함산 소나무들이 그렇게 병약하지는 않았음을 증언해준다.


불국사 회랑 내진 석축(위), 백당나무 열매(원 왼쪽), 하늘말나리와 왕자팔랑나비(원 오른쪽).

선조 지혜와 자연 어우러진 사찰건축 '백미'
불국사, 노거수 일련번호 붙여 세심한 관리

무설전 뒤로는 관음전-지장전-비로전-나한전 영역이다. 관음보살의 여성적 이미지에 맞게 관음전 마당 주위는 다른 전각과 달리 배롱, 모과, 목련, 백당 등 꽃나무로 조경했다. 관음전과 이웃한 비로전에도 철쭉, 연산홍, 백당나무, 살구나무 등 꽃나무로 장엄했다.

극락전 현판 뒤에 나무로 새긴 황금빛 돼지상이 있다. 길이 50cm 가량의 통나무로 조각한 이 돼지상은 입가에 송곳처럼 생긴 흰색 이가 나타나 있어서 야생 멧돼지로 보인다. 십이지에서 돼지는 물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 돼지상은 화재를 막기 위한 벽사물로 조성한 것으로 보인다.

극락전 뒤 쉼터 나무 아래 노둣돌들이 줄지어있다. 무설전 뒤쪽에서 발굴됐다는 노둣돌은 뒷일을 볼 때 양쪽 발을 올려놓는 돌이다. 그 옆에는 크기가 작은 노둣돌도 놓여 있다. 요즘의 수세식 변기처럼 물을 사용하여 배설물을 씻어낼 수 있도록 배출구가 뒤로 나있다.

경내 승방인 정혜료 지역은 관광객들의 출입이 통제되고 비교적 양명한 지역이라 나비류와 잠자리류 등 곤충들이 다양하게 관찰된다. 제비나비, 표범나비, 신선나비, 대만흰나비, 왕자팔랑나비, 등줄박각시, 긴꼬리산누에나방, 대륙좀잠자리, 배치레잠자리, 마아키측범잠자리, 물잠자리.

제비나비는 1년에 두 차례 봄과 여름에 나타난다. 가끔 물이 축축한 땅에 내려앉아 물을 마시거나 미네랄 등을 섭취한다. 검은 날개에는 녹색과 청색의 무늬가 있다.

갈색 광택이 나는 왕귀뚜라미는 낮에는 크고 단단한 뒷다리로 주로 뛰어다니다가 저녁 무렵이면 기왓장 사이에 몸을 숨긴 채 구애의 울음소리를 낸다.

토함산은 국립공원이지만, 오래 전부터 관광개발이 이뤄져 멸종위기종이나 보호야생종은 보고된 바 없다. 정혜료를 비롯 불국사 주변에서는 박새류와 딱따구리류를 비롯하여 찌르레기, 검은등뻐꾸기, 꾀꼬리, 뻐꾸기, 흰배지빠귀, 호랑지빠귀 등 여름철새들이 관찰됐다.

전통사찰은 전통식생일 때 그 가치가 돋보인다. 경관을 돋보이게 하는 다양한 노거수들이 처처에 그림 좋은 숲을 만들고 있다. 이 노거수마다 일련번호를 붙여서 하나하나 세심하게 관리하고 있다. 식재된 조경수로는 쉬나무, 아왜나무, 꽝꽝나무, 배롱나무 등 등 주로 고유종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나한전 뒤안에 있는 키 큰 회화나무에 하얀 꽃들이 만발이다. 조계사 마당에도 우뚝한 회화나무는 한·중·일에서만 볼 수 있는 동양나무이다. 나무 모양이 궁글고 온화하여 선비들이 애호했지만, 사찰 조경수로도 좋다.

천왕문 앞 화단에 심어진 쉬나무는 주로 마을 야산에 자라는 낙엽활엽수이다. 한자로 '조선오수유(朝鮮吳茱萸)'라고 한다. 중국 문헌에 경주 지방에서 약목으로 재배한다고 되어 있다.

무설전 서북쪽 화단에 심어진 아왜나무는 상록난대식물이지만, 바다가 가깝고 기온이 온화한 관계로 이 지역에서도 잘 자라고 있다. 동백나무와 함께 사찰의 내화수림대를 조성하는 데 적당하다.

경내를 돌아 일주문 밖으로 나오면 석굴암으로 이어진 산행길이 나온다. 오르막길이라 1시간 넘게 걸리는 거리이지만, 외길이라 길을 잃을 염려가 없다.

석굴암으로 나 있는 산행길은 인간의 간섭이 심하고 그늘이 져서 많은 꽃들은 볼 수 없지만, 길에서 좀 떨어진 곳에서는 여름꽃들을 볼 수 있다. 하늘말나리, 타래난초, 야생모란지, 며느리밥풀꽃, 까치수영, 꽃며느리밥풀, 노루오줌 등이 꽃을 피웠다.

하늘말나리는 산기슭이나 낙엽수림 주변에 낙엽이 쌓인 반그늘에서 주로 자라는 여러해살이 풀이다. 키가 커서 '말'자가 붙었고, 진홍색 꽃잎이 하늘을 향해 벌어진다고 하여 '하늘'자가 붙었다.

타래난초는 곧게 선 줄기에 작고 앙증맞은 꽃들이 타래 틀듯이 빙 둘러서 난다고 붙은 이름이다. 햇빛이 잘 드는 묘지 부근에서 자주 관찰된다.

도라지는 동아시아에서만 1종이 자라는 여러해살이풀로, 햇볕이 좋은 숲속 빈터나 무덤 주변에서 자란다. 사찰에서는 관상과 식용으로 예부터 즐겨 심어왔으나, 근래에는 보기가 드물어졌다.

산행길은 토함산의 다양한 나무들을 볼 수 있는 숲속길이다. 토함산은 대부분이 소나무-리기다, 소나무-참나무림으로 덮여 있지만, 석굴암으로 가는 숲길 주변에는 주로 활엽수들이 많다.

좀깨잎나무는 잎이 깻잎처럼 생긴 키 작은 나무이다. 얼핏 초본류처럼 보인다. 전국 각지에서 자라지만, 양지를 좋아해서 주로 등산로 주변에서 쉽게 관찰된다.

길을 내는 과정에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곳곳에 자연석으로 석축을 쌓았다. 석축의 돌틈은 다람쥐들이 서식하기에 안성맞춤이다.

토함산은 큰 산줄기와 끊어져 있고, 오랫동안 관광지로 개발되어 큰 동물들은 살고 있지 않다. 하지만, 김대성이 젊은 날 한 때 이 산에서 곰 사냥을 하다가 불교에 귀의했다는 전설이 있다.

산행로는 석굴암 일주문 앞 주차장에서 끝난다. 주차장 언덕에 서면 발 아래로 먼 산들과 넓은 들이 전망 좋게 내려다보인다. 석굴암 가는 길은 흙길이라 걸어가는 맛이 좋다. 산모롱이를 굽이돌 때마다 새로운 경관을 만나는 것도 기분 좋은 일이다.

토함산 지역은 경주 시내보다 강수량이 많고, 안개일수도 많다. 석굴암 지역은 특히 바닷바람과 산바람이 직접 닿는 곳이다. 옛 사람들은 이러한 자연환경을 고려해 석굴암을 축조했을 것이다. 마치 고깔처럼 덮인 주실의 지붕도 그런 악조건의 대안이라고 말한다.

석굴암 경내의 조경은 수수한 편이다. 따로 심은 조경식물은 백당나무와 벌개미취 정도이다.

백당나무는 꽃 모양이 불두화와 비슷하다. 다만 불두화는 수술이 없는 중성화(中性花)만 피우는데, 백당나무는 수술 있는 유성화도 함께 피운다. 꽃이 진 자리에 작고 파란 열매가 맺혔다.

벌개미취는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하는 들국화이다. 곧은 줄기에 피는 연자주색 꽃은 여름 끝에 피어 가을을 여는 꽃이다. 늦가을까지 꽃을 볼 수 있고, 뿌리 번식이 쉬워서 사찰 조경에 알맞다.

석굴안 본존불 마당 끝에 서면 겹겹이 쌓인 산들이 발 아래 내려다보인다. 바다로부터 올라오는 안개[海霧]를 들이마시고 토해내는 것 같다고 하여 '토함산'이란 이름이 생겼다고 한다.

석굴암 위로 20분쯤 오르면 정상에 오르는 숲길이 나 있다. 숲길 초입은 조망이 좋지 않지만, 정상이 가까워지면서 잡목은 사라지고 억새숲이 펼쳐져서 시야가 트인다. 멀리 낙동정맥이 보이고, 동쪽으로는 감포 앞 푸른바다가 보인다.

김재일(사찰생태연구소장) temple-e@hanmail.net


부산 대구
카이로프락틱 교육연수원 개원
당신의 쉬고 있는 손! 10억짜리란 사실을 아십니까?
카이로프락터 양성
교과목 • 골격학, 근육학, 척추 및 골반 선추 교정, 성장 크리닉
• 31쌍의 중추신경계 압박으로 인한 근본적 질환 퇴치, 척추질환, 알레르기, 빈혈, 천식, 기관지, 변비, 어지러움증, 정서불안, 허약체질, 두통, 소화불량, 불면증, 갑상선 부작용 등등
대 상 • 종교인, 의료기관 근마자, 스포츠 맛사지사, 피부 미용사, 물리치료사, 체육관련 종사자, 봉사 활동자
기 간 • 2급과정 (1개월) 미국 팔머대학 교재직강, 2년 전문대 교육 과정을 54시간 집약완성
장 소 • 부산 지하철 2호선 시립미술관역 2번출구 태성빌딩 6층
• 대구 지하철 1호선 상인역 롯데백화점 뒤
입학일시 • 2008년 10월 1일 ~ 10월 5일
전생 · 빙의 · 자기최면 · 치료최면
각종질병에 시달리는 중생교육을 위한 맞춤교육
최면으로 전생, 현생, 미래생 탐색, 나를 찾는다
개강일 • 2008년 10월 1~ 10.5
교육기간 • 주2회(총8회) 1개월 고급속성과정
교육대상 • 스님, 성직자, 의사, 한의사, 대체 의학인 체육지도자, 최면 관심자, 일반인
교육내용 • 자기최면 / 타인최면 / 기억력, 집중력 증강 / 육임 우을증 해소 / 대인공포 / 성격개선 / 스트레스 / 금연 빙의 / 전생/ 금주
교양대학 • 사주명리 / 침술 / 성명학 / 풍수지리 / 자미두수 육임 / 명리로 영가 찾는 법 / 구궁법
특기사항 1. 상상할 수 없는 최소의 교육경비
2. 개인별 심층교육, 이론을 토대로 실기 위주의 교육
3.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수 있도록 책임 평생교육


원장 우혜안 스님
사단법인 해동체육지도자교육연수원
부산연수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2동 1088-4 태성빌딩 6층(지하철 2호선 시립미술관역 2번출구) 본원 교학과 Tel : 051-746-4026
대구연수원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 3동 1553-6 지하철 1호선 상인역 롯데백화점 뒤 본원 교학과 Tel : 053-632-0078



생활이 즉 진리입니다! 그리고 교재입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또렷하기 때문에 좋지요? 이제 더위가 좀 가신 것 같습니다. 더운데 살기가 힘들었죠? 그런데 한마디 하고 질문을 받을까요, 질문을 다 받고 나중에 할까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왜 대답이 없으세요?

그럼 먼저, 사람 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그 사실에 대해 말씀드리죠. 저도 봤습니다만 어느 사찰에서 있었던 일이죠. 그 도량에서는 시식을 지내거나 하면, 항상 그 넓은 돌 위에 밥도 떨어다 놓고 과일도 떨어다 놓고 그럽니다. 그럼 그 돌 밑에서 나와서 먹기도 하고 날아와서 먹기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꼭 그 생명들을 위해서 갖다가 놓죠.

그런데 큰 구렁이가 돌 밑에서 그걸 받아먹으면서 한 2년 남짓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모두 보면서, 우리가 지금 부처님 찾는 거와 똑같이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스님이 나와서 먼 산을 보고 있는데, 그 돌 밑에서 구렁이가 나와서 하는 소리가 "스님처럼 저도 사람이 될 수는 없을까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거는 도승들이나 듣지 보통 사람은 못 듣죠. 그러니까 "될 수도 있지만 그 어려운 고비를 어떻게 넘기겠느냐?" 그러니까 "죽더라도, 죽더라도 꼭 그렇게 해 보고 싶습니다." 했답니다. 간략하게 그냥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스님이 하는 말씀이 "너의 동료…", 즉 말하자면 뱀의 도반이라고 할까요. "…300명을 꼭 교화를 시켜서 이 도리를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항상, 법당에서 스님이 법을 설하시거나 또는 예불을 올리시거나 할 때 그분들에게 모습을 보이지 말고 들을 수 있겠느냐? 셋째는 네가 3년 동안 이슬만 받아먹고 살 수 있겠느냐?" 하셨더랍니다.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한 거라도 하겠습니다."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뱀은 주는 것도 그때서부터는 못 먹고, 나와서 항상 이슬만 받아먹고 들어가고 들어가고, 그러면서 자기 동료들을 교화시키려고 애를 쓰고 그랬죠. 그리고 끄트머리에 가서는 "한 가지 또 있느니라." 하면서 뭐라 그랬느냐 하면 "장독에 가서 장을 얻어먹을 수 있어야만 된다. 사람이 먹는 장 방울을 얻어먹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그 항아리를 넘어 들어가서 먹는 게 아니다. 장을 뜨러 왔을 때에 떨어지는 방울을 먹어야 마지막에 인간으로 환토할 수 있느니라." 했단 말입니다.

그거를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스님이 말씀하신 거를 새겨 본다면 우리가 노력 안 하고 그 뜻을 배울 수는 없다는 것이니까요. 또 노력하지 않고 차원이 높아질 수도 없고, 노력 안 하고서 내가 스스로 여여하게 살 수는 없으니까요. 모두가 다 그렇죠. 그런데 그 구렁이는 그걸 이겨 냈답니다. 이겨 내서 거길 떠나지 않고 공양주 스님이 간장을 뜨면서 떨어뜨린 거를, 그걸 그냥 기다리려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거를 받아먹고, 또 한 번 받아먹고, 또 한 번 받아먹고 세 번을 받아먹는데 3, 4년이 넘게 걸렸단 얘깁니다. 그러니 얼마나 깊은 의지와 깊은 뜻이 거기 서려 있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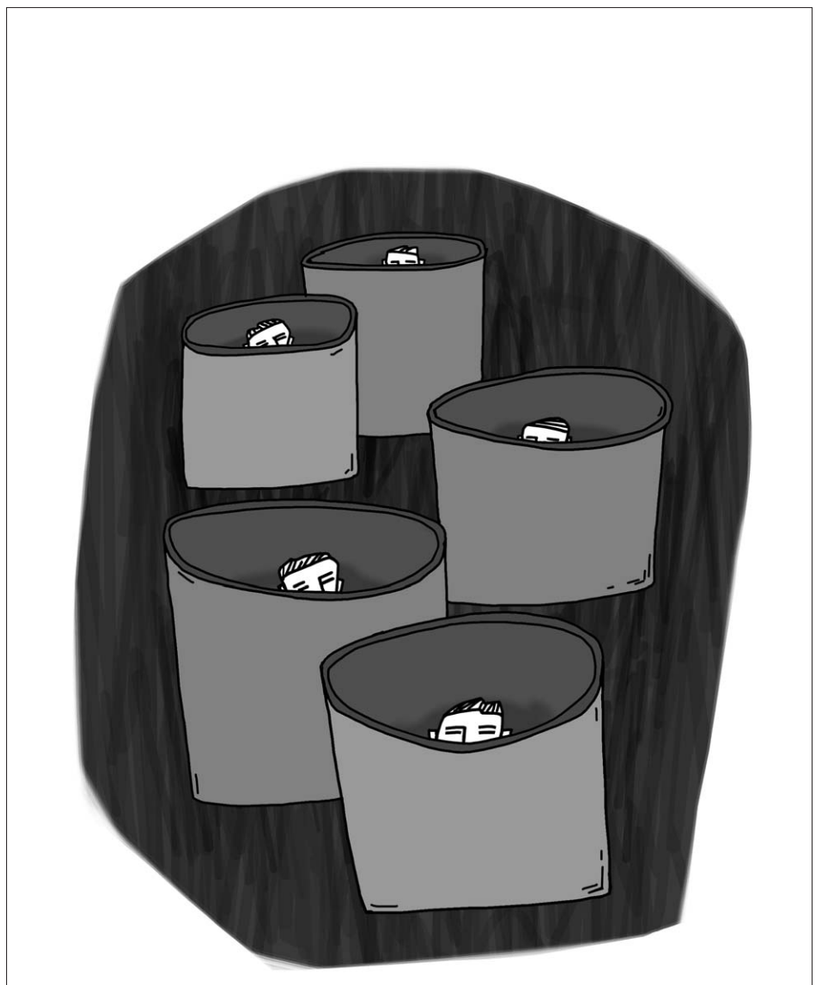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그전에도 내가 얘기했지만, 수없는 광년을 거쳐 오면서 우리는 진화돼서 형성되고, 형성되면서 진화되고 모습을 바꾸고 바꾸고 이렇게 하면서 인간까지 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진리를 볼 때에도 그렇지만, 또 (배를 짚으시며) 우리 오장 육부 속에 그 모습과 의식과 생명이 다 들어 있으니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구렁이는 뼈다귀만 남아 가지고 너무나 애절하게 했기 때문에 그 모습을 벗고 인간으로 환생을 하는데, 그 스님이 인도를 했답니다. 자손 없는 집으로 인도를 했죠. 그거는 부처님의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모두 황당하게 들릴지 몰라도 부처님의 연기법이라는 것은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잘 자라서 어른이 돼서 지금 부지런히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모습 하나 벗기가 그렇게 어렵단 말입니다. 토끼라면 토끼 모습을 벗기가 어렵고, 새라면 새 모습을 벗기가 어렵고, 또 개라면 개 모습 벗기가 어렵고, 소라면 소 모습 벗기가 어려운데, 부처님 경지에 이르러야만이 사람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돼 가지고도 99%가 자기 자신부터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전부터 그렇게 얘기했죠. 육조(六祖) 스님이 오조(五祖) 스님한테 대답하기를 "내 불성이 있는 줄 어찌 알았으리까." 했단 말입니다, 내 불성이. 각자 모든 사람들에게 불성이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 불성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여여하게 살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모두 갖추어 가지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여여한 것입니다. 또 우리가 들이고 내고 하는 생활 자체가, 그대로 만법을 들이고 낼 수 있는 불성 자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만법을 스스로 들이고 내고 할 수 있게끔 되는 것이죠.

이것을 아마 말로 해서는 실감이 영 안 될 겁니다. 그렇게 어려운 것이지만 사람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누구에게나 다 물질과학이 50%로 등장하고 있죠. 그런데 정신과학이라는 걸 거기다 벌충해서 100%를 만들어서 굴리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살기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지고 오래 걸리고 이러는 원인이 정신계를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물질계를 다 알아 가지고 이제 정신계로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거기까지 알아야 되니까요. 이게 물질계 속에서 '정신계는 물질계를 리드하는구나' 하는 거를 알아야 빠른데,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 뿌리를 무시하고 그냥 싹이 산다고만 생각을 하고 가니까 이건 50%의 물질계만 알면서 수없는 광년을 그냥 허송세월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정신계로 들어서도 또 50% 정신계에서의 수없는 광년이 지나야 할 테니까 말입니다.

이러니 그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인지, 나는 요새 말입니다, 물에서 사는 거나 들에서 사는 거나 또 사람들이나…, 어떤 때는요. 야, 어떡하면 그 아픔과 쓰림, 맞아서 아픈 것도 아니면서도 왜 그 쓰리고 아픈 게 있죠? 그리고 먹히고 먹고, 또 사람들은 모두 그 심성, 즉 말하자면 정신을 뺏기고 뺏어 먹고…. 이 세상이 모두 그렇단 말입니다. 그렇게 살면서 참으로 어이가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아서, 어떤 때는 자나깨나 그 사는 모습들이 머리에서 모두 뱅뱅 돌고 있어요. 그런데 내 재주로는 그거를 몽땅 없앨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모두 한 개체로 태어난 것이라면 자식을 낳지 않게 한다면 어떻게 될까? 인간뿐만 아니라 말입니다. 그러면 다 없어지는 폭이 되죠. 그런다면 또 문제가 있는 것이 종자의 과정과 그 무엇이 등장을 안 하면 이 우주 법계는 법계라고 할 수도 없고 다 무너질 거니까 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내가 말하는 거를 어떻게 들을지 몰라도 나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불쌍한 마음이 그지없을 때가 많습니다. 불쌍하다고 어떻게 말로 다 하리까, 이거를. 세상에 사람 사는 것도, 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왜 그렇게 되느냐는 거죠. 그건 무(無)의 세계로 인해서 유(有)의 세계가 돼야 하는데, 무의 세계는 저버리고 유의 세계 속에서만 사니까 별의별 일이 다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를 하면 '귀신도 너와 들이 아니다' 이런 말을 하죠. 그러면 보이지 않는 것도 나의 보이지 않는 거하고 동일하게 되니까 귀신이 아니라 선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차를 탈 때도 관하고 타라. 내릴 때도 감사하게 관하고 내려라. 어딜 가든지 '이건 뭐 괜찮을 거야!' 하지 말고 돌다리도 두드려 가면서 가랬다고 항상 자기 자불을 진짜로 믿고, 위험하든지 뭐든지 모든 것은 거기다 맡기고 해라. 사업을 하든지 공장을 하든지, '이 껍데기를 리드해 나가는 주인이 하는 거지 심부름하는 껍데기가 하는 게 아니다.' 하고, 이렇게 진짜로 아신다면 우리 살기가 그렇게 급급하지 않아요.

그런데 벌써 고(苦), 집(集)이 있다면, 즉 집착을 하면 고가 생긴다 이런 건데, 우리가 그렇게 모든 걸 맡기고 갈 수 있다면 자기가 고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집착을 하는 것도 아닌 게 된단 말입니다.

☞26면으로 계속

세종왕조 국역장경 묘법연화경 · 한자풀이법화삼부경 완역

계환 해 / 일여 집주 / 김진철 국역

8만 대장경의 핵심! 부처님의 유언!

사경겸용 한자풀이 법화삼부경

1.	묘법연화경 전 12권	4×6판	2,415쪽	권당 5,000원
2.	무량의경	4×6판	216쪽	권당 5,000원
3.	관보현보살행법경	4×6판	192쪽	권당 5,000원

사경겸용 한자풀이

4.	금강경 외 8종	4×6판	172쪽	10,000원
5.	명심보감	4×6판	246쪽	6,000원
6.	천자문	4×6판	46쪽	2,000원
7.	사자소학	4×6판	52쪽	2,000원
8.	계몽편	4×6판	73쪽	3,000원
9.	노자장자 일부	4×6판	155쪽	근간
10.	초발심자경문, 기타 7종 - 불교 천자문, 기타 5종 - 유교 합1권	4×6판	317쪽	8,000원
11.	중용;대학		110쪽	근간
12.	한자풀이 법화삼부경, 1권	4×6판	2,604쪽	10만원
13.	세종왕조국역장경 · 묘법연화경 · 1권 국역 송, 계환해 · 명,일여 집주.	4×6판	1,890쪽	10만원
14.	법화경 우바제사 (논)세친, 법화경 소/길장 합본 1권			근간



구입문의 법화선원 마하사
02)591-4170, 011-393-8937

도서출판 법화원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 158-6 법화선원 마하사

내 몸 내가 고치는 한국전통따주기 지도사 강좌 안내
(일반인반 · 스님반)

1. 한국전통따주기(多注氣) 란
우리 민족 조상으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민간 따주기로써 예를 들면, 급체 시 엄지손톱 뿌리 밑을 바늘로 따주기 하면 신기하게도 금방 내려갑니다. 온 몸을 이렇게 따주기로 낫게 하는 민족 고유의 슬기로운 자신 건강관리 비법입니다.

2. 신비의 전통따주기 특징
가. 신경을 자극하고, 탁한 피를 맑게 하며, 부족한 피를 생성 시킵니다.
나. 월 1회 기본 따주기로 병 예방 및 건강관리 합니다.
다. 뼈 부러진 곳과 수술한 부위를 제외하곤 모두 적용됩니다.
(혈압, 당뇨, 편도, 뒷머리 통증, 수전증, 탈모, 기억감퇴, 이명, 축농증, 감기, 안면풍, 여드름, 입술 부르틈, 버짐, 백반, 목, 어깨, 가슴통증, 협심증, 신경성, 판막증, 정신착란, 우울증, 공포증, 심장협착, 스트레스, 적병(화병), 간장, 심장, 위장, 폐장, 신장, 담, 명문, 소장, 비장, 대장, 방광이 나쁜 자, 자손 얻기, 검은 피부, 위경련(체함), 허리, 다리, 좌골, 관절염, 변비, 냉병, 생리불순, 치질, 정력증강(회춘), 병예방 따주기, 담배 끊기, 술 줄이기, 神氣 있는 자, 엘보우, 병명이 나오지 않는 자, 피가 부족한 자, 갑자기 기력이 저하된 자, 상기병, 하지정맥 등)
라. 따주기를 접한 날부터 몸이 낫기 시작 합니다.
마. 비장만 따도 내 병의 반을 낫게 할 수 있습니다.
바. 평생 잊지 않는 위치 암기에 10분이면 충분 합니다.
사. 간단하고, 부작용이 전혀 없습니다.

3. 따주기 활용
신도포교에 활용/ 자신 및 가족 건강관리/ 자녀교육에 활용/ 따주기 사회봉사 / 생활속 비상 따주기로 활용 (풍, 급체, 기절, 경기 등) /이웃에 건강 복 짓기 등

4. 강좌 세부내용 (한번 수강으로 이론, 실습 모두 학습)
가. 강좌 구분
(1)스님반 (2박2일 : 금요일 오후 도착, 토요일 9시 시작 ~ 일요일 13시 까지)
(2)일반인반(1박2일 : 토요일 오후 2시 시작 ~ 일요일 13시 까지)

나. 강좌 내용
(1)공통(스님반, 일반인반)
◆ 우주의 기운 ◆ 인연과 탄생, 명부전, 병
◆ 전통따주기 개요, 인체의 구조 ◆ 5행으로 본 인체
◆ 전통따주기, 각 따주기 ◆ 피가 생성되는 기초 따주기
◆ 마음의 세계(마음 10단계) ◆ 신기한 비장 따주기
◆ 병 예방 비법 및 실습 ◆ 종합,질의 및 답변,지도자 수영증 수여
(2)스님반 추가
◆ 수치의 비밀 ◆ 대운, 연운, 월운, 일운 비법
◆ 수상 및 관상 보감 ◆ 작명 비법

4. 강좌 일정 및 장소 (각반 선착순 12명)
가. 강사 : 한국전통따주기연구원장 (교수, 공학박사)
나. 일정 및 수강료
(1)일반인반 : 2008. 9.27(토) ~ 9.28(일) 25만원
(2)스 님 반 : 2008. 10.4(토) ~ 10.5(일) 34만원
[10월 3일 금요일 오후 도착]
※각 반 강의개시 3일전까지 선착순 예약자에 한해 수강
다. 장소 : 충남교육장
※ 옥황토방 숙박 및 자연식단 제공, 따주기 도구 및 비법교재 등 일체 제공
라. 준비물 : 편한 복장 및 개인 세면도구

※ 문의처 : 041)944-2237, 010-3234-2237
(www.ddajuki.re.kr)

한 국 전 통 따 주 기 연 구 원

buddhanews.com

우리는 고정됨이 없이 화해서 찰나찰나 나툴 뿐입니다!

☞25면에서 계속

이 소리 잘 들으세요. 우리는 고정됨이 없이 찰나찰나 화(化)해서 나툴 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공(空)이 색(色)이요 색이 공이니라. 그대로 여여함을 알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고'라는 거 '집'이라는 거, 이렇게 이름을 해 놨기 때문에 그 이름에 걸려 가지고선 외려 더 하지 않나. 외려 팔정도니 육바라밀이니 이런 이름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는 채 쓱 그냥 넘어가지 못하고 오히려 걸리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래서 어떠한 거든지, 인간들도 그렇습니다. 이쁜 사람이나 미운 사람이나 높은 사람이나 얕은 사람이나 평등하게 보라, 이러는 거는 자기가 수없는 억겁을 거쳐 오면서 어떤 거는 안 돼 봤겠습니까? 또 어떠한 일은 안 해 봤겠습니까? 한 상황에 처해서 어떠한 문제는 안 일으켰겠습니까? 그러니 그것을 내 모습으로 봐라. 모든 것은 내 모습과 같고 내 아픔과 같고 내 슬픔과 같고 또 내 배고픔과 같고, 모두가 내 도량에서 나 아님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셨든 안 하셨든 이 세상 살아나가는 진리가 바로 부처님 법이죠.

먼저 깨달으셔서 우리들한테 전파를 하셨으니까 부처님은 우리의 아주 진짜, 이 세상을 다 준대도 바꿀 수 없는 스승이죠. 그래서 그 스승에게 보답하기 위해서도 그렇지마는, 부모는 자식이 잘되라는 것이지 공경 받으려고 자식을 기르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항상…, 우리가 '부처님!'이라고 하면 과거의 부처님만 부처님이 아니라 여기 계신 분도 부처님이고 저기 계신 분도 부처님이고 부처님이 꽉 차 있죠. 그러니까 만불이 일불이요 일불이 만불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서 고생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별것이 아닙니다. 옛날에 서역에서 몇백 명씩, 몇천 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수십 명씩 조를 지어서 중국으로 이 법을 펴러 오셨습니다. 그러나 오다가 열 명이면 한 명 남을까 말까 했답니다. 세상에, 그 소금 요만큼 괴춤에다 매고 오는 거죠. 지금은 신발이나 두둑한 게 있겠지만 그때엔 신발도 없고, 모두 짚신 하나 신고 오다가 또 하나 갈아 신고, 그러다 보면 다 떨어져서 맨발로 걷고요. 그 고생하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이 이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바로 자유스런 삶을 살 수 있어야 그 역대 조사들한테 보답을 하는 거와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 되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거요. 지금 사람이 돼 가지고도 자기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또 모습이 달라질 수 있는 거니까요. 사람이 돼 가지고도 수천 년, 수만 년을 이렇게 돌다가 상세계로 차원을 이루는 수가 있고, 또 이렇게 살다 하천세계로 떨어지는 수가 있는 거고요. 여긴 상천세계냐 하천세계냐로 갈라지는 교차로니까요. 교차로이기 때문에 중세계에서는 그렇게 사람 되기가 어렵고 사람이 아닌 데로 떨어지기가 쉽다. 그러니까 우리는 필연적으로 이것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찰에 와서 종교를 믿고 그렇게만 하는 게 아니죠. 어느 종교의 이름이든지 그것은 이름일 뿐이지 그 이름 가지고는 아무 소용 없는 겁니다.

인생이라고 태어나서 한 철 살 때에, 한 철 사는 이 모습과 이 모습 속의 생명들과 한 철 사는 정신계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삼합(三合)이 맞아서 나왔으며…, 또 우리가 삼합이 맞아야 잉태를 하게끔 돼 있으니 말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 모두가 배우면서 실질적으로 느껴 가면서 알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노력하지 않고 차원이 높아질 수도 없고

노력 안 하고서 내가 스스로 여여하게 살 수도 없어요

그래서 남녀를 막론해 놓고, 여러분이 수기 쓰는 것처럼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써서 자기네들끼리 모아서 이렇게 낸다면 그것이 바로 훗날에 자기를 자기가 보는 것이 되고 자기가 한 페이지 써 놓은 게 되고, 또 남들이 볼 때도 그걸 보고 교화가 되고, 그건 여러 가지로 보살행입니다. 많이 쓰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스님네들이 좋자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한창 기복으로 가던 사람들도 되돌아설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우리 사무장님더러 달라고 그래서 여러분끼리 하세요. 사무장님 손을 거치는 것도 아니요, 그렇게 하시라고 하는 거는 다 뜻이 있어서 그럽니다. 여러분이 공부하는 그 자체도 겉으로는 어떻게 하든지 속 내용이 어떤가, 얼마만큼 길러졌나, 얼마만큼 잘하고 있나 이것도 검토할 문제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슨 체험담을 한다 이런대서가 아니라 수기 쓰는 셈 치고 자기의 진실한 마음을 그대로 한 페이지씩 쓰란 얘기죠. 써서 여러분이 한 신행회에 한 권씩 낸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이 질문을 하시는 데도 일부러 만들어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다니고 이렇게 배우다 보니까 이러한 생각이 드는데, 자기 생각으론 가망이 없는 것 같을 때, 또 여러분 집안에 무슨 문제가 있는데 주인공을 찾아도 아니 되더라 할 때 질문하세요. 생활이 즉 진리입니다. 그리고 교재입니다.

진리라는 이 자체를, 부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나도 항상 여러분한테 그렇게 말하죠. '인간이 살아나가는 데는 고정된 게 하나도 없다. 만남도 고정되지 않고, 보는 거 듣는 거 말하는 거 가고 오는 거 먹는 거, 전부 하나서부터 열까지 고정된 게 하나도 없다.'라고요. 그러니 과거는 바로 찰나 전이고 미래는 찰나 후란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도 연방 과거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니 지금 그 가운데에서 잘하고 못하고 잘되고 못되고 하는 이것이 대상을 두고서 살아나가는 살림살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상점을 하나 내는데 어디가 좋습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시다. 그걸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어떤 게 잘되는가 어떤 게 못되는가, 어딜 얻어야 하느냐, 이런 건 상식입니다. 무엇을 할 수 있느냐는 용도에 따라서 가게를 얻어야 된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리고 용도에 따라서 가게를 얻되, 잘 팔릴 수 있고 썩지 않고 그런 문제 등을 잘 살펴봐 가지고 책정을 하는 것이죠. 잘되는 거 못되는 것을 둘이 아닌 가운데서 그대로 그걸 자세히 봐서 결정하라고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지 않습니까, 다! 그걸 잘 봐서 하라는 뜻이죠.

또 무슨 일을 하게 되면 잘되는 거 못되는 거, 돈을 버는 거 못 버는 거 이걸 계산을 하지 말고, 못 버는 거 잘 버는 거 이 둘을 다 떠나서 한번 생각을 해 보는 거죠. 어떻게 해야만이 우리가 굶지 않고 살 수 있을까. 그럴 때 거기에서 요량이 생기는 것이 결정적인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계산도 없이 빚을 털퍽 얻어 가지고 가게를 얻어서 그걸 한들 이자로 다 빠지지 뭐가 남습니까? 먹고 사는 게 거기서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 못살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 아무것도 없으면 차라리 맨손으로 무엇을 들고 다니며 팔든지 이렇게 해서라도 그걸 감당할 수 있다면, 가다 보면 하늘에서 뚝 떨어질지 누가 압니까? 허허허….

정성이 지극하면, 지성이면 감천이랍니다. 올바른 생각과 올바른 행동과 선의로써 가정을 책임지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이라면 뭐든지 될 수 있습니다. 내 그런 얘기를 또 한마디 하겠습니다. 다 들으셨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은행 앞을 3년을 쓸었답니다. 하도 들여다보고 쓸고 쓸고 그러기 때문에 은행원들이 생각하기를 '신문지를 오려서 돈으로 보이게 해 가지고선 앞에 한번 내던져 보자. 그러면 아주 좋아서 들고 달아 나갈 거다.' 이럭하고는 신문지로다가 만들고 윗 덮개만 돈을 붙여서 그거를 내던진다고 해 놓고선, 딴 사람이 교대를 해서 들어오는 바람에 착각을 해서 진짜 돈을 내던지고 그거는 돈 가져가는 데로 보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돈보따리를 들고 가서, 자기도 공부를 못 했으니까 지점장의 이름을 쓰고 그 몇몇 아는 사람 이름도 쓰고 그렇게 해서 학교를 지었답니다. 그리고 또 집도 마련하고 해서 가정도 살리고요. 그랬는데 아니, 그 학교 지은 사람이 누구누구라고 하니까 그 은행으로 다 왔지 않겠습니까, 신문사에서. 그러니까 자긴 그런 새가 없는데 '심부름 하라고 주셔서 이렇게 했노라' 고 자기 이름을 밝혔단 말입니다. 그렇게 했으니 그 미지수로 남았던 문제가 나중에 밝혀지면서, 허허허…, 그 사람네들이 탄복을 했답니다. 야, 남을 무시하고 그렇게 장난 삼아 한 것이 현실로 벌어졌다는 사실에 놀라고 또, 그 사람의 마음이 그런 줄은 정말이지 모르고 무시했다는 거를 아주 절감하고 용서를 빌었답니다. 그러니 이름나서 좋고, 그러고부터 은행 직원들도 그렇지마는 그 지점장도 좋은 일을 늘 해 가더랍니다, 거기에서 모두 탄복을 해 가지고.

그런 것도 있지만, 올바르게 사는데도 방 한 칸이 없어서 쩔쩔매고 비를 주룩주룩 맞으면서 "스님, 어떡하면 살겠습니까?" 하고 네 식구, 다섯 식구가 우는데…, 그거는 그렇게 당해 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겁니다, 아마. 그 갑바, 그 뭔가 (양 손을 좌우로 벌려 보이시며) 이렇게 치는 거 뭐죠? 그 이름이 뭐예요? 왜, 캠핑 가서 치고 자고 그러는 거 있잖아요?

대중 텐트요.

스님 그거 말고 차에 물건 담아 놓고 위에 덮어서 가는 거.

대중 천막!

스님 천막! 허허허…. 천막을 치고선 오돌오돌 떨고요, 추운 가을에요. 그런데 그때가 장마통이라 가을인데도 비가 그냥 한없이 왔거든요. 그때는 여기 짓고 얼마 안 돼서니까 돈이 하나도 없을 때죠. 있었으면 그냥 다 줬을 텐데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그래,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그러니까 어서 집엘 가 봐라. 도중에 당신한테 하늘에서 떨어지는 뭐가 있다면 더더욱 좋을 테고…." 해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위안의 말에 울음을 그치고 가다가 보니 종이벽지 말은 것처럼 똘똘 말아져 있는 큰 신문지 뭉치가 떨어져 있더랍니다. 그래서 '어디 남의 원두막이라도 얻으려면 신문지도 필요하겠다' 고 생각해서 신문지를 주워 들고선 비를 맞고 갔죠. 가서 그 신문지를 푸니까, 돈이 잔뜩 들었더랍니다. 그래서 그 돈 가지고 전세 얻고, 우선에 구멍탄도 없으니까 구멍탄 한 백 장 들여 놓고, 아이,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길 해요, 허허허…. (대중 웃음) 백 장 들여놓고 쌀 한 가마 들여 놓으니까 세상에 누구도 부럽지 않더랍니다. 그래 와서는 "스님, 참 고맙습니다." 그래서 "왜 날더러 고맙대? 네가 오지 않았으면 나도 없을 것이고 내가 너를 보지 않았더라면 너도 없을 것이야. 언제나 사람과 일체 생명들은 다 그렇게 연관이 되고 인연이 돼서 돌아가는 거지. 그렇지만 그저 그렇게 어려워도, 착하고 마음이 정직하고 진실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그럭하고 나서부터 참, 아무 뜻도 모르면서 부처님의 법이 이렇게 그냥 좋다는 것만 알고 살고 있죠.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이 소리가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에요. 어저께 저, 전설의 고향인가 그거 보신 분들 있죠? 보신 분들 있으시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아버지를 위해서 얼마나 지극하게 했으면 그 석관 속에서 빠져 나와서 노인네로 화해 가지고선 삼천 냥을 만들어서 모두를 살리고 장가도 들이고 그랬잖나?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했습니다. 꼭입니다. 이건 틀림이 없습니다. 어떤 거든지 내가 마음을 올바르게 하고, 생각을 넓게 쓰고, 인의로써 남의 탓을 하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내가 잘하든지 못하든지, 내가 있으니까 상대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모두 잘들 하시면 아마도 보이지 않는 데서 무주상 보시가 내릴 겁니다. 정말입니다!

(다음 호에 계속)

※위 법문은 1997년 9월 7일 법형제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 나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황금털사자의 미미소

禪

한국 근현대 선사들의 眞面目을 선시로 읽다.



선의 중흥조 경허 스님에서 고암 스님까지
12명 걸승들의 살림살이가 녹아든 선시의
'완전 이해'

〈황금털사자의 미미소〉는 한국 현대 문단에
선시의 이론을 세운 독보적 존재
송준영 시인이 12명 선사들의 삶과 수행의
핵심을 소개한 노작입니다.

[송준영 지음 / 여시아문 펴냄 / 575쪽 / 25,000원]


경허 | 용성 | 학명 | 만공
한암 | 만암 | 만해 | 효봉
혜암 | 동산 | 경봉 | 고암

여시아문 02)2004-8237 | 016-217-4845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 국민 023-25-0007-617 예금주:현대불교신문사



불자 세상보기

박 범 이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서울지부장

교육, 경쟁과 차별의 끝이 안 보인다

경제를 살린다는 말만 믿고 당선시킨 이명박 대통령.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제2의 IMF가 올 수도 있다는 등 국가경제가 불안하다. 게다가 국민 70%이상이 반대한 대운하사업을 은근 슬쩍 다시 추진하는 꼼수도 보이고, 언론사 탄압도 거침없다. 종교편향을 사과도 하지 않고, 촛불을 들었다는 이유로 시민들을 중죄인 취급한 인권 침해 주범을 그냥 놔둔 채 '국민과의 대화'로 문제를 덮어버릴 생각만 하고 있다. 서민들이 먹고 살기는 힘들고, 힘들다고 말도 하지 못하게 하는 현 정권의 태도는 마치 80년대처럼 가슴을 먹먹하게 한다. 국민 모두의 관심인 교육문제는 또 어떠한가?

이명박 대통령은 '학교 만족 두 배, 사교육비 절반' 공약을 했었다. 그러나 임기 시작한 지 이제 7개월도 채 안되었지만 학교도 지쳐있고 사교육비는 천정부지로 더 솟아버렸다. '대학등록금 절반' 공약은 없던 일이 되었고 며칠 전에는 등록금을 내지 못한 대학생이 목숨을 끊었다. 하긴, 사교육비 절반이 아니라 곱배기가 될 수밖에 없는 공약, 등록금이 더 오를 수밖에 없는 자율화를 내놓았으니 교육공약을 '제발 지키지 말아주세요' 할 수밖에. 그런데, 공약을 지키고 있다. 그것도 아주 빠른 속도로 착, 착.

정권 인수위원회 시절 국어와 국사 외에는 영어로 수업한다는 '어륀지' 영어 몰입교육을 내놨다가 비판에 밀려 물러선 일이 있다. 그렇게 물러선 것이 너무 아쉬웠는지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영어로 수업하는 과목을 늘리고 영어 우열반을 편성하고 아예 서울에 영어몰입교육을 하는 국제중학교를 2곳이나 열겠다고 팔을 걷어붙였다. 정부 각료회의, 서울교육청 회의를 영어로 하고, '국민과의 대화'처럼 전국에 생중계해 달라고 하고 싶다. 그리고 '교육정보공개법'에 따라 초중고등학교 시험성적을 낱낱이 공개하듯 대통령과 각료들 영어실력도 공개하는 모범을 보이는 게 좋을 것이다.

그런가하면 현 정권은 오직 경쟁만이 살 길이라고 믿는다. 학교보다 더 빠른 속성도우미 사교육에서 남들보다 빨리빨리 배워 경쟁하란다. 그렇게 빨리 배워서 초등학생부터 국가경제를 이끌어나가야 한다고 믿는다. 물론 초등학생이든 유아이든 국가의 재목이 되고 사회에 보탬이 되는 동량으로 자라야 하는 것을 누가 부정하겠는가. 하지만 사람 사는 데 기초가 되는 것부터, 그리고 아이들마다 제 각각인 소질과 재능을 마음껏 키워줄 수 있는 보통의 교육부터 다지는 것이 초중학교 의무교육과정이다. 이 아이들에게 국가 경쟁, 국제적 리더가 되라는 부담부터 지우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알 수가 없다. 장미란 선수나 박태환 선수가 처음부터 역기 300kg을 들고, 1500m를 헤엄쳤겠는가 말이다. 기초가 튼튼해야 더 무거운 역기를 들고 더 빠른 마린보이가 될 수 있다. 이 단순한 것을 왜 모르는 채 할까?

이른바 고교다양화라는 것도 특수 계층을 위한 귀족학교를 더 많이 세우는 것이다. 외국어고등학교,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는 연간 교육비가 1000만원 이상 들고 사교육비도 계속 지원해주어야 하는 '돈 먹는 하마'다. 최근 발표한 '기숙형공립학교'도 마찬가지이다. 겉으로는 농어촌 지역, 즉 교육소외지역의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학교라지만 성적중심으로 전형을 하게 될 것이다. 학교다양화란 다양한 교육과정을 통한 학생 개개인의 능력을 키워주는 진정한 교육 실현을 의미하는 것이지, 계층을 기준으로 편 가르기를 하라는 것이 아니다. 결국 고교다양화 정책의 목표는 있는 집안의 자녀들만을 선별해서 더 좋은 교육여건을 마련해주고 대학입시에서도 유리한 길을 터주는 지름길이 된다.

이렇게 일부 계층만이 선호할 수 있는 '명품' 교육을 하는 이유는 이명박 정부를 지지해 준 '고소영' '강부자'들에 대한 보답이고 그들의 자녀들을 '귀족'대우해주겠다는 약속이다. 그 약속을 지켜주기 위해서 '귀족학교'를 만든 것이다.

그런가하면 '4 · 15 학교자율화'조치라는 것도 명품이다. 이름은 자율인데 내용은 학교장만의 자율이다. 청소년들이 '잠 좀 자자' '밥 좀 먹자'며 촛불을 든 이유는 자율화조치로 0교시와 우열반편성이 부활되고 이 때문에 인권은 무참히 짓밟히고 있는데도 학교장이 결정할 일이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의 강공드라이브 정책으로 촛불이 주춤했다. 불자이든 아니든 국민의 권력을 되찾자고 외친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 보호아래 여름을 나고 가을을 맞이한다. 시간이 더 가기 전에 이명박 정부는 부모가 능력이 있거나 아니거나 교육받을 권리를 차별하지 않는 국민의 권력

社說

'추석민심' 아닌 불심에 사과하라

8 · 27 범불교도대회 이후 우리 사회에서 종교차별 종식을 위해 국민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정치인들이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찾아와 '법제화'를 약속하고 기독교계 인사들도 조계종 총무원을 예방해 지관 스님에게 종교 화합의 길을 열어가도록 하자며 손을 잡았다.

그런데 청와대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해 오다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일련의 조치를 취할 것으로 말을 흘리고 있다. 대통령의 사과를 의미하는 입장표명의 방법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는 것인데, 좀 어색해 보인다. 현 정부 들어 일어난 종교편향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가 그렇게 고민까지 해가면서 절차와 모양새를 만들어야 할 일인가? 아직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 못했다는 말인가? 아무튼 불교계의 요구에 대한 반성차원의 사과가 아닌 민심수습 차원의 사과는 개운하지 않다. 20만 불교도가 땡볕 아래서 요구한 것은 추석민심을 의식해 등 떠밀린 사과를 하라는 것은 아니었다.

그런 만큼 추석 명절을 앞두고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대통령의 사과에는 불자들이 충분히 납득할 진정성이 담겨야 한다. 조건을 조건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사과가 아니라 대통령으로서 세상의 모든 소리를 듣고 이해하고 포용하는 입장에서 나오는 진솔한 심정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너무 늦은 사과가 오히려 화를 돋우는 꼴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추석민심이 아니라 불심을 향한 진정어린 사과를 기대한다.

범불교대책위의 의미와 할 일

불교계가 '헌법파괴 종교편향종식 범불교대책위'가 상설 전국조직으로 구성했다. 이미 예고된 수순에 따른 대책위의 구성이지만 그 의미가 적지 않다. 8 · 27범불교도대회에 대한 정부의 화답조차 없는 상황에서 향후 종교편향적 사례들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책위는 전국조직을 갖추고 공직사회 종교편향 활동 감시, 국민통합과 종교평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사업, 종교차별 금지법안 마련을 위한 입법 및 종교평화를 위한 정책 활동, 지역별 불교도대회 및 활동 지원, 시민사회 인식 저변 확대를 위한 연대활동 등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한다. 종교편향의 감시 기능과 재발방지를 위한 각종 활동을 펼쳐 가겠다는 의지다.

대책위의 구성과 함께 전국적으로 펼쳐질 개별적인 활동지침도 모든 불자들이 동참해야할 사항들이다. 종교편향과 차별, 훼불 등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주지시키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대책위의 활동이 당분간은 현정권에 대응하는 방식의 사업으로 전개될 소지가 많지만, 활동범위와 방법이 안정되면 우리 사회의 중요한 조정기능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종교갈등은 중요한 사회문제다. 그 이전에 개인이든 집단이든 종교편향이 가해지면 중대한 인권 침해이기도 하다. 때문에 다종교 사회에서 이러한 문제를 조정하고 예방할 수 있는 기구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대책위가 긴 안목으로 펼쳐야 할 사업 중의 하나가 바로 종교간 조정기능이란 점을 명심하자.

"이름으로 차별하면 공부 언제해?"



마음이 바뀌면 인생도 바뀐다

80 나는 부처님의 시자

공부 잘하는 처사

직장인인 고씨에게 친한 친구가 어떤 산중의 절에서 하는 수련회가 있다고 같이 가자고 하였다. "처사들만을 위해 마련한 자리야. 그 절에 대단한 노스님이 계셔. 대중법문을 잘 안 하시는데 이번에 우리를 위해 특별히 법문도 해 주시기로 했대." 첫날 취침시간이 되자 친구와 고씨는 가만히 처소를 빠져나왔다. 둘은 자지 않고 밤새 정진을 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절의 모든 건물은 아홉시면 잠그지만 친구는 주지스님과 잘 아는 사이였다. 미리 부탁해놓아서 그 날 밤만 산신각을 열어주기로 했다고 했다.

약속대로 둘은 산신각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비까지 오고 있었다. 그런데 한참을 기다려도 와서 문을 열어준다는 시자스님은 오지 않았다. 둘은 안 되겠다 싶어 산신각 옆 건물로 갔다. "여기 시자스님이 계시다고 했어." 방문을 두드렸다. 대답이 없었다. 취침시간이 지났으니. 그래도 또 방문을 두드리며 "스님, 스님!"하고 불렀다. 잠시 후 환갑이 넘은 듯한 스님이 나오셨다. 잠자리에 들려고 했는지 잠옷 같은 차림이었다. "무슨 일이오?" "스님, 산신각 열쇠 가지고 계십니까?" "네, 그런데 왜요?" 열쇠를 가지고 있으니 시자스님이 틀림없었다. 노스님의 시자스님이라 연세가 좀 되셨구나 싶었다. "스님, 죄송한데요, 주지스님께서 오늘 밤 산신각 문 열어주라고 말씀하셨지요?" 스님은 뜻밖이라는 표정이었다. "아니, 아무 말 못 들었소," "그럴 리가요. 분명히 주지스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난 모르는 일이오." 연락이 안 되었구나, 이대로 포기할 순 없었다. "주지스님께 전화로 확인하셔도 돼요." 자신만만했다. 둘은 "스님, 저희가 서울서 온 처사들인데요. 문만 좀 열어 주십시오. 네?" 하며 졸라댔다. 밤 늦은 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스님께 좀 무례하다 싶었다. 그러나 시자스님이니 당연히 좀 도와 주셔야지 싶었다. 무엇보다 주지스님말씀 아닌가. 내일은 주지스님의 은사이신 노스님께서 특별법문도 해주실텐데. '우리는 특별한 불자이다' 하는 마음이었다. 뻔뻔하게 졸라대니 결국 스님은 가보자고 하였다.

밤샘 정진

잠옷차림이던 시자스님은 열쇠를 찾아서 비 오는 마당으로 나왔다. 함께 산신각으로 갔다. 들어가서 초를 켜려니 보이지 않았다. 스님에게 "초가 없어요, 좀 찾아주세요" 하고 다시 부탁했다. 스님은 "잠시 기다려보시오" 하고 상단 아래의 문을 열고 어둠 속에서 이것저것 찾는 것 같았다. 얼마 후 "여기 있소" 하며 초와 성냥을 건네주었다. "감사합니다." 비오는 밤에 죄송했지만 고씨는 '시자스님은 절의 일 도와주시는 게 소임일 거야' 라고 마음 편하게 생각해버렸다. 그렇게 두 사람은 새벽예불 때까지 정진하였다. 피곤했지만 몹시 뿌듯했다. 내일 큰스님께 밤새 정진했다고 말씀드려볼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다. 그러면 이 서울처사들에게 특별히 법문해줄 만하구나 하고 생각하실지도 몰라. 하하, 난 역시 열심 불자야.

다음날 법문시간이 되었다. 어떤 처사들은 녹음기를 준비하였다. 절의 수십명 스님들도 큰스님 법문듣기가 어렵다며 모두 나와서 정좌하고 앉아 긴장된 분위기였다. 어떤 분인지 굉장히 궁금했다. 마침내 들어오는 큰스님을 보는 순간 앗! 하고 눈을 의심하였다. 어젯밤의 그 시자스님이었다! 가사장삼을 갖추고 위엄 있는 모습이 완전 딴 사람이었다. 아뿔싸, 큰스님이셨구나. 순간 너무 당황하여 멍해졌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고씨는 이해가 되지 않았다. 분명히 시자처럼 문도 열어주고 초까지 찾아 주었지 않은가.

"나 시자 맞아요"

이를 어쩌지. 큰스님께 초면에 삼배는커녕 일을 시켰으니! '지금 어디로 도망갈까' 안절부절했다. 순간 법좌에 높이 앉은 큰스님의 첫 마디가 귀를 때렸다. "서울서 공부 많이 한 처사들이 온다고 해서 얼굴을 보고 싶었어요." 아이고, 맙소사, 큰스님도 몰라본 내 공부 실력이라니. 고씨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무릎을 꿇고 들었다. "나는 여기 회주스님이다"라고 한 마디만 해 주셨어도 좋았을 텐데. 왜 안 하셨지? 모두가 건강을 염려해 드린다는 큰스님을 비오는 밤에 일까지 시켰으니 주지스님이 아시면 뭐라고 하실까. 진땀이 나면서 '그래, 변명이라도 해야겠다. 몰라서 그랬다고' 하고 결심했다.

법문이 끝나고 간신히 기회를 잡았다. 스님에게 "스님, 어제밤에 정말 죄송합니다. 시자스님이신 줄만 알았거든요." 스님은 얼굴빛도 안 변하고 "나 시자 맞아요. 중이 부처님 시자 아닌가." 그리고는 "아직도 이름으로 사람을 분별한다면 공부는 언제 합니까" 하였다. 아, 부처님, 참회하옵니다. 다시 초발심으로, 하심부터! 죽자, 죽어, 죽고 싶다. 황수경(동국대 선학과 강사)

2009년의 신수 비결이 출간 되었습니다.
"효타비결 = 신수비결"
• 2009년 개인의 사주를 감정하여
• 직업, 재물, 사업, 이성 운과 인연
• 성적 및 진학 운, 일진 및 외출하는 날
• 생년월일만 알면 누구나 운세를 바로 볼수 있고
• 정확하여 적중 율이 높습니다.
정가 25,000원. 고객 20,000원

대폭할인서비스안내
그동안 성원에 감사드리며, 아래의 책들을 1개월 동안 20% 할인 서비스 합니다.
• 기간 : 2008년(양력) 9월 8일 – 10월 7일까지 (1개월)

"이름 대사전"
• 대법원 선정 한자만 사용하여 이름 풀이까지 되어 있고,
• 320여개의 성씨별로 삼원, 수리, 음령 오행을 맞추고,
• 성씨별로 2000-3000여개의 이름들로 구성
• 개명, 작명, 법명, 상호, 등에 바로 사용할 수 있음.
정가 : 50,000 ⇨ 4만원

"효타 비결서"
• 일년이면 최고의 프로가 될 수 있는 비서.
• 한글 전용으로 누구나 쉽게 독할할 수 있음.
• 전화 질문 및 상담해 드림. 정가 : 50,000 ⇨ 4만원

효타암 주지 원공 합장
◆ 농협 121076-56-092613(손선미)
부산 금정구 금사동 34-4 문의 : 051)524-9406

"하기 책자는 스님들께만 보내드리는 책자입니다"
[무료]
※ 본 책자는 현재 사찰을 운영하시는 스님들을 통해서 스님의 신도들에게 무료로 배포되는 책자입니다. 먼저, 스님께 1권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생전예수재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 법사

책자안내
① 생전예수재란 무엇인가?
② 생전예수재를 지내면 얻게되는 공덕은 무엇인가?
③ 생전예수재는 그동안 어떻게 지내져 왔는가?
④ 현재의 생전예수재 의식과 절차에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⑤ 새로운 차원의 생전예수재 의식 그 방법과 방편은 무엇인가?
⑥ 새로운 예수재 그 의식과 절차에 대한 설명.
⑦ 새로운 예수재는 언제 어떠한 경우에 지내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⑧ 생전예수재 49재 기도의식처 조성의의.
⑨ 부록 : 십이생상속(十二生相屬) 백팔대참회문.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 Fax 031)768-8413

해동불교 임제종
입 종 안 내
종정대행 총무원장 석지암

원로원장	석지륜	종회의장	지 언
승적원장	지 해	총무부장	무 오
호법부장	혜 인	감찰부장	오 도
조직부장	묘 화	포교국장	제 덕
총무국장	제 도	조직국장	제 광

임제의현 선사의 가풍과 선법은 지암선사의 불법과 바람이라. 부처님의 바람을 한번 고요할 때. 불법의 바다가 임제종에 넘쳐 흐르고, 부처님의 바람을 한번 일으킬 때. 불법의 바다가 임제종에 넘쳐 흐르네. 어느곳에서 바람이 일어나고, 멸하느냐고 묻지마라.
먹구름 하늘에 천둥번개가 치며, 망망한 바다에 큰 파도가 일듯이 부처님의 불법이 하늘과 바다에, 임제종에 넘쳐 흐른다.
임제의 할은 후학을 살리고자 함이었다. 할은 당대 후학들을 깨치는 가장 강력한 무기.
단번에 뛰어 곧바로 해동불교임제종에 들어가면 감격이 큰스님이 되느니라.

각원장, 부장, 지역구 종무원장을 모집합니다.
스님 입종을 적극 환영합니다.
◆준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사진 5매, 수행이력서 1통

해동불교임제종 총무원장 석지암
총무원 :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1033-4번지
전 화 : 061)644-7273 / 010-3807-8428

봉 해동불교무량종 행
종 도 모 집
해동불교무량종은 석가모니부처님의 자각, 계송, 각행원만의 근본교리를 바탕으로 상구보리하화중생의 보살도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생활 속의 적극적인 포교를 종지로 합니다


학성 (무량 대종사)

· 총재 및 조실 : 김정일 (법일 대종사)
· 종정 대행 총무원장 : 학성 (무량 대종사)
· 중앙고시법계위원장 : 박찬옥 (춘파 종사)
· 중앙교육원장 : 신원식 (도우 종사)
· 중앙포교원장 : 이광춘 (혜엄스님)
· 중앙사정원장 : 김광윤 (성일스님)
· 비 서 실 장 : 조종훈 (광원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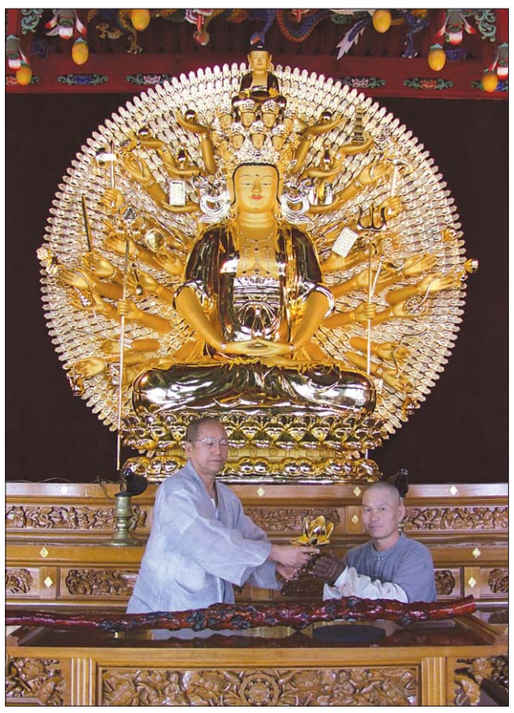
◆ 사암등록 입증서류
· 주민등록등본 1통
· 이력서 소정양식 1통
· 승려, 교임, 전법사 신고서 1통
· 명함판 사진 7매

(재) 해 동 불 교 무 량 종
총본산 : 전남 여수시 소라면 관기 1구 10번지 무량사
전화 061)683-7147 / 010-3114-4074
※입종시 사암등록증과 주지임명장과 법계증서, 수료증서, 승려증을 드립니다.



부산 해운정사, 불자들 발길 줄이어

원통보전 천수천안관세음보살 황금불사 원만회향해



◇ 2008년 8월 부산해운정사 원통보전 '천수천안관세음보살' 황금불사중 진제큰스님(좌)과 청호스님

진제 큰스님의 선기가 반야광명의 지혜로 펼쳐지는 도량, 부산 해운정사에 불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아 화제다. 천수천안관세음보살 황금불사 원만회향 후 원통보전에 기도 · 정진을 위한 불자들이 줄지어 찾기 때문이다.

원통보전은 해운정사의 큰법당으로 조선후기 양식으로 지어졌다. 1987년부터 3년여 대역사 끝에 1989년 완공된 108평 규모의 한국에서 몇 안되는 큰 법당 중 하나다. 생명의 근원인 바다와 인접해 해수관세음보살을 모시는 관음신앙이 발달한 바닷가 특성상, 진제 큰스님은 중생들의 소원성취와 부처님의 심인법의 전파를 위해 원통보전을 건립했다.

원통(圓通)은 '부분이 아닌 전체'로 '편벽되지 않고 두루 통함'을 뜻한다. <능엄경> 제6권 '이근원통(耳根圓通)' 장에서는 이근을 닦아야만 두루 통하게[원통] 된다고 설하고 있다. 이근을 통하면 나머지 근(根:안,비,설,신,의)도 다 통하게 된다.

관세음보살은 소리를 관(觀)하는 이근원통 수행법으로써 '온전히 통함(圓通)'을 이룬 보살이다. 그래서 관세음보살을 모신 법당을 '원통전'이라 칭하기도 한다. 관세음보살님을 모신 전각이 한 사찰의 주불전(主佛殿)일 때는 원통전, 원통보전이라고 하고, 부불전(副佛殿)일 때는 관음전이라 한다.

해운정사에 원통보전은 천수천안 관세음보살(千手千眼觀世音普薩)을 주불(主佛)로 모셨다. 봉안한 천수천안 관세음보살상은 15척 높이, 7톤 무게로 한국 최대 금동불상이다. 천수천안 관세음보살상은 천개의 손바닥 하나하나에 눈이 있어, 모든 사람의 괴로움을 그 눈으로 살피고, 그 손으로 구제하고자 하는 염원을 상징한다.

2008년 8월 18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 천수천안관세음보살 황금불사는 모든 중생이 고통받는 때 부처님 광명을 중생들에게 더 가까이 전하고자 황금 새 옷을 입혀드리게 됐다.

신심 담아 황금불사 이룬 청오 스님

진제 큰스님과의 각별한 인연인 청오 스님(거창 달마사 주지, 청다향 대표)은 부친 故 김영인 거사와 불상조성에 동참한 이래 이번에는 황금불사까지 진행을 맡았다.

청오 스님은 "1987년 진제 스님과 아버지가 조성한 천수천안관세음보살이었다. 이제는 아들이 황금불사를 맡아 감개가 무량하다"며, "진제 스님의 원력이 있었기에 천수천안 관세음보살에 신심을 담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청동불, 최초의 천수천안 관세음보살상 조성을 위해 청오 스님은 아버지와 20여년전 진해 불모산(佛母山)에 터를 잡고, 진해 앞바다에서 직접 짊어나른 진흙으로 용광로를 만들어 불상을 조성했다.

스님은 "시뻘건 쇳물을 퍼나를 때는 조금만 실수해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 하지만 목숨 따위가 신심을 막을 수는 없었기에, 15척 규모의 청동불을 조성했다"고 회상했다. 故 김영인 거사와 청오 스님은 통도사 보광전, 범어사 내원암 등 수 없이 많은 청동불을 만든 불모(佛母)다. 천연향인 청다향을 만든 번뜩이는 아이디어는 불상조성 때부터 있었다. 청도 보현사에서는 법당이 아닌 옥외에 봉안한 부처님을 국내 최초로 개금했다. 김 거사는 기룡관음, 어린 동료를 안고 있는 포대화상 등 많은 불교예술 도안을 선보였다.

스님은 "아버지와 불상 조성 중 밤마다 꿈에 신장이 찾아와 불상의 잘못된 부분을 손으로 만져줬다. 잠을 깨고 살펴보면 틀림없이 그 부분은 잘못돼 있었다"며, "이번 황금불사에도 밤마다 바랑을 짊어진 스님들이 잘못된 곳을 지적해줘 원만회향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진제 스님과 부산 해운정사는....

경허-혜월-운봉 선사로 이어진 불조정맥을 이어받은 향곡 선사(1912~1978)는 1967년 진제 큰스님에게 심인법을 부촉하며, "네 대에 선풍이 크게 흥하리라"고 예언했다. 이후 진제 큰스님은 일체 중생을 제도하고 임제(臨濟) 법맥을 이을 법제자를 양성하기 위한인연터를 찾던 중, 해운대 장수산에 이르렀다. 태백산맥이 굽이쳐 내려와 장중한 기운이 맺힌 것을 본 큰스님은 산의 모습이 장려(壯麗)하고 진중(珍重)해 '수행자들의 최상의 공부터'라 간파하고 1971년 해운정사에 터를 잡았다.

해운정사는 중생 교화에 더없이 좋은 곳으로 장수산 뒷모습은 거대한 코끼리 형상을 하고 있고 해운대에서 바라보는 앞모습은 새끼를 품고 있는 암사자의 형상을 하고 있어 위대한 인물이 끊이지 않고 나올 터로 알려졌다. 또한 좌청룡 우백호가 뚜렷하고 앞으로는 망망대해가 펼쳐져 있어 명당 중의 명당으로 손꼽힌다.

진제 큰스님의 '참나'를 밝히는 참선 지도에 따라 해운정사에서는 세 곳의 선방에서 200여 명의 사부대중이 화두일념을 지속시키려는 열기가 가득한 한국 제일의 참선도량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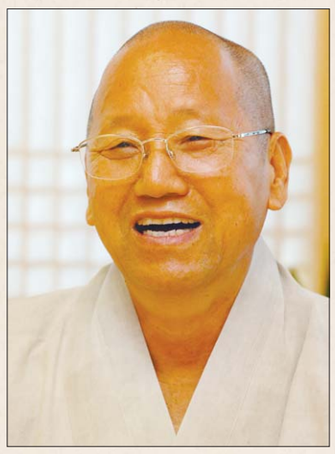
매월 음력 초하루와 18일 지장재일에는 법회가 열려 진제 큰스님의 법문을 들을 수 있다.

부산 해운정사 전화 (051)746-2256 팩스 (051)741-8882



■ 진제 스님 법어

모든 대중께서 일상생활 속에 참선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지혜의 보검(寶劍)을 갈고 닦아서 천하 제일가는 보배칼을 완성하게 됩니다. 보검을 완성하면, 다겁생에 쌓인 중생의 업식(業識)의 무명초(無明草)를 한칼에 다 베어 없애고, 뭇 성인의 대열에 들어서 지혜의 보검으로 자웅(雌雄)을 겨룹니다.

옛 도인들이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이 빈한하게 삶은 지혜가 짧음이요, 말이 야위면 털이 길이로다." 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잘 살 수도 없고 출세할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부모가 유산과 높은 자리를 넘겨줘도 지키지를 못합니다. 밝은 지혜가 앞서면 세상의 부(富)와 높은 지위는 생각만 내면 내 것이 됩니다. 따라올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 '참나'를 밝히는 참선수행을 꾸준히 연마하십시오. 밥을 지으나, 빨래를 하나, 농사를 지으나, 산책을 하나, 잠을 자나 오매불망(寤寐不忘) 간절히,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던고?'라고 말입니다. 이 몸뚱이는 빈부, 귀천, 노소를 막론하고 숨 한번 들이쉬고 내쉬지 못하면 그만 썩어 냄새나서 화장(火葬)하고 묻어버리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 몸뚱이는 참나가 아닙니다. 부모로부터 받은 몸은 결국 백 년 안에 다 무너져 썩어 없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 몸 부모에게 받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입니까?

정말 참나를 모르고 백년을 산들 아무 값어치가 없습니다. 이 참나 가운데 모든 부처님의 진리가 다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참나를 아시어 위대한 부처님이 되셨고 역대의 도인스님들도 그러하셨습니다.

금일 이 법회에 참여하신 모든 대중께서도 일상생활 속에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던고?' 하고 시냇물처럼 화두가 밤낮으로 한 모양으로 흘러가게끔 오매불망 간절히 참구하십시오. 화두 의심 한 생각이 밤낮으로 쭉 흘러가는 여기에 깨닫는 문(門)이 있습니다.

그러면 화두를 참구하는 사람은 부지기수인데 왜 도를 증득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참선을 한다' 해도 혼침 · 망상에 시간을 다 빼앗기기 때문입니다.

시냇물과 같이 밤낮으로 한 모양으로 끊어지지 않고 흘러가야 합니다.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던고?'라는 간절한 의심이 끊이지 않고 무르익으면 보는 것도, 듣는 것도 잊어버리고 앉아 있어도 낮인지 밤인지 모르게 됩니다.

이렇게 한 생각에 몰두해서 며칠이고 몇 달이고 흐르다가, 홀연히 보는 참나, 듣는 참나에 화두가 박살이 나면 자기의 참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 천불(千佛) 만조사(萬祖師)와 동일한 진리의 눈이 열리게 되고 너도 장부요 나도 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리가 부처님법에 있지 다른 종교에는 없습니다.

(2005년 5월 7일 범어사 설선대법회 회향법어와 무차선법문 中 발췌)

"부처님께 공양 올릴 향 만드는 것이 수행" 청다향 만든 달마사 청오 스님



"산천 초목의 풀잎과 꽃잎에 가득한 향을 따는 순간 느껴지는 상큼함, 그 순간을 잡고 싶었습니다" 덕유산 자락 산천을 누비며 사시사철 꽃잎을 따는 향에 미친 스님이 있다. 얼마나 꽃잎을 따 빻고 찧기를 반복했을까. 한겨울에도 땀으로 온몸이 젖으며 겪은 오랜 시행착오 끝에 청다향 천연 향 제품을 개발한 이는 청오 스님(거창 달마사 주지 · 사진)이다.

열세살 때 대구 정혜사에서 정각향 창시자인 故 송정도 옹으로부터 향만들기를 배웠지만 향 만들기를 포기했던 스님은 어느 날 일간지에서 "태우는 향이 담배연기보다 더 나쁜 유해물질을 배출한다"는 기사를 접하고 다시 향을 만들기로 결심했다고 한다.

스님이 만드는 향은 수십가지 야생천연재료로 인체에 전혀 무해할 뿐더러 효과가 좋다. 얼마 전에는 이광근 교수(동국대 식품공학과)의 도움으로 성분분석까지 마쳤다. 이 교수는 "청오 스님이 만든 향은 아로마테라피 형식으로 분석결과 천연재료의 각 성분을 잘 살렸다"고 말했다.

쑥 · 아카시아 · 박하 · 솔잎 등 덕유산 자락의 모든 초목을 향재료로 사용한다는 스님은 "아카시아는 개화 후 2~3일 안에 채취해야 하고, 솔잎은 한겨울 눈 내린 뒤 채취하는 것이 좋다. 풀잎마다 꽃잎마다 채취시기가 정해져 있다"고 말해 재료 채집부터 보통 정성이 필요한 것이 아님을 강조했다. 10ml 한 병의 엑기스를 증류해 얻기 위해 한가마니의 풀잎이 필요하다는 스님은 손수 재료를 재취하고 향을 만든다고 한다. 또 향을 발산하기 위한 청자로 된 향로까지 모든 것을 직접 제작한다.

부처님께 올리는 향을 만드는 것이 수행이며 공부라는 스님은 "공양 중 향 공양이 으뜸 아니겠냐"며 제대로 된 우리 향을 통해 불자들의 건강과 신심을 북돋고 싶다고 말했다.

<현대불교신문> 2008년 3월 5일 보도기사

■ 9월 30일까지 향로 보시

자연향이 피어나는 인등향로(20~30만원 상당) 1세트를 9월 30일까지 선착순 33분에게 보시합니다.

청다향 전화 : 055)941-1083
팩스 : 055)941-1084